



2022년

‘오늘의 지명’ 모음집

본 모음집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홈페이지 및 국토정보플랫폼 메인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매일 선보였던 ‘오늘의 지명’ 365건을 모아 재수록한 책자입니다.





발간의 글

이 모음집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홈페이지와 국토정보플랫폼 메인 페이지 배너창을 통해 매일 선보였던 ‘오늘의 지명’ 365건을 모아 수록한 e-book입니다.

‘오늘의 지명’은 날짜, 사건, 인물, 시기 등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지명을 선별해서 ‘땅 이름’ 지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간 홍보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의 지명’을 모아 e-book으로 선보이면서, 지명이 단순히 장소를 지시하는 뜻말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과거를 살아온 선조들이 가져온 사상과 지혜를 엿 볼 수 있는 차원 높은 공간정보로서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명’을 읽는 독자분들에게 ‘지명’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 해 동안 ‘오늘의 지명’을 사랑해 주신 독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장
조우석

목차

2022년 1월

호미곶, 호암산, 정족산, 범솔, 설골, 호두산	4
녹하지악, 복호산, 설논, 대덕산, 축만제, 석성산	5
제황산, 죽동, 일림동, 맹골, 안민, 양지	6
대관령, 평창 평화봉, 창포, 월명마을, 온동, 호곡	7
온수골, 호건리, 백동, 용호동, 동수곡, 예내	8
영골	9

2022년 2월

톨미앞들, 지경고개, 새갓, 입춘내, 입춘내교	9
천아도, 두루미, 엄랑굴, 개구령, 아현동, 설곡	10
북호곡, 부안동, 범선굴, 신곡, 정동, 백야	11
만월동, 묘곡동, 달밭골, 어우실, 온방, 호덕	12
한산물, 동엽령, 한치, 관동, 낙원동	13

2022년 3월

만세봉	13
천안유관순광장, 선낙골, 도덕골, 찬우물, 조원말, 지지대고개	14
분바위, 세종로, 청운동, 꽃산, 관성, 비루거리	15
덕양산, 개야리, 북송아꽃공원, 봄비공원, 방지, 이화동	16
봉대산, 춘생, 절뚜루, 화원동, 꽃밭골, 모악산	17
여좌동, 만화동, 월출산, 화순이, 신불산, 죽연	18

목차

2022년 4월 19

문어포, 하회, 신호, 연하, 지리산, 숲세터 -----	19
온동, 화림, 장춘리, 화실, 평동, 춘경리 -----	20
방리, 고야골, 꽃밭모리, 보안, 황정, 역둔 -----	21
수유리, 자작둔지, 카이스트교, 푸름공원, 용지봉, 화양리 ----	22
구법원사거리, 유토, 고봉산, 이순신대교, 오봉산, 장수원 ----	23

2022년 5월 24

정자나무고개, 함영골, 꽃바위, 무봉산, 도란도란공원, 미현동 -	24
화동, 불당골, 효우촌, 배원, 성황산, 화개산 -----	25
숙지산, 홍류동, 사자봉, 혜음공원, 너울가지공원, 효계울 ----	26
효동, 매화산, 성덕, 미소공원, 춘기, 도도물 -----	27
도장, 꽃재, 영춘정, 서천망월, 다솜공원, 곤재 -----	28
풍암 -----	29

2022년 6월 29

송도, 추산, 남대천, 느티나무골, 당정뜰 -----	29
동작동, 관자고개, 그늘리, 아동, 송정리, 질구내 -----	30
남대천, 김대중대교, 무징이, 구로동, 초지, 냉정 -----	31
토동, 굴바위골, 하설산, 송정, 모라치고개, 대은동 -----	32
피앗재, 정농1, 후농, 신개촌, 관촌역전, 소연평도 -----	33
호포 -----	34

2022년 7월 34

전월산, 화산약물, 소미기, 약막, 이촌동 -----	34
비룡, 길치고개, 송산리고개, 유목정, 용수맥이, 큰말 -----	35
성불계곡, 신숲, 문수산, 잠실, 닭이봉, 서리풀터널 -----	36
계두, 노포, 월영봉, 괴정, 요풍동, 곤지산 -----	37
냉천동, 삼악산, 생계령, 치알봉, 닭재산, 태화산 -----	38
협재, 주금산 -----	39

2022년 8월 39

꽃지, 덕동계곡, 울포, 대야산 -----	39
모항, 한신계곡, 경포말, 북한산, 옥지도, 가리산 -----	40
제부도, 덕촌, 해방촌, 새마을, 천광리, 해양도 -----	41
복음촌, 돌장재, 유정, 풍혈, 석정, 상범 -----	42
물한, 서피동, 법수동, 한정이, 남창골, 가탄 -----	43
원심교, 채운, 여름실 -----	44



목차

2022년 9월 44

오리뜰, 우이동, 황단	44
추풍, 추도리, 원안영, 협석골, 뇌골, 제추골	45
망월산, 압촌, 금동, 중리, 행단, 연래골	46
추포도, 화랑터, 대지기, 미어실, 물치도, 태봉산	47
단풍이, 가독, 황장곡, 금평, 와룡산, 와룡동	48
추포대교, 마곡, 매봉	49

2022년 10월 49

맹동산, 영안동, 마니산	49
금추리, 후암동, 새터, 신촌, 양지말, 옥낭각씨베짜는바위	50
왕암고개, 대궐터, 시어동, 남한산성, 무봉산, 도덕산	51
주왕산, 송추골, 내장산, 설악산, 치악산, 대둔산	52
오대산, 득적동, 잣마을, 독도, 죽미, 양화금	53
교촌, 추강, 부용산, 속금산	54

2022년 11월 54

마라도, 대추	54
적상산, 창골, 남가좌동, 숯골, 천복터, 행정	55
단광촌, 상암동, 논산평야, 화지미, 임당, 장자골	56
하안리, 무학봉, 외얏골, 율촌, 추팔, 대추골	57
성산동, 풍곡, 흑두지, 밤가시, 황금재, 성당못	58
백추, 장보고대교, 필동이가, 명랑	59

2022년 12월 59

쟁갈, 설월리	59
빙석촌, 소선명, 초량, 동송, 나리, 오라리	60
태백산, 쇠깎, 온금동, 동온동, 더운맹이재, 언나무재	61
소오산, 병천, 비리동, 은골, 설경리, 상염창, 하염창	62
얼음골, 동지화, 논산천, 신흥촌, 가구, 작은반월	63
봉대산, 동림, 국수고개, 일광산, 세방	64

1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호미곶”

2022년 임인(壬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재미있고 독특한 지명(地名)을 매일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인(寅), 즉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에 호랑이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 가장 먼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호미곶’이 생각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호미곶’은 새해에 처음 뜨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찾는 해돋이명소 중 하나입니다. 포항시에서도 매년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아쉽게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호미곶(虎尾串)이라는 지명은 이 곶이 호랑이를 닮은 한반도의 꼬리 위치에 있다는 의미에서 2001년에 정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새해의 새 해와 함께, 여러분 모두 복(福) 많이 받는 건강한 임인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호암산”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난 해 발간한 『띠지명이야기』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된 전국의 지명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책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임인(壬寅)년을 맞이하여 호랑이 관련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호암산’은 산의 형상이 마치 그 자리에 열드러있는 호랑이를 닮았다 하여 ‘범바위산’, 즉 ‘호암산(虎巖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호암산에 전승되는 전설과 민담을 잘 수집하고 정리해두었기에 함께 소개합니다. 옛날 이곳에 흰 새 삼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삼형제가 힘겨루기를 하느라 호암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산 아래 마을로 던져서 그 바위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고할머니가 돌 7개를 담아 와서 산 서쪽에 던져놓은 칠성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개만 남아있다는 이야기, 산 아랫마을에서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날개를 태웠더니 아이가 죽고 산에서 용마가 나와 그 집 지붕을 뛰어넘은 다음 눈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등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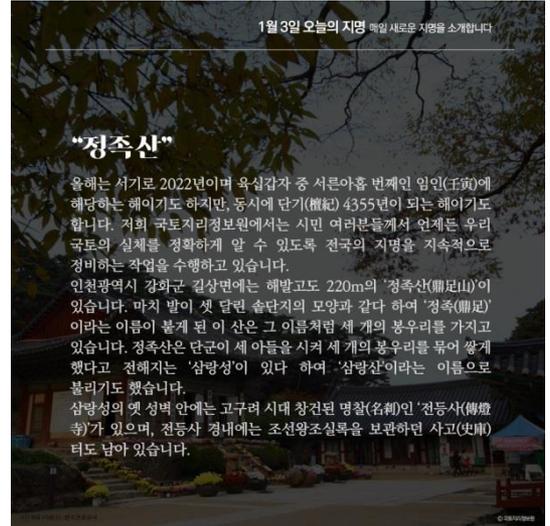
1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정족산”

올해는 서기로 2022년이며 육십갑자 중 서른아홉 번째인 임인(壬寅)에 해당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단기(檀紀) 435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연계든 우리 국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국의 지명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장면에는 해발고도 220m의 ‘정족산(鼎足山)’이 있습니다. 마치 발이 셋 달린 솥단지 모양과 같다 하여 ‘정족(鼎足)’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 산은 그 이름처럼 세 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족산은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세 개의 봉우리를 묶어 쌓게 했다고 전해지는 ‘삼랑성’이 있다 하여 ‘삼랑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삼랑성의 옛 성벽 안에는 고구려 시대 창건된 명찰(名刹)인 ‘전등사(傳燈寺)’가 있으며, 전등사 경내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史庫) 터도 남아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범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호랑이’ 관련 지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처리에는 선돌, 즉 사람이 세워둔 돌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부마(공주의 남편)에게 하사한 땅의 경계로 세운 돌이라는 전설이 있기도 한 이곳 ‘처리(處里)’의 원래 이름은 ‘범솔’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근에 있는 소수산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다고 하여 지금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고 하는 ‘처리’는, 오래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에 호랑이 한 마리가 온기를 찾아 여울을 우는 가마솔 안에 들어가 있어왔다고 하여 ‘범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한자로 호정리(虎鼎里)라고 한 것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가운데 ‘정’을 빼고 ‘호리(虎里)’라고 쓰려다 잘못 기록해서 지금의 ‘처리(處里)’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설골”

임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겨울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추운 겨울이 물러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는 ‘설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설골’은 한겨울 내린 눈이 잘 녹지 않는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말 ‘골’은 ‘골짜기’와 ‘마을’이라는 두 가지 경우에 함께 사용됩니다. 따라서 ‘설골’은 ‘설곡(雪谷)’, 즉 눈 골짜기라는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을이 원래 ‘설(雪)씨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긴 산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눈 골짜기’라는 마을 이름처럼 지금도 겨울에 내린 눈이 봄철 늦게까지도 좀처럼 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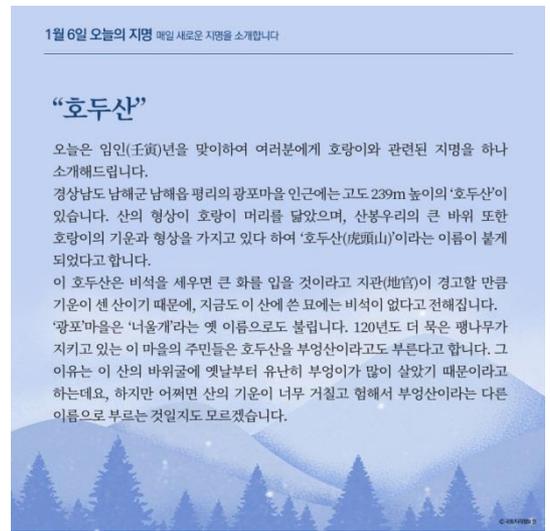
1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호두산”

오늘은 임인(壬寅)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의 광포마을 인근에는 고도 239m 높이의 ‘호두산’이 있습니다. 산의 형상이 호랑이 머리를 닮았으며, 산봉우리의 큰 바위 또한 호랑이의 기운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여 ‘호두산(虎頭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호두산은 비석을 세우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지관(地官)이 경고한 만큼 기운이 센 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산에 쓴 묘에는 비석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광포마을’은 ‘너울개’라는 옛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120년도 더 묵은 갯나무가 지고 있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호두산을 부엉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산의 바위굴에 옛날부터 유난히 부엉이가 많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어쩌면 산의 기운이 너무 거칠고 험해서 부엉산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녹하지막”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제주도에는 항상 훈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도 바람에서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 중문동에는 ‘녹하지막(鹿下窟岳, 녹하지오름)’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슴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 한라산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반드시 이 오름을 거친다고 해서 ‘녹하지(鹿下窟)’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녹하지’가 지금은 사라진 어떤 순우리말 단어였을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녹하지 오름의 북동쪽에는 크고 작은 세 개의 봉우리로 된 ‘거린사슴’오름도 있습니다. ‘갈라다’에서 파생된 ‘거란’에, 사슴 등성이를 닮았다고 하여 ‘사슴’이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복호산”

임인(壬寅)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에는 고도 216m 정도 높이의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산은 밤이 깊어 달이 지고 날이 새는 바람에 호랑이가 뛰쳐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엮여 있는 형국이라 하여 ‘복호산(伏虎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호산의 동남쪽에는 호곡(虎谷)마을도 있습니다. 원래 복호산의 호랑이 발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다 하여 ‘족소리(足所里)’라고 불렸지만, 이후 호랑이 산 밑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지금의 ‘호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호산 동쪽의 호덕(虎德)마을도 원래 ‘호동(虎洞)’이라고 불리다가, 마을의 주산의 끝자락에 개 형상의 작은 산이 있어서 호랑이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덕이 있다’ 하여 지금의 ‘호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설눈”

겨울이라고 항상 허얇게 눈이 쌓이고 얼어붙어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겨울 풍경을 떠올려보면 눈꽃 가득 핀 설원(雪原)이나 설산(雪山)이 생각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의 태백산맥 높고 깊은 정선의 신동을 운치리에는 눈으로 온통 뒤덮이지 않아도 이름 때문에 항상 눈을 연상시키는 ‘설눈’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어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마을 사람들이 눈을 치우다가 큰 눈쟁이 일어나 서로 싸운 일이 있다 하여 ‘설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실제로 북쪽과 동쪽과 남쪽이 모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깊고 외진 산골마을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낮아지는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이 마을에서 서쪽으로 골짜기를 따라 한참 내려가면 아름다운 급이쳐 흐르는 등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덕산”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 됩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될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양시의 ‘대덕산’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산의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이 산에 와서 치성을 드리고 나면 큰 덕을 입게 된다고 하여 ‘대덕산(大德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덕산을 중심으로 고양시 대덕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서울과 연결한 대덕산 동쪽 덕은동은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는 창릉천과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대덕산이 가로막고 지켜 서있는 대덕마을 지역은 아직까지도 예전의 농촌마을의 형태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축만제”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 됩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될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수원시의 지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원시 지역에는 마한의 54개 소국 가운데 하나인 모수국(牟水國)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수’란 이름이 ‘벌물’의 뜻을 갖는 것으로 지금 명칭인 ‘수원(水原)’의 뜻인 ‘물밭’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후 이곳의 이름은 ‘매울(買憂)’, ‘수성(水城)’, ‘수주(水州)’에서 지금의 ‘수원’이 되었는데, 결국 그 이름에 항상 ‘물’이 있었던 셈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는 축만제(祝萬提)라는 제방을 쌓아 만든 저수지가 있습니다. 수원 서쪽에 있다 하여 서호(西湖)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축만제는 정조가 수원성을 축성할 당시 동서남북에 각기 하나씩 만든 저수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친년만년 만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의 ‘축만제’의 이름처럼 수원시가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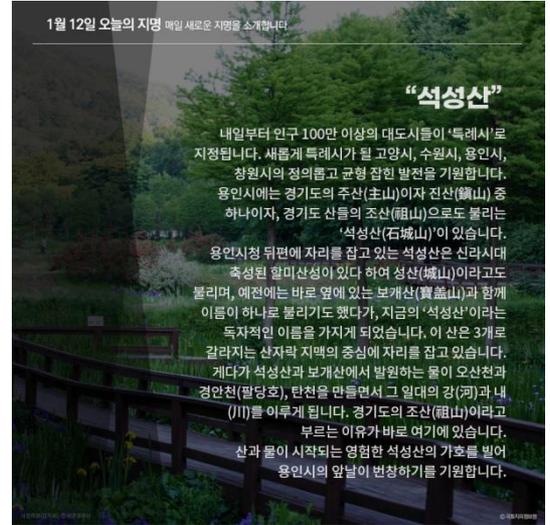


© 국토지리정보원

1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석성산”

내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될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인시에는 경기도의 주산(主山)이자 진산(鎭山) 중 하나이자, 경기도 산들의 조산(祖山)으로도 불리는 ‘석성산(石城山)’이 있습니다. 용인정 뒷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석성산은 신라시대 축성된 함미산성이 있다 하여 성산(城山)이라고도 불리며, 예전에는 바로 옆에 있는 보개산(寶蓋山)과 함께 이름이 하나로 불리기도 했다가, 지금의 ‘석성산’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산은 3개로 갈라지는 산자락 지맥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성산과 보개산에서 발원하는 물이 오천산과 경안천(팔당호), 탄천을 만들면서 그 일대의 강(河)과 내(川)를 이루게 됩니다. 경기도의 조산(祖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과 물이 시작되는 영원한 석성산의 가호를 빌어 용인시의 앞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제황산”

오늘,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원시의 지명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제황산(帝皇山)’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원래 ‘부영동’, 또는 ‘부영산’이라는 소박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봉우리 역시도 ‘두엄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산의 북쪽 혹은 동쪽이 광복 후에 임금이 탄생하는 명당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제황산 봉우리에는 진해탑(鎭海塔)이 서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세운 러일전쟁 전승기념탑을 광복 후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대신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진해탑은 현재 전라대 검 박물관 등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맹골”

2022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용인시에는 맹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孟里), 즉 맹골은 맹자(孟子)를 흠모하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맹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맹골은 양천 허씨 집성촌으로, 양천 허씨 세장지에는 조당 허업 선생과 그제들의 묘, 즉 허성, 허봉과 함께 허균과 허난설헌의 묘와 시비가 있습니다.

맹골에는 지식으로(고인들)가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왔음을 보여줍니다. 마을을 인력하게 감싸 안고 있는 수령 600년이 넘는 노거수(오래 된 나무) 군락에서는 지금까지도 산신제를 서낭제를 지내는 유서 깊은 마을인 맹골은,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주택들과 새로이 지어지는 전원주택들이 공존하는 마을로 변화 중입니다. 깃들고 싶은 아늑한 마을, 맹골은 용인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1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죽동

2022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데에는 일산신도시의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래 이곳은 원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일산 신도시’라는 명칭 때문에 도시화된 정경은 떠올리기 힘듭니다. 아직도 공릉천과 원당천 주변을 중심으로 옛 농촌의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독산과 공릉천 사이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일대는 원래 ‘죽동(竹洞)’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대나무 수풀이 무성하였기 때문에 대골 또는 대굴이라 하였으며 죽동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지어진 도시, 옛 모습과 현대적인 도시의 형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다양성을 존중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발전해 나갈 일산과 고양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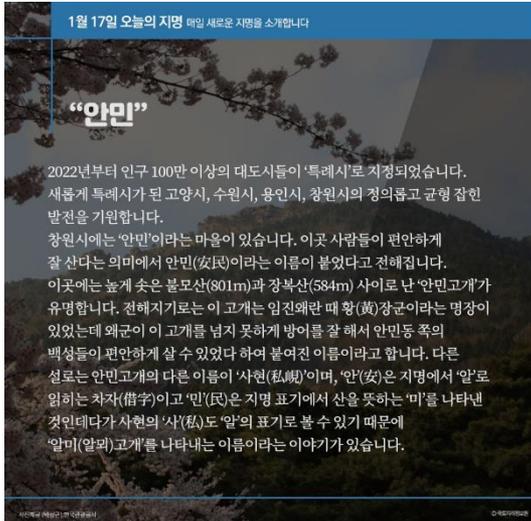
1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안민”

2022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원시에는 ‘안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산다는 의미에서 안민(安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높게 솟은 불모산(801m)과 장복산(584m) 사이로 난 ‘안민고개’가 유명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고개는 일제강점기 때 황(黃)장군이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왜군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게 방어를 잘 해서 안민동쪽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른 설로는 안민고개의 다른 이름이 ‘사현(私峴)’이며, ‘안(安)’은 지명에서 ‘미’로 읽히는 차차(借字)이고 ‘민(民)’은 지명 표기에서 산을 뜻하는 ‘미’를 나타낸 것인데다가 사현의 ‘사(私)’도 ‘안’의 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미(安美)고개’를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일림동”

2022년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새롭게 특례시가 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의 정의롭고 균형 잡힌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는 원래 일림동이라는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일림리(逸林里)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일림동’으로 명칭이 바뀐 이 마을은 파장동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으며, ‘이리나’ 또는 ‘은림리(隱林里)’라고도 불리다가 발음이 변화하여 지금의 ‘일림’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림’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이 마을이 지금의 수원을 있게 한 정조가 능행차하는 길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숲속의 마을, 즉 은림동(隱林洞)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또 이웃 동네에서 언덕 너머 마을이라고 해서 넘말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약 3000년 전 어느 명사가 세속으로부터 떨어져 은거하였다 하여 지금과 같은 이름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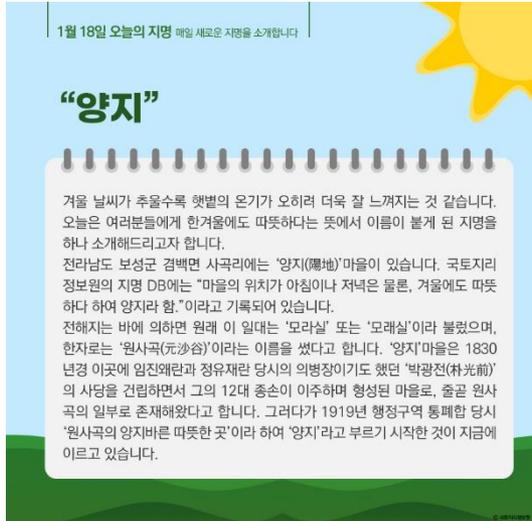
1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양지”

겨울 날씨가 추울수록 햇볕의 온기가 오히려 더욱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겨울에도 따뜻하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게 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사곡리에는 ‘양지(陽地)’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마을의 위치가 아침이나 저녁은 물론, 겨울에도 따뜻하다 하여 양지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원래 이 일대는 ‘모래실’ 또는 ‘모래실’이라 불렸으며, 한자로는 ‘원사곡(元沙谷)’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양지’마을은 1830년경 이곳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의 의병장이기도 했던 ‘박광전(朴光前)’의 사당을 건립하면서 그의 12대 종손이 이주하며 형성된 마을로, 줄곧 원사곡의 일부로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9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원사곡의 양지바른 따뜻한 곳’이라 하여 ‘양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관령”

깊은 겨울입니다. 덜 추운 날은 있어도 안 추운 날은 없는 한국의 겨울이지만, ‘대관령’은 그중에서도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입니다. ‘대관령(大關嶺)’은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사이의 큰 관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관령은 800m가 넘는 고지대인 덕분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대야가 한 번도 관측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만까지 이유로 서울 등 수도권에 아직 가을에서 이제 막 겨울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대관령은 이미 영하의 날씨와 함께 겨울로 먼저 들어서곤 합니다. 대관령의 1월 평균 최저 기온은 -13°C인데, 여기에 높은 고개에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더 낮기 마련입니다.



1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평창 평화봉”

깊은 겨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안 추운 곳이 있겠으나, 그래도 강주위로 유명한 곳의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창 평화봉’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지명입니다. 대관령 남쪽에는 해발고도 1,459m의 발왕산(發王山)이 있습니다. 산이 거느리고 있는 자락에 모두 여덟 개의 양지가 있다 하여 발왕산(八陽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높은 산이지만, 팔왕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발왕산의 1월 평균 최저기온은 -17°C에 육박합니다.

평창군은 2019년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의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로 발왕산 정상 봉우리에 ‘평창 평화봉’이라는 지명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2018년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산행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평창 평화봉 순길’ 조성이 완료되어, 정상에 전망대까지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하여 겨울에는 가급적 산행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창포”

전남 고흥군에는 ‘나로도(羅老島)’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일본의 내나로도(內羅老島)와 봉래면의 외나로도(外羅老島)를 통틀어 ‘나로도’라고 부르는데, 이곳 외나로도에도 오늘 소개해드릴 ‘창포마을’이 있습니다. 외나로도에서 북쪽을 향한 작은 포구 마을인 ‘창포마을’은 겨울이 되면 인근에서 유독 날씨가 추운 포구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창포마을에서 길게 바다를 향해 뻗은 섬의 끝자락에는 옛날 신명칭사라는 장소가 창포마을을 중심으로 뻗어 바다 건너편 봉남마을까지 끌고 가려. 해서 생겼다는 전설을 가진 ‘창굴(槍窟)’이 있습니다. 이 ‘창굴’과 뻗죽한 지형 때문에 지금의 ‘창포(槍浦)’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추운 겨울이 깊어갈수록 작은 온기의 따뜻함까지도 더 잘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세면 여러분들께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1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월명촌”

오늘은 임인(壬寅)년에 어울리는 호랑이 관련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창원군 장마면에는 ‘월명촌(月明村, 월명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이곳에 호랑이가 개를 보고 왔지만 달이 밝아서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월명마을 뒤편에는 ‘등산’이라는 낫고 온화한 산이 있고, ‘뒷각굴’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굴짜기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오래 전 하늘에서 한 장수가 지상을 내려다보던 중 월명마을과 뒷각굴의 경치가 아름다워 이곳에 내려와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덩치 때문에 도저히 이 세상의 땅이 그 장수를 받치지 못하고 발이 쪼록 파이는 바람에 크게 실망하여 뒷각굴 근처 바위를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1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온동”

오늘은 한겨울에도 따뜻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남 하동군 황천면 애치리 ‘온동(溫洞)’마을은 겨울이 와도 바람이 없어 따뜻한 곳이라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섬’이라고도 불리는 서쪽의 ‘애지(艾峙)’마을을 중심으로 북쪽 산기슭에 온동동(溫東洞)과 서쪽 산기슭에 온서동(溫西洞)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리산 삼신봉에서 출발한 산줄기가 말티재-돌고지재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떠 모양으로 형성된 분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온화한 기후를 나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호곡”

원래 우리나라는 높고 깊은 산마다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산주(山主)나 산군(山君)이라고 부르며 신령한 존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임인(壬寅)년을 맞아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억리에 있는, 통영 앞바다에 떠있는 화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호곡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호성이 지극한 상제가 시묘살이를 하는데, 3년 동안 항상 큰 호랑이가 상제를 따라 다니며 그를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 묘가 있는 마을 뒷산을 호곡산이라 하였으며,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의 이름 또한 ‘호곡마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온수골”

오늘은 겨울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에는 해발고도 391m의 ‘온수산(溫水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산 북쪽의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에서는 온수산 쪽으로 난 골짜기를,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왔다 해서 ‘온수골’이라고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이곳 온수골은 겨울에 눈이 내려도 쌓이지 않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1월 평균 기온이 0~ 2°C 정도로, 대체로 온화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전남 화순군 온수골에 자리를 잡고 있는 ‘람덕(覽德)’ 마을의 이름도, 봉황을 달리 표기한 것이 남덕(覽德)인데 이 마을에 봉황 중 봉(鳳, 수컷)의 형국이 있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1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용호동”

- 오늘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호랑이’ 관련 지명을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柳洞里)는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들골’ 또는 ‘유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느낌의 이름을 가진 유동리의 다른 이름이, 놀랄게도 강맹한 느낌의 ‘용호동’이라고 합니다. ‘용호동(龍虎洞)’이라는 이름은 마을 왼쪽 산이 용(龍)처럼 생겼고 오른쪽 산이 호랑이처럼 생겼다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그 사이로 난 골짜기에 ‘용호골’이라는 이름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을은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 마당에 해당하게 됩니다. ‘버들골, 유동’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싸움을 멈추고 화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호견리”

임인(壬寅)년을 맞이하여 호랑이 관련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는 마을 뒷산이 호랑이가 먹이를 먹기 위해 앞발을 들고 있는 형상이며 마을 중앙에 있는 동산은 개가 엮려져 있는 형제라 하여 호견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호계리(虎溪里)와 당곡리(堂谷里)의 ‘호’와 ‘당’을 하나씩 따서 지금의 ‘호당리(虎堂里)’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을의 주산(主山)인 위례산(慰禮山)에 매년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위례산에 있는 위례산성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면서, 이 일대가 백제의 도읍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1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동수곡”

오늘은 겨울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의 이름이 2015년 ‘금강송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진 서쪽에 있다 하여 ‘서면’이라고 부르다가, 금강송 군락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고 드넓은 태백산맥의 한가운데 있는 금강송면 왕피리 깊은 산 속에는 ‘동수곡’이라는 산골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겨울이 되면 너무나 추워서 물이 광활 얼어붙어서 ‘동수곡(凍水谷)’이라고 전해지며, 그밖에 동쪽으로 물이 흐른다 하여 ‘동수곡(東水谷)’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한때 주석 광산이 있었던 동수골은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가고 소수의 주민들만 남아있는 한적한 산촌마을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1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백동”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의 다른 이름은 ‘백동’마을입니다. 이곳은 겨울철이면 하얗게 내리는 눈이 다른 마을부터 먼저 쌓인다고 하여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백동마을은 북쪽 산자락에 있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덕수천을 따라 남쪽으로 길쭉하게 뻗은 형태이며, 좌우로 두 언덕과 야산이 있어서 매서운 겨울 바람을 사방에서 막아주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을 북쪽에 있는 저수지에는 ‘백동저수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서쪽의 덕수리 ‘점골’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에도 ‘백동고개’라는 지명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겨울과 눈에 관련된 ‘백동’이라는 지명은, 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에게 겨울이 얼마나 험거운 위기의 계절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나로도 “예내”

- 오늘은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우주시대가 활짝 열린 날입니다. 오늘은 나로호를 쏘아올린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위치한 ‘예내’라는 지명을 소개해드립니다. 다도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섬 ‘나로도’는 ‘내나로도’와 ‘외나로도’ 두 개로 구성되는데, 그 중 외나로도에 있는 ‘예내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예내’라는 지명은 예하마을의 골짜기 안에 있어 얻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곳에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도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우주 관련 전시와 우주과학교실, 우주체험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3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영골”

민족의 명절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에 있는 ‘영골’이라는 독특한 지명을 가진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옛날에 설날이나 정월대보름날 바위 쪽으로 연을 날리면서 계를 지었다고 해서 ‘연골’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연골’이라는 이름이 차츰 변화하여 지금의 ‘영골’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이 윤력으로 신축년(辛丑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비소소 임인년(壬人年)의 첫날이 밝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겁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새갓”

설날 새해이고 하니, 오늘은 ‘새로운’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울곡리와 의곡리, 사근리가 만나는 지점에는 인근의 천마산과 석봉의 산자락이 끝나는 즈음에 ‘새갓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이곳에 대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오래된 대나무에서도 새싹이 돌아나다 하여 ‘새갓(새갓)’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설 명절도 지나고 나니, 이제 비소소 본격적인 2022년 임인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푸릇푸릇한 새싹이 돌아나기를 기원해봅니다.



2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톨미얏들”

오늘은 설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좋겠습니다. ‘설날’은 정월 초하룻날, 즉 한 해의 첫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식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이 ‘살’을 몇 번 보냈는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나이의 단위가 ‘살’에서 파생된 ‘살’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마치 유럽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2-3주 가지는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도 전통적으로 정월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를 ‘설 명절’로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날 하면 달토끼가 방아를 쪼는 ‘대보름’까지도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모양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는 낮지만 푸근한 미양산을 동쪽과 남쪽으로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사람들은 마을 뒷산을 마치 토끼를 닮았다 하여 톨미(토끼) 또는 토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을 이름도 ‘토산(톨미)마을’이 되었고, 그 앞 들편의 이름도 ‘톨미얏들’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2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입춘내”

오늘은 ‘입춘(立春)’입니다.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로, 드디어 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기쁜 날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는 ‘입춘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원주시 동쪽에 있어서 봄이 들어오는 물이라 하여 ‘입춘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주시의 동쪽 치악산에서 흘러나와 원주시로 흘러들어가는 입춘내천은 원주시에 싱그러움과 촉촉함을 더해주는 소중한 하천 중 하나입니다. 봄이 찾아오면 치악산의 정기가 입춘내를 타고 원주시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봄을 맞아 ‘입춘대길 건양대경(立春大吉 建陽多慶)’,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2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지경고개”

1968년의 어제는 경부고속도로가 착공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에서 부산으로 넘어가는 ‘지경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 보면 금정산에서 계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동쪽에 있는 이 고개를 넘게 됩니다. ‘지경’이라는 이름은 땅의 경계라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고개의 원래 이름은 ‘사배고개’였다고 합니다. ‘사배’는 ‘새벽’의 이두식 표기, 즉 한자의 소리만을 빌려오는 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른 것은 양산의 동쪽 고개라서 가장 일찍 새벽이 오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2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입춘내교”

아직은 겨울이 모두 풀려가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입춘도 하루 지나고 나니 봄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는 ‘입춘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춘내에 있는 다리 중에는 ‘입춘내교’가 있습니다. 마치 다리를 건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름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치악산의 절경과 함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입춘내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입춘내를 따라 산책로와 함께 ‘입춘내수변공원’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봄과 관련된 지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2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천아도”

겨울도 겨울만의 운치와 매력이 있는 법인데, 설날과 입춘이 오면서 너무 봄이 오기만을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겨울에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는 ‘형선도(興善島)’라는 섬이 있습니다. 민속신앙의 하나인 국사봉사당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88호로 지정된 수령 500년 이상 된 단항마을 왕후박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오래 전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배에서 씨앗이 나와서 그것을 심어 자란 나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선도의 안쪽으로 깊게 울퉁퉁 들어간 바다 한 가운데에는 겨울만 되면 천아(天鰲, 고니)가 많이 모여드는 섬이라 하여 ‘천아도’라 하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설날 때면 천아도의 동쪽이 갯벌로 드러나 창선도에서 왕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겨우내 새새들이 머물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천아도’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오히려 겨울이기 때문에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두루미”

설날과 함께 임인(壬寅)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두루미’라는 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두루미’면(鶴)을 이르는 순우리말이 아니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에는 산의 형세가 호랑이 꼬리 같다 하여 원래는 ‘두호미’라 하였다가, 그 이름이 변해서 이제는 ‘두루미’라 부른다는 산이 있습니다. 큰 발이 있어서 ‘한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대전동의 호랑이 꼬리를 닮은 ‘두루미’ 산자락 사이로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를 비롯한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호미가 두루미를 거쳐 강릉과학산업단지로 변화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처럼, 강릉시의 앞날에도 발전적인 내일이 찾아오기를 기원해봅니다.



2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개구렁”

오늘은 임인(壬寅)년을 맞이하여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는 섬의 중심 지역과는 성바위산(280m)과 노송산(342m) 등 여러 개의 산들이 늘어선 형성된 꽤 넓은 숲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을 북쪽과 동쪽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데다가 마을 남쪽과 서쪽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하필 그 깊은 숲에 호랑이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곳 풍길리는 호랑이를 쫓기 위해 개를 많이 키워서 ‘개구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오래 전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 ‘호환(虎患)’이란 어찌면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느끼는 불안만큼이나 큰 걱정거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아현동”

작년 오늘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의 영광을 차지한 날입니다.

전 세계의 TV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자기네 말로 “The <Parasite>!”나 “It <Parasite>!”,” “It <Parasite>!”라고 외치던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영화 초반부 촬영 장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현동은 원래 아이고개라는 뜻으로 부르는 애고개, 애우개, 애오개 등의 이름을 가진 고개가 있는 동네라고 해서 ‘아현(兒峴)’이라고 하다가 한자가 바뀌어서 지금의 아현(阿峴)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개는 마을 남쪽에 만리현(萬里峴)과 서북쪽의 대현(大峴)이라는 두 개의 큰 고개 중간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고개가 작기 때문에 애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엄랑굴”

이제는 겨울이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 추위와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앞 바다에는 여러 개의 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중 주변 섬들을 거느린다 하여 ‘개도(蓋島)’라고 부르는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개도의 북서쪽에는 ‘모전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전항 마을의 동쪽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어서, 해가 낮은 겨울철이면 그쪽 가까운 바닷가에서는 하루 종일 해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언덕을 처음에는 음지(陰地)라는 의미에서 ‘음랑굴’이라 하다가 그 발음이 변해서 ‘엄랑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전항에서 바라보면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섬이 떠있는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보고 싶노라면, 이 바다를 왜 ‘다도해(多島海)’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설국

오늘은 추운 겨울 내리는 눈과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곳 중간에 있으면서 고파도를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리’의 서쪽 후망산(145m)에서 뿜어 나온 마을 북쪽의 뒷산의 숲이 꽤 깊은데다가, 북쪽 바다에서 몰아오는 바람도 제법 매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눈이 한 번 내리더라도 하면 얼겨올동안 그 눈이 녹지 않고 일어 있기 때문에, 그 뒷산의 이름을 ‘눈골’ 또는 ‘설곡(雪谷)’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2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복호폭”

울릉도는 여우, 호랑이, 노루, 토끼, 뱀 등이 없는 섬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울릉도에서 난데없이 뱀이 한 마리 발견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뱀이 발견된 것만큼이나 신기한 것은 울릉도에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를 흐르는 태하천 상류에 있는 폭포에는 ‘복호폭(伏虎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폭포의 모양이 마치 호랑이가 엎드려있는 것과 같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복호폭’은 미륵봉 서남쪽 계곡 윗쪽에 있는 낙차 12m 정도의 1단 폭포로, 여기에서는 사계절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태하리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울릉도의 옛 주민들은 어떻게 이 폭포에 ‘복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인지 정말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2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부안동”

수많은 철새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기나긴 여행 중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새들의 이러한 긴 여행도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겨울과 관련된 유래가 있는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는 역사가 매우 깊은 마을로, 백제시대 초기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곳 봉안리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당시 이 지역에는 ‘부안동(鵬安洞)’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하며, 우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떠나갔다고 해서 ‘오리부(鵬)’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봉안리(鵬安里)라는 마을 이름은 어쩌면 ‘오리(鵬)’가 시간이 흘러 ‘봉(鵬)’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범선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천마산(天摩山)’은 ‘천마산 군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크고 깊은 산입니다. 조선을 건국하기 전 이성계가 이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손이 석자만 더 길다면 하늘을 만질 수도 있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천마산이 워낙 크고 숲이 울창하다 보니, 산 정상에서 뿔이 내려오는 여러 개의 큰 계곡들 중에는 호랑이가 항상 있던 곳이라 하여 ‘범선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자생하는 ‘점현호색’이라는 야생화로도 유명한 천마산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오늘날 산책과 등산을 즐기는 시민들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2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신곡”

오늘은 정월대보름날입니다. 마을마다 새해 일 년의 무사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여러 행사를 정월대보름에 지냈다고 합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이 정월 초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를 하나의 명절로 여겼다고 하니, 어쩌면 예전에는 정월 열엿새날부터가 이런저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실질적인 한 해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신곡리(新谷里)’는 1914년 ‘신림동’과 ‘박곡동’을 합치면서 글자를 하나씩 따온 이름이라는 설과, 농지를 넓히면서 집이 하나둘씩 들어서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마을에 있는 큰 고목에서 매 해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장한수와 음식을 올려 제를 올렸기 때문에 ‘납살’이라고 불렸으며, ‘납살’의 뜻을 한자로 써서 ‘신곡’이라 칭한 것이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2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정동”

1927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송출된 날입니다.

경성방송국(호출부호 JODK, 출력 1kW, 주파수 690kHz)에서 오후 1시에 라디오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해방 후 KBS(한국방송공사)의 모체가 된 경성방송국이 세워진 곳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경성부청(서울구시청 자리)으로 내려오는 태평로의 서쪽 일대,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입니다.

정동(貞洞)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의 능인 정릉(貞陵)이 있었기 때문에 붙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태조의 사후 정릉은 도성 밖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지만, ‘정릉동’ 또는 ‘정동’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조선시대 내내 ‘대정동(大貞洞)’과 ‘소정동(小貞洞)’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1914년 행정개편 당시 ‘정동’과 ‘태평동’, ‘서소문정’, ‘무교정’ 등으로 분할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2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백야”

이제 봄이 저만치서 손짓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지만, 아직 겨울도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는 겨울이 되어 흰 눈이 일대의 산에 쌓이면, 봄이 되어야만 비로소 녹기 때문에 ‘백산리(白山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곳 백산리에 있는 ‘백야마을’은 마을 뒷산인 아미산이 한눈에 보이면 녹지 않아 겨울 내내 흰 산을 이룬다 하여 ‘백야(白野)’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정유재란 때 의병장 조유(趙庠) 장군이 왜군을 맞아 싸웠던 역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2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만월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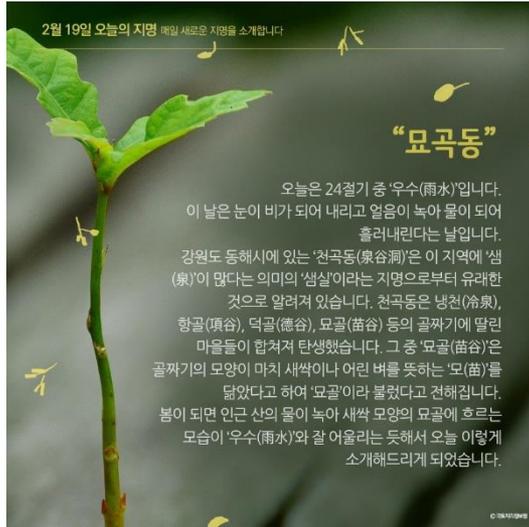
정월 대보름 촬영장 밧았던 달이, 아직까지 채 일그러지지 않고 빗하늘을 함께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던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이곳에 올라 달맞이를 하는 산이라 하여 '만월봉(滿月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는 인근 무전리와 직천리 등의 마을에 둘러싸인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의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날이 되면 이곳에 올라 달맞이를 하는 산이라 하여 '만월봉(滿月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 밑에 떠서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는 커다란 만월(滿月)을 맞이하려 봉우리에 올라 웅기충기 함께 모여 제각각 소원을 빌고 다시 마을로 함께 내려왔을 애천 우리 조상들의 추억을, 그저 그것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 구석이 달빛처럼 은은하게 따뜻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 SKVIMB



2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묘곡동”

오늘은 24절기 중 '우수(雨水)'입니다. 이 날은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흘러내린다는 날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천곡동(泉谷洞)'은 이 지역에 '샘(泉)'이 많다는 의미의 '샘살'이라는 지명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곡동은 냉천(冷泉), 향굴(項谷), 덕골(德谷), 묘골(苗谷) 등의 골짜기에 딸린 마을들이 합쳐져 탄생했습니다. 그 중 '묘골(苗谷)'은 골짜기의 모양이 마치 새싹이나 어린 벼를 뜻하는 '묘(苗)'를 닮았다고 하여 '묘골'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봄이 되면 인근 산의 물이 녹아 새싹 모양의 묘골에 흐르는 모습이 '우수(雨水)'와 잘 어울리는 듯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 SKVIMB

2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달밭골”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이었던 정월 대보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에는 고려시대 돌을 쌓아올려 만든 불탑인 '방단형적석탑(方壇形積石塔)'이 있다 하여 '적담리(石塔里)'라고 이름이 붙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담리 동남쪽에 그냥 보통 '마을 뒷산' 정도로 부르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뒷산에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다골'과 '그리막다골', '인막다골'처럼 어떤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듯한 이름의 골짜기들도 있고, 산 인근으로 깊숙하게 들어간 자리에 있는 '골안골'처럼 예전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도 알 것만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월 대보름날 달이 매우 잘 보여서 달맞이 하러 가는 곳이라서 '달밭골'이라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SKVIMB

2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어우실”

정월(正月)도 어느덧 중순(中旬)이 지나 하순(下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임인(壬寅)년 호랑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지명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관한리에는 오갈산에서 흘러나오는 관한천 깊은 계곡을 따라 자리를 잡은 '어우실'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관한리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이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오갈산 깊은 산 속에 사는 호랑이가 올 때마다 '어흥' 하는 울음소리가 계곡과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마치 그 소리가 천둥소리와 비슷하다 하여 마을 이름을 '어우실'이라 불렀다고 전해지며, 정월 보름날마다 산제당에서 산신(山神)에게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 SKVIMB

2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온방”

오늘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지명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의 '온방'마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오산 동쪽에 위치한 이 마을은 약 70년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오산에서 내려온 산자락과 숲이 마을 주위를 감싸고 있어서 겨울에도 차가운 북풍과 매서운 바닷바람을 막아줘서 다른 곳보다 한결 따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따뜻하고(溫) 꽃다운(芳) 마을이라 하여 '온방'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마을 동쪽 산 너머 골짜기의 이름이 '용뱅이골'인데다가 '온방'에서 그 골짜기 쪽에 [있는] '술하'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도 '용뱅이고개'인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곳 마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온방'보다는 '용뱅이'라는 말을 더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 SKVIMB

2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호덕”

오늘은 임인(壬寅)년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에는 '호덕리(虎德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풍수지리상으로 옛 도화현의 좌측에 청룡의 상이 있고 우측에 백호의 상이 있어 마을터로 최적지로 꼽히는 지역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에 사람들이 호랑이의 덕을 본다는 뜻에서 '호덕(虎德)'이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을 뒷산의 이름도 '호덕산'이 되었다고 하며, 현재 호덕리에는 '호덕'마을과 아름답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된 '여동'마을, 그리고 화로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화덕'마을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 SKVIMB

2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한산물”

오늘은 겨울 추위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북흥리에 있는 ‘한산물’입니다. ‘한산물’에서 ‘물’은 ‘마을’을 뜻하는 순우리말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곳은 마을 남동쪽이 산과 숲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해가 낮은 겨울이면 온종일 음지에 있는데다가, 북쪽으로는 들판과 하천이 널따랗게 펼쳐져 있어 북쪽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너무 추워서 ‘한산(寒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을 앞산에 사대부들이 올라가 시를 짓고 노는 모습을 보고, 들판에서 탐 홀려 농사짓던 농부들이 ‘한량(閑良)들이 오르는 산’이라는 뜻으로 ‘한산(閑山)’이라 칭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2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동엽령”

날이 갈수록 겨울이 조금씩 멀어지고 그 대신 따뜻한 봄이 더욱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덕유산 자락에 있는 ‘동엽제’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백곡리에서 칠연계곡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이 고개는, 한겨울에도 햇볕이 잘 드는 양지(陽地)라서 겨울에도 나뭇잎이 필 정도로 따뜻하다는 의미로 ‘동엽제(冬葉臺)’ 또는 ‘동엽제’라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덕유산의 아름다운 풍광, 일곱 개의 폭포와 일곱 개의 못이 있다 하여 이름 붙게 된 칠연계곡(七淵溪谷)의 맑은 물, 7년의 수련을 세 번 거친 끝에 신선한 도사의 전설이 깃든 칠연폭포, 조선 말기 의병장 신명철(申明澈)과 의병들이 일꾼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여 묻힌 칠연의총 등이 있습니다.



2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한치”

오늘은 겨울 추위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에는 ‘인암’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 5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생긴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위치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산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장흥면을 향해 흐르는 ‘한치천’의 가장 상류 지역, 그러니까 산 속 깊은 곳에 마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이 ‘한치’마을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일대에서 가장 추운 산 속에 마을이 있다 하여 ‘한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마을은 한옥 주택들이 웅기종기 들어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2006년에 지어진 마을회관도 한옥으로 지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관동”

이름 후면 삼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삼일절과 관련된 유래가 있는 지명인,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의 다른 이름인 ‘관동(官洞)’ 또는 ‘귀굴(貴谷)’입니다. 비록 자세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도 마을 서남쪽에 옥(鵝)터굴 행교동 등 옛관아 사설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통해 이곳에 옛 관아(官衙)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 마을을 관동(官洞), 귀굴(貴谷), 궁우리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곳에는 수령이 오래 된 거목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으며 특히 천년 묵은 괴목(怪木)이 한 그루 있어서, 나라에 길흉사(吉兇事)가 있을 때마다 그 괴목이 소리 높여 운다는 전설이 있으며, 6·25전쟁 때나 3·1운동 때에도 이 나무가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낙원동”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1960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대구 2·28 민주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또한 1919년의 다음 날 전국적으로 벌어진 3·1만세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민족대표 33인의 의암(義巖) 손병희 선생의 집에 모여 회합을 가지고 다음 날 조선의 독립을 하는 아래 전 세계에 선언하기로 결정을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학생대표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이루어진 탑골공원의 팔각정은 지금의 종로구 낙원동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은 원래 조선 초 세조가 세운 원각사(圓覺寺)와 석탑이 있다 하여 ‘원동(圓洞)’과 ‘탑동(塔洞)’이라고 불리던 동네들이 모여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1914년에 이곳에 공원이 있다는 의미에서 ‘낙(樂)’을, 그리고 원래 이름 중 하나인 ‘원동(圓洞)’에서 ‘원’을 가져와 이 지역을 합쳐 ‘낙원동’이라 이름을 붙었다고 합니다.



3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만세봉”

오늘은 더 없이 뜻 깊은 ‘삼일절(3·1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데,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 나가있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비폭력운동을 펼친, ‘더없이 민주적인 시민 저항운동’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2월 28일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던 탑골공원에 대해 소개해린 데어서, 오늘은 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의 신덕리와 서정리 사이에는 해발고도 236m 높이의 ‘만세봉’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3·1 운동이 이 지역으로 확산되자, 인근 주민들이 이 산으로 올라와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매일 밤이 되면 ‘독립만세’가 울려 퍼지는 봉우리라고 해서, 이후 이 산의 봉우리에는 ‘만세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3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천안유관순광장”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102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겨레를 위해 스스로 희생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자발적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중들의 기상을 앞으로도 잊지 말고 반드시 계승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충청남도는 예산군 내포 신도시 인근 충남도청 배후에 조성된 ‘홍예공원’에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에 종사한 독립 운동가들의 조형물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명소를 조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20년 5월 홍예공원 북쪽 광장에 대하여 ‘천안유관순광장’이라는 지명을 고시했습니다.

3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선낙골”

오늘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이행을 약속한 의무입니다. 그렇게 납부한 세금이 자신을 비롯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납세자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다른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의 근간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금과 관련된 재미있는 지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원군 김삿갓면 와석리에 있는 해발고도 1052m 높이의 ‘마대산(馬臺山)’에는 정상에서 김삿갓역이 있는 동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 골짜기에 있는 집들은 세금을 항상 먼저 바친다 하여 ‘선납골’으로 불렸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선낙골’로 불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선낙골은 이 길을 왕래하여 시장을 떠돌렸을 김삿갓 선생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의 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3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도덕골”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나날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2일에는 경기도 개성, 3일에는 충남 예산 등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펼쳐졌으며, 이어서 4일에는 전북 군산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님들에게 있어서 ‘독립’이란 일종의 마땅한 도리(道理)이자 언어야 하는 덕(德)과도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에는 ‘도덕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마을이 도리를 알고 덕이 있는 인제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도덕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독립운동가 오강표(吳剛杓)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3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찬우물”

오늘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인 ‘경칩(驚蟄)’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로,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개구리와 벌레 등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다가오는 봄처럼 싱그러움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는 ‘찬우물’마을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수원에 있는 선천의 묘소 현릉원(顯陵園)에 능행(陵行)할 때마다 항상 이곳 과천을 지나 이곳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물이 몹시 차고 맛있다 칭찬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 우물에 가져당상(加賚堂)이라는 풍계를 내려 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으며, 이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찬우물’이라 부르고 우물이 있는 마을의 이름도 ‘찬우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원래의 우물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만, 과천시에서는 찬우물의 지하수를 끌어와서 그 인근에 새로이 ‘가져우물’을 조성해 두었습니다.

3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조원말”

어제는 24절기 중 ‘경칩’이었습니다. 이 날은 겨울잠에 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구리 중 고유종인 ‘수원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하지만 수원에서 발견되면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수원시의 상징 캐릭터 ‘수원이’가 바로 이 ‘수원 청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은 ‘조원말’이라는 마을 이름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대추나무와 화초가 많았는데, 정조가 능행차를 할 때면 종종 이곳을 들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마을을 보면 그 정경이 마치 대추나무 숲 속에 그림같이 펼쳐졌다 하여, 대추나무를 뜻하는 한자 ‘조(蓀)’를 써서 ‘조원(蓀園)’이라고 부르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명의 유래에 대한 다른 설로는 조선 시대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오르게 된 마을 사람의 호가 ‘조포(蓀圃)’ 또는 ‘조원(蓀園)’인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3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지지도고개”

그저께는 겨울잠에 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유종인 ‘수원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전국에 분포하지만 수원에서 발견되면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수원시의 상징 캐릭터 ‘수원이’가 바로 이 ‘수원 청개구리’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수원시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와 수원시 사이에 있는 ‘지지도고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지대전도』, 『해동지도』 등의 고지도에는 ‘사근현(沙近峴)’, 또는 고개 꼭대기에 ‘미륵당(彌勒堂)’이 있어서 그것이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팔도 군현지도』) 이 ‘지지도고개’는, 『화성지』에 지금 이름의 유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근현이라고 불렸는데, 정조가 나중에 고개의 이름을 ‘미륵현’으로 고쳤다가 그 후에 다시 ‘지지현(遷遷峴)’으로 고쳤다고 기록되어있는 것입니다.

점해지는 바에 의하면 정조가 ‘지지’라고 한 것은 선천인 시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고 다시 돌아갈 때, 선천을 그리는 마음에 이곳에서 한참 지체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곳에 장승과 표석을 세웠고, 순조 7년(1807년)에는 지지도 서쪽에 지지도대와 비각도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비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분바위”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명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것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백령도와 인접해 있는 대청도와 소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중 소청도에는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마치 여성들이 화장을 하던 분가루처럼 보인다고 하여 '분바위'라고 하는 해안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묘한 조화를 이루며, 그 모습이 마치 달빛으로 허얇게 떠를 두른 것 같다고 해서 소청도의 주민들은 분바위를 '월미(月麗)'라고도 부르다고 합니다. 분바위는 감감한 그믐날 밤에는 바다에서 소청도로 들어오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분바위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암석입니다. 여기에 있는 박테리아 화석은 약 6억~10억 년 전의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분바위는 2009년 11월 10일 천연기념물 제508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3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세종로”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는 시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한 표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이번에는 청와대 근처 지명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는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정치중심지였습니다. 이에 조선의 역대 임금 중 업적이 가장 뛰어난 세종대왕을 본받고자 하는 뜻에서 그 묘호(廟號)를 따서, 경복궁과 광화문 앞 세종대로 인근 지역을 합쳐 '세종로'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정치란 우리 모두의 스스로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투표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청운동”

어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인근에 있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淸雲洞)'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청운동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 지역에 있던 청풍계(淸風溪)와 백운동(白雲洞)에서 한 글자씩 가져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풍계(淸風溪)는 인왕산 동북쪽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원래는 청풍계(靑楓溪, 푸른 단풍나무 시냇물)이라고 불렸지만 선조가 지금의 '맑은 바람이 부는 시냇물'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운동은 지금의 인왕산 자락 지하문터널 상부 일대의 계곡의 이름이었습니다. 흰 구름이 떠있는 계곡이라는 의미로, '동(洞)'은 현저의 행정구역의 의미하는 '동'이 아니라 '골짜기', '계곡'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백운동천(白雲洞川)은 한양외의 중심하천이었던 정계천이 발원하는 하천들 중 가장 긴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3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꽃산”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김소월의 시에 나오듯 영변의 악수를 뒤덮는 진달래꽃이 정말 장관이었는데, 우리는 언제쯤이나 그곳에 가서 볼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드리기 위하여, 오늘은 대전에 있는 '꽃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에는 봄이 되면 산에 꽃이 만발한다고 하여 '꽃산'이라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가벼운 산행이 가능한 '꽃산'은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대전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 '꽃산' 산행길의 초입은,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학문을 익히고 제자를 가르쳤던 남간정사(南澗精舍)가 있는 자리에 마련된 '우암 사적공원'에 있습니다.

3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관성”

내일은 천왕성이 발견된 날(1781년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별'과 관련된 유래가 있는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에는 '관성(觀星)'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없으나, 옛날이 마음에는 별(星)을 보면서 천문(天文)을 읽는 천문대 같은 시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별을 보다'라는 뜻의 관성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명에 대한 전설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곳에서는 매일 밤 경주를 수도로 삼았던 천년 신라 왕실의 천문관(天文官)이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읽기 위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과 기운의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관성은 '관성술발해빈'이라는 해송림과 해안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안으로 남아있으며,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찾는 해수욕장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3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비루거리”

1781년 3월 13일은 지구와 함께 태양계에 속해있는 행성인 천왕성이 발견된 날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의 운행을 살펴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기(天氣)를 읽기 위하여 천문(天文)을 살펴보는 관직을 오래 전부터 따로 둘 정도로 하늘의 흐름을 읽는 것을 중히 여겼습니다.
경주 '첨성대'아마로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별'이라는 단어의 옛말인 '별'을 관측하던 첨성대가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첨성대가 있는 경주 황남동 일대의 옛 이름이 '비루거리', '비루거리'라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3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덕양산

1593년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서 권을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백성들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행주대첩(幸州大捷)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산'은 해발고도가 125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으로, '덕양산(德陽山)'이라고도 불렸으며 산성이 있다고 하여 '성산(城山)'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산 중턱에는 과거 목책(木柵)을 세웠던 자리가 남아 있으며, 삼국시대 토기 조각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오래 전부터 요충지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덕양산이 있다고 하여 이 일대를 덕양현이라 불렀는데, 그 이름에서 '덕양구'라는 지금의 이름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양시'라는 지금 명칭의 유래가 된 조선 시기의 '고양군'도, '고봉현(高峯縣)'과 이곳 '행주현' 즉 '덕양현(德陽縣)'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라고 합니다.

3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개야리"

치갑계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산과 들 여기저기에 봄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스레 자연의 위대한 순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봄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는 개화리(開花里)와 유곡리(柳谷里)를 합치면서 지금의 개곡리(開壽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개화리는 이 동네의 뒷산이 북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봄 들만에 꽃이 일찍 핀다하여 개화리(開花里)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 개화리였던 지역을 '개야리', '개야동' 또는 '개리' 등으로 부르다고 하며, 이곳 개곡리에서 발원하여 마을 앞을 흘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기는 하천에도 '개화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3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복숭아꽃공원"

따뜻한 봄바람에 흠과 나뭇가지에서는 새싹이 들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봄에 피는 꽃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는 '춘덕산'이 있습니다. 원래 부천 일대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역곡동 주민들은 2002년부터 매년 봄마다 시민들이 복숭아꽃을 감상하며 즐기는 <춘덕산복숭아꽃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열리는 행사장 일대를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공원 정취를 연상하기 쉽도록 '복숭아꽃공원'이라고 이름 붙였고, 현재 고시지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볼비공원"

봄에 내리는 비는 온화하고 촉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볼비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이 공원과 함께 인근 삼곡천을 통해 도심 속에 작지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부천시 삼곡동에 있는 '볼비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한 변영로 시인을 기리는 뜻에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변영로의 시 <볼비>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니만큼 그의 시를 새긴 시비(詩碑)도 세워져 있습니다.

3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방지"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는 홍두개산(606m)과 서림미산(439m) 사이로 흐르는 청도천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삼평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봄'과 관련된 지명은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인 '방지(芳旨)'입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마을 앞의 숲이 돌길과 꽃모양처럼 생겨서 예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이곳에 크고 아름다운 반송(盤松)이 서 있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반송(盤松)이 마치 갱반처럼 생긴 소나무라 하여 이름 붙은 나무이니만큼, 돌길과 꽃처럼 생긴 숲이 아마도 반송 숲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지명 유래에는 "150년 전에 이곳 뒷산에 향나무 숲이 있어 봄에 꽃향기가 난다고 하여 방자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이화동"

봄을 맞아 꽃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중성리에는 황토천이라는 하천이 흐르는 '이화동(梨花洞)'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곳에 배나무가 많아서 봄이면 배꽃 하얗게 뒤덮인다고 하여 '배꽃골짜기', 즉 '이화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당달이 계곡을 따라 자리를 잡은 마을의 이름도 '이화동'이 되었습니다.

해발고도 837m 높이의 회문산(回文山)에서 발원하여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황토천이 흐르는 이화동 계곡은 아름다운 산과 바위, 2km에 달하는 계곡이 자연의 그대로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봉대산”

1902년 3월 20일은 한양과 인천 사이에 국내 최초 전화가 개설된 날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근대적 통신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원거리 통신을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소식을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각각 떨어진 지점마다 불을 피워서 연기가 불빛 등을 통해 몇 가지 정해진 신호를 전달하는 ‘봉화(烽火)’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봉화’와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에는 ‘봉대산’(83m)과 ‘작은 봉대산’(62m)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봉대산’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북서쪽인 전남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에도 ‘봉대산’(200m)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그밖에에도 경남 진주시 금곡면 성산리의 ‘봉대산’,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의 ‘봉대산’,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의 ‘봉대산’ 등 전국 각지에 같은 이름의 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3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춘생”

오늘은 24절기의 네 번째인 ‘춘분(春分)’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 오늘 이후로 낮이 밤보다 더 긴 날이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춘분이 되면 봄보리를 갈고 나뭇잎을 캐며 담을 고치는 등 본격적인 한 해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명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사면 석묘리 ‘춘생(春生)’마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1350년 흉년적의 난이 일어났던 해의 겨울에 고려 공민왕이 피난 도중이 마을에 이르러 봄이 온 것을 알았으므로 마을을 ‘춘생’이라고 하고, 그 뒷산을 부춘산(富春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왕이 머물렀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다고도 합니다. 다른 설로는 신라 경순왕이 경주에서 송도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봄을 맞아서 ‘춘생’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3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절두루”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에 물과 관련된 ‘절두루’라는 지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는 원래 신동리(新東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이 지역에 피난민이 급증하면서 ‘신동리 일부를 떼어 남면의 중심 지역이 되었다’는 뜻으로 ‘신남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신남리에는 ‘절두루’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 비교적 평평한 분지에 위치한 이 마을의 이름은 이곳에 오래 전부터 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소양댐으로 인하여 낮은 지역 대부분이 수몰되기 전에는 절이 있던 자리에는 석불좌상도 하나 있었다고 하며, 현재 그 석불좌상은 인제를 서릿골에 있는 백련정사(白蓮精舍)로 옮겨져 있다고 합니다.

3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원동”

따뜻한 봄날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꽃과 관련된 지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는 ‘상송’마을과 ‘화원’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송리 중앙에 있는 ‘상송재’ 저수지 북쪽에 ‘상송’마을이 있고, ‘화원’마을은 저수지 남쪽에 있습니다. 꽃이 많이 피고 아름다운 마을이라 하여 ‘화원(花園)’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낙안읍성(樂安邑城)을 중심으로 설치된 낙안군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상송재에서 출발해 낙안 곡창지대로 흘러가는 ‘낙안천(樂安川)’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근 낙안 온천에서는 지하 830m에서 분출되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3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꽃밭골”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핀 꽃은 결국 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봄에 핀 꽃이 지기 전에 오늘은 꽃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에는 금화산(金華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났을 때 꼭대기 봉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떠있는 모습이 마치 가재 같았다고 해서 꼭대기 봉우리의 이름이 ‘가재봉’인 산입니다. 그 산 아래에 있던 ‘대동리’의 여러 자연마을들 중 터골, 뱀골, 용촌골, 새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꽃밭골’이 모여서 지금의 ‘서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꽃밭골’, 또는 ‘화전골’이라는 이름은 매화가 많이 피는 골짜기와 마을이라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살던 주민들은 거의 떠나고, 대신 금화산(金華山)에는 속리산 법주사(法住寺)의 말사인 서광사(瑞光寺)가 고즈넉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3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모악산”

이제 곧 벚꽃이 남쪽으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와 완주군에 걸쳐있는 해발고도 793m 높이의 모악산(母岳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전주 시민들이 당일 산행으로 즐겨 찾는 친근한 산입니다. ‘엄외’라는 옛말에서 ‘모악’이라는 지금의 이름이 나왔다고 전해지며, 다른 설에 의하면 꼭대기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있어 그 이름을 ‘모악산’이라 했다고 합니다.

모악산은 원래 오래 전부터 전달래와 철쭉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모악산의 서쪽에 있는 백제 범양 사찰에 창건된 금산사(金山寺)에 있는 수만 그루의 왕벚꽃나무가 장관을 이루면서 꽃으로 더욱 유명한 산이 되었습니다.

3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여좌동"

오늘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봄이 찾아오는 강원도 화천군의 지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는 동촌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처럼 생겼다가여 '여좌동'이라고 하는 자연 마을이 있었습니다.

1944년 축조된 화천댐으로 인하여 이 일대의 낮은 지대가 모두 수몰되면서, 여좌동을 비롯한 동촌리는 정말 말 그대로 오지 중의 오지 마을이 되었습니다. 1997년 마을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오직 배를 타야만 오갈 수 있었으며, 심지어 1998년에는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제보가 들어올 정도로 깊고 깊은 산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농촌마을 사업'에 선정되면서, 자연 그대로의 산촌생활을 찾는 여행자들이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천 동촌리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순이"

산과 들이 어똥 꽃으로 뒤덮이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꽃과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와 석성리 사이의 경계에는 '화순이'라는 이름의 야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꽃이 많이 피고 또 비가 내리면 솟아올라오는 죽순이 아름다워서 '화순(花筍)'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앞에 펼쳐진 들간의 이름도 '화순이들'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화순이'의 울창한 숲이 자리를 잡고 있고 서쪽으로는 미호천이 흐르는 곳에 있습니다. '화상리(花上里)'의 원래 이름 또한 '위꽃대'였으며 한자로 '상화(上花)'라고 불렀다고 하니, 이 지역은 다른 곳 어떤 곳보다도 꽃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인 듯합니다.

3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만화동"

봄과 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봄에 뒤늦게 찾아오는 추위로 활짝 핀 꽃을 시시하는 추위라 하여 '꽃샘추위'라고 부를 정도일까요.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에는 꽃이 만개한 것 같이 생긴 골짜기와 마을이라 하여 '만화동(滿花洞)' 또는 '만화골'이라고 불리는 자연마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마을은 당촌리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는 일부였지만, 남강댐으로 인하여 대부분 지역이 수몰된 이후로 당촌리는 만화동이 있는 일대만이 물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평면은 남강댐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이 수몰되기 전에는 '벚들무'(당시에는 '벚들우우')라는 우리나라 토종무의 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했지만, 수몰 이후로는 안타깝게 생선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3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신불산"

오늘은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신불산'(1,159m)이 있습니다.

'신불산(神佛山)'이라는 이름은 신령이 불도를 닦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악산 '공룡릉'보다는 작지만, 이곳 신불산에도 오직 암석만으로 이루어진 '공룡릉'이라는 암릉이 있어서 산행을 즐기는 산악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 신불산은 가을이면 장관을 이루는 '신불산 억새평원'으로 더 유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봄이면 신불산 입구에서 작천정 계곡에 이르는 2km 구간 길에는 수령이 100년 가까이 되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어서, 봄 벚꽃이 만개하면 절이 마치 꽃 터널처럼 보일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3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월출산"

오늘 소개해드릴 지명은 봄 벚꽃으로도 유명한 '월출산'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과 강진군에 걸쳐 있는 '월출산(月出山)'은 이름 그대로 '달이 뜨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달이 난다 하여 '월라산(月奈山)'이라 하고 고려시대에는 '월생산(月生山)'이라 부르다가, 조선시대부터 월출산이라 불려왔다고 전해지는데 이름이 하나같이 달이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기도 한 월출산은 소백산계의 무등산 줄기에 속하며 목포 앞 바다로 뻗어가다 평지에 돌출된 형태인데, 산 전체가 수석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암봉과 단애 등 수많은 기암괴석으로도 유명합니다. 천황봉을 중심으로 남쪽에 무위사(無爲寺), 서쪽에는 도갑사(道岾寺)가 있다. 도갑사의 해탈문(국보 제50호),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호) 등을 비롯한 많은 문화 유적들이 산재해 있기도 합니다.

3월 3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죽연"

오늘은 벚꽃 명소로 유명한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에 있는 '죽연'마을을 소개해드립니다.

'죽연(竹淵)' 즉 '대나무'와 '연못'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진강 물이 맑고 잔잔하여 청명한 날이면 근처 산 대나무 숲 그림자가 물위에 비춰 아름다운 풍경을 이룬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 옆으로 섬진강 물이 흐르고 있어도 농사에 이용할 수 없다 하여 원래는 '별말(別末)'이라 하였는데, 마을 위쪽에 있는 작은 못 근처에 있는 서당골에서 글선생이 글을 가르치다가 못가에 나와 시문을 읊을 때, 봉성산의 대나무 숲 그림자가 연못에 비쳤다 하여 '죽연'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마을 옆으로 흐르는 섬진강을 따라 불어면 벚꽃이 활짝 피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면서, 전남 구례군에서는 이곳 '죽연'마을 일대에서 매년 <섬진강변 벚꽃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4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문어포”

오늘은 만우절이니, '거짓말'과 관련된 거짓말 같은 지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한산도(閑山島)는 통영시에 있는 가장 큰 섬 중 하나로, 일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으로도 유명할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산도 서쪽에는 ‘문어포(鰻魚浦)’라는 작은 형구가 하나 있습니다. 한산해전에서 크게 패한 왜군 패잔병들이 이곳 문어포에 들어서서 신선 같은 노인 한 명에게 도망갈 길을 물었다고 합니다. 문어포의 지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깊숙하게 솟아오른 형태로, 동쪽 바다는 한산섬 깊숙하게 들어가는 내해(內海)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병들이 동쪽으로 가면 넓은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냐는 물음에 노인이 그렇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고 해서, 지금의 ‘문어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곳에서 문어가 많이 잡혀서 ‘문어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하회”

벚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곧 봄비가 한두 차례 더 내리고 나면 벚꽃도 모두 떨어지고 그 자리에는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이 하나들 솟아나올 것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굽이지며 흐르고 있어 ‘하회(河回)’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은 ‘하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하회마을의 봄은 ‘벚꽃길’로도 유명합니다. 제방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벚나무에서 벚꽃이 만발하면, 사람들은 이 길을 ‘벚꽃터널’이라고 부를 정도로 장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회마을은 ‘하회탈과 하회별신굿탈놀이’로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풍산 유씨(柳氏)의 씨족 마을로서 유성룡(柳成龍) 등 조선 시대 내내 수많은 고관들을 배출했으며, 임진왜란의 피해도 없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문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하회마을은 1984년에는 국기민속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경주의 양동마을과 함께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신효”

오늘은 1947년 제주도에서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반성하여,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는 ‘신효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신효동의 옛 이름은 ‘쇄둔’이나 ‘쇄둔’이었다고 합니다. ‘쇄둔(牛屯)’은 소를 모아서 기르던 곳을 이르는 말로, 나중에 그 이름이 ‘쇄둔’이나 ‘쇄쇄둔’이 되었고, 이것을 한자로 음차 표기한 것이 ‘신효동(新孝洞)’이라는 명칭이 되었다가, 지금의 ‘신효리’라는 이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효동은 서귀포시의 일부로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로 남아있지만, 이 지역에서도 제주 4·3 사건 당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의 지난 아픔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빌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연하”

봄에는 벚꽃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른 꽃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핀 꽃이라고 전해질 정도로 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연(蓮)’은 뿌리줄기인 ‘연근(蓮根)’이 식용으로 사용되며, 열매와 잎은 약재로도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연하리(蓮荷里)’는 봄에 어울리는 ‘복사꽃 벽화’가 소박하게 그려져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마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마을 형상이 연꽃잎처럼 생겼다 하여 ‘연하(蓮荷)’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마을 북동쪽에는 청동기 시대 지석묘군과 생활유물 출토지가 있어서, 이곳에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지리산”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淸明)’이자 식목일입니다. 이에 식목일을 맞아 가장 넓은 면적의 산악국립공원이기도 한 ‘지리산’의 이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과 전남에 걸쳐 있는 해발고도 1915m의 이 산은, 신라 오악 중 남악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 난다’고 하여 ‘지리산(智異山)’이라 불렀고, 또 ‘멀리 백두대간이 흘러왔다’하여 ‘두류산(頭流山)’이라고도 했으며, 옛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方丈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깊고 울창한 지리산은 잘 보존하고 가꿔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줘야 할 소중한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일 것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숲세터”

오늘은 한식(寒食)입니다. 한식이라는 명칭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아주 오래 전 매년 봄에 나라에서 새 불(新火)을 만들어 쓸 때 예전에 쓰던 목은 불(舊火)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보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돌보는 우리 풍습이, 어쩔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식목일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룡리에는 ‘숲세터’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세터’라 하였는데, 주민들이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숲이 되어서 ‘숲세터’라 부른다고 합니다. 덕분에 ‘숲세터’ 남쪽의 마을도 ‘숲세터골’이라는 시그니처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온동”



오늘은 '보건의 날'입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맨 진시황의 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 전부터 강수와 건강은 인류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에는 '온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하는 윤희원이란 효자의 전설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효원의 모친이 열병에 걸려 온갖 약을 다 써왔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생물을 마시고 싹다고 하여 효원이 생에 갔는데, 신기하게도 차갑던 생물이 더운물로 변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효원이 그 물을 떠서 그의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니, 병이 곧바로 낫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퍼져 생물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자, 마을에서는 생물을 메우고 쇠뚜껑을 만들어 덮었다가 몇 년 후 생을 찾으려고 흙을 파헤쳤으나 쇠뚜껑은 물론 생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마을의 이름을 더운물이 나오는 마을이라고 해서 '온동(溫洞)' 또는 '온수동(溫水洞)'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4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림”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에 피는 꽃과 같은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속리산(俗離山)이 흘러내려 가야산(伽倻山)과 덕유산(德裕山)으로 갈라지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정암리의 남쪽에는 '화림(花林)'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살구나무가 있어 봄이면 살구꽃이 만발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이름을 '화림'으로 칭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에 걸쳐 널리 사랑받는 살구는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있는 과일입니다. 살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씨앗은 행인(杏仁)이라는 한약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4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장춘리”

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에는 '장춘리(長春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해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489m)의 서남쪽에 있는 이 마을은 달마산에서 흘러나와 군곡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하천이 흐르는 계곡이 시작되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연안 명씨의 명수정(明秀瑩)이라는 사람이 1800년 경 완도군 고금면 봉영리에서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마을이 생겼다고 하며, 뒷산에 우거진 녹엽수림(綠葉樹林) 덕분에 사철이 모두 봄과 같다 해서 장춘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4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실”

경북 구미와 의성 사이에 있는 청화산(靑華山) 자락의 동쪽 아래에는, '위천'이 굽어쳐 흐르는 길 중간에 있는 위성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에 있는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화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화실(花室, 또는 華室)'은 위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조선 초에 번성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마을 뒷산의 산세가 매화의 형국처럼 되어있다 하여 '화실'이라 하였다고 하며, 다르게는 봄이면 마을 뒷산에 매화가 만발한다 하여 '화실'이라 하였다고도 합니다. 한편, 청화산의 원래 이름은 청화산(靑火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인지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꽃을 뜻하는 '화(華)'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4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평동”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 사저이자 공관으로 사용했던 '경교강(京橋莊)'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평동(平洞)'은 평정동 명칭으로, 현재 행정동 상으로는 교남동(僑南洞)에 속해 있습니다. 1914년에 이곳에 있던 거평동(居平洞) 일부와 다른 지역이 합쳐져 평동(平洞)이라 칭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현재의 서울직접지방행정과 '지대문우제국' 일대는 원래 조선시대에는 경기감영이 있던 자리였고, 지금 강북삼성병원의 일부는 8·15광복 직후 백범 김구(金九)선생께서 머물던 경교강 건물이었습니다. 경교(京橋)는 서대문 근처에 있었던 '경구(京口橋)'라는 다리에서 따온 이름으로, 경교장은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께서 육군포병소위였던 '안두희'에게 피살되어 바람 치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불련듯 우리 걸을 떠나셨지만, 우리는 그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오면서 행복함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어나가야 할 것 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춘경리”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 농사와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는 '도초도(都草島)'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도초면 밭매리에는 밭이 많은 '춘경리(春耕里)' 마을이 있습니다. 매 해 봄마다 봄갈이를 하도 많이 한다 해서 '춘경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춘경리 마을에 찾아가면 온통 농사짓는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초도는 신라 시대에 당나라와 교역하는 기항지였으며, 당나라의 수도와 같은 형태인데 초목이 무성하여 목마지로 활용되었으므로 도초(都草)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혹은 인근의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라 '도지도'라 불렀다는 설도 있고, 섬의 형태가 마치 고슴도치처럼 생겨서 '도치'라고 하다가 그 이름이 '도초'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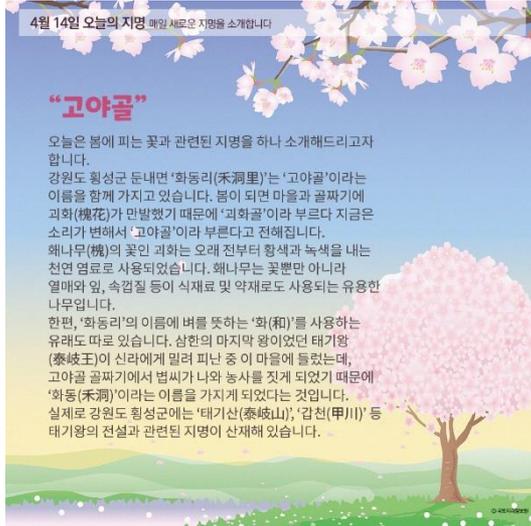
4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방리”

요즘은 봄 하면 벚꽃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지만, 사실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면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은 다음 아닌 '진달래'입니다.
'참꽃'이나 '두견화(杜鵑花)' 등으로도 불리는 진달래는 봄에 기온이 올라 나뭇잎들이 본격적으로 돋아나기 직전 피어나 멀리서도 온 산을 연분홍빛으로 아름답게 채색합니다. 진달래가 피면 본격적으로 따뜻한 날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벚꽃 피는 봄'보다는 '진달래꽃 피는 봄'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에게는 더욱 친숙했던 것입니다.
경상남도 창원군 창산면 '방리'는 묘봉산(514m)과 수복산(592m), 황령산(428m) 등 높은 산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골짜기를 따라 농사짓기 좋은 밭이 많은 골짜기이므로 '밭골'이라 불리던 것이 '밭골'로 변한 것이라고 하며, 또한 마을 앞산에 참꽃(진달래꽃)이 많이 피어 봄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꽃다운 마을이라는 뜻으로 '방리(芳里)'라는 이름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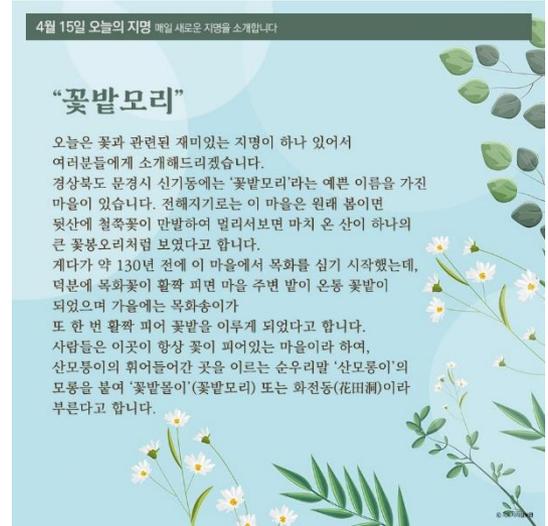
4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고야골”

오늘은 봄에 피는 꽃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禾洞里)'는 '고야골'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마을과 골짜기에 괴화(槐花)가 만발했기 때문에 '괴화골'이라 부르다 지금은 소리가 변해서 '고야골'이라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해나무(槲)의 꽃인 괴화는 오래 전부터 황색과 녹색을 내는 천연 염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나무는 꽃뿐만 아니라 열매와 잎, 속껍질 등이 식재료 및 약재로도 사용되는 유용한 나무입니다.
한편, '화동리'의 이름에 버를 뜻하는 '화(和)'를 사용하는 유래도 따로 있습니다. 삼한의 마지막 왕이었던 태기왕(泰岐王)이 신라에게 밀려 피난 중 이 마을에 들렀는데, 고야골 골짜기에서 범씨가 나와 농사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화동(禾洞)'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횡성군에는 '태기산(泰岐山)', '갑천(甲川)' 등 태기왕의 전설과 관련된 지명이 산재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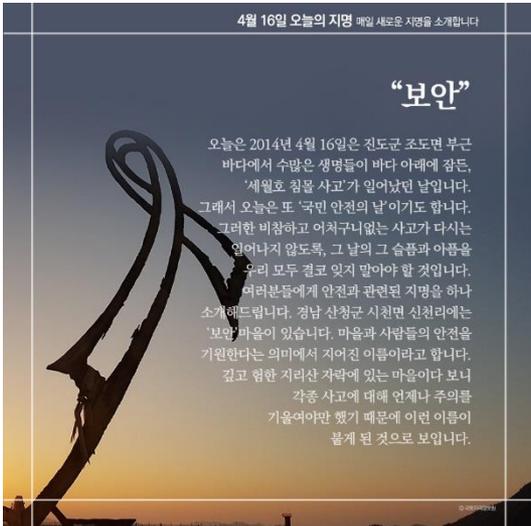
4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꽃밭모리”

오늘은 꽃과 관련된 재미있는 지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신기동에는 '꽃밭모리'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은 원래 봄이면 뒷산에 철쭉꽃이 만발하여 멀리서 보면 마치 온 산이 하나의 큰 꽃밭모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약 13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목화밭을 심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목화꽃이 활짝 피면 마을 주변 밭이 온통 꽃밭이 되었으며 가을에는 목화송이가 또 한 번 활짝 피어 꽃밭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항상 꽃이 피어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모퉁이의 휘어들어간 곳을 이르는 순우리말 '산모퉁이'의 모퉁을 붙여 '꽃밭모리' (꽃밭모리) 또는 화전동(花田洞)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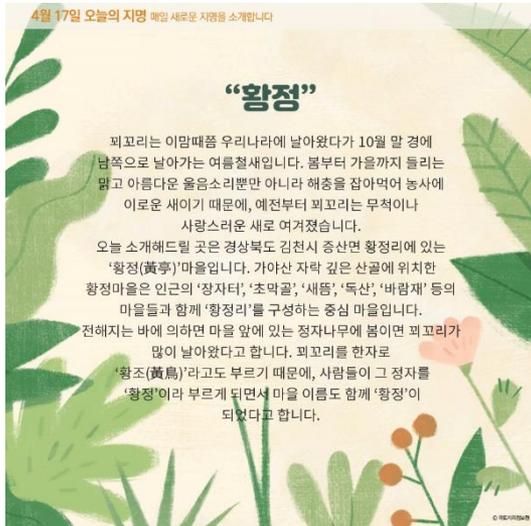
4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보안”

오늘은 2014년 4월 16일은 진도군 조도면 부근 바다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바다 아래에 잠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참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날의 그 슬픔과 아픔을 우리 모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는 '보안'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과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깊고 험한 지리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 각종 사고에 대해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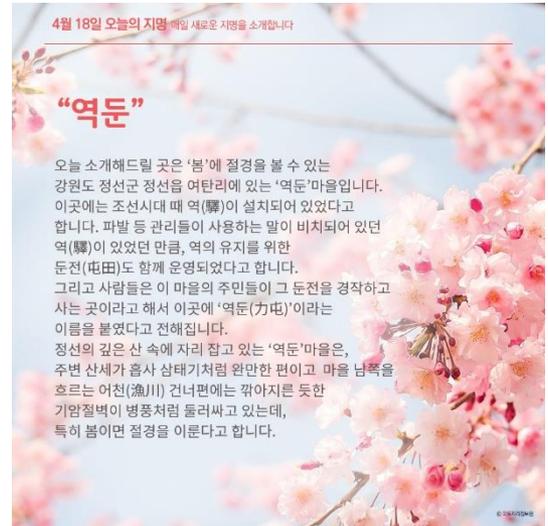
4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황정”

피고리는 이맘때쯤 우리나라에 날아왔다가 10월 말 경에 남쪽으로 날아가는 여름철새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들리는 맑고 아름다운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어 농사에 이로운 새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피고리는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새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황정리에 있는 '황정(黃亭)' 마을입니다. 가아산 자락 깊은 산골에 위치한 황정마을은 인근의 '장자터', '초막골', '새롬', '독산', '바람재' 등의 마을들과 함께 '황정리'를 구성하는 중심 마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마을 앞에 있는 정자나무에 봄이면 피고리가 많이 날아왔다고 합니다. 피고리를 한자로 '황조(黃鳥)'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자를 '황정'이라 부르게 되면서 마을 이름을 함께 '황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4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역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봄'에 절경을 볼 수 있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여탄리에 있는 '역둔'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때 역(驛)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파발 등 관리들이 사용하는 말이 비치되어 있던 역(驛)이 있었던 만큼, 역의 유지를 위한 둔전(屯田)도 함께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마을의 주민들이 그 둔전을 경작하고 사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에 '역둔(力屯)'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정선이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역둔' 마을은, 주변 산세가 흡사 삼태기처럼 완만한 편이고 마을 남쪽을 흐르는 여천(漁川) 건너편에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특히 봄이면 절경을 이룬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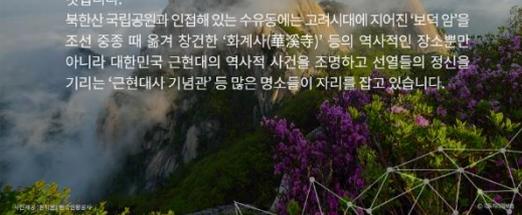
4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수유리”

오늘은 <4·19혁명>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19혁명'은 이승만과 부패한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시민혁명입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있는 '수유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의 원래 이름은 '수유리(水踰里)'입니다. 북한산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차고 넘쳐서 '누넘이(물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물(水)이 넘(踰) 마을(里)'이라고 한자로 쓴 것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수유동에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보덕암'을 조선 중종 때 옮겨 창건한 '회계사(篋溪寺)' 등의 역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현대의 역사적 사건을 조명하고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근현대 기념관' 등 많은 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푸름공원”

오늘은 '지구'의 날입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이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와 함께 1969년 캘리포니아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주최한 것에서 비롯된 기념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는 '푸름공원'이 있습니다. 이 도시 속 녹지는 길 건너 '푸꾸는공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근린공원입니다. '푸름공원'이라는 이름은 주변 환경을 푸르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시민 공모를 통해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의 이름이자, 우리가 밟고 있는 대지의 이름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순환하는 강과 바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순환하는 숲과 하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시민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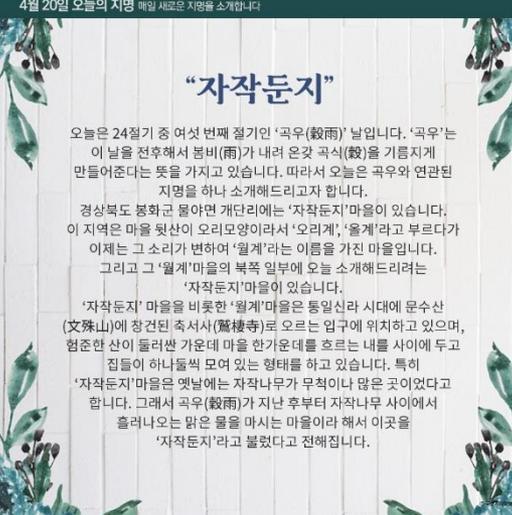
4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자작둔지”

오늘은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穀雨)' 날입니다. '곡우'는 이 날을 전후해서 분비(雨)가 내려 온갖 곡식(穀)을 기름지게 만들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곡우와 연관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물아면 개단리에는 '자작둔지'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 뒷산이 오리모양이라서 '오리게', '올게'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그 소리가 변하여 '월계'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월계'마을의 북쪽 일부에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자작둔지'마을이 있습니다.

'자작둔지' 마을을 비롯한 '월계'마을은 통일신라 시대에 문수산(文殊山)에 창건된 죽서사(鶡棲寺)로 오르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험준한 산이 둘러싼 가운데 마을 한기운대를 흐르는 냇물 사이에 두고 집들이 하나둘씩 모여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작둔지'마을은 옛날에는 자작나무가 무척이나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우(穀雨)가 지난 후부터 자작나무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을 마시는 마을이라 해서 이곳을 '자작둔지'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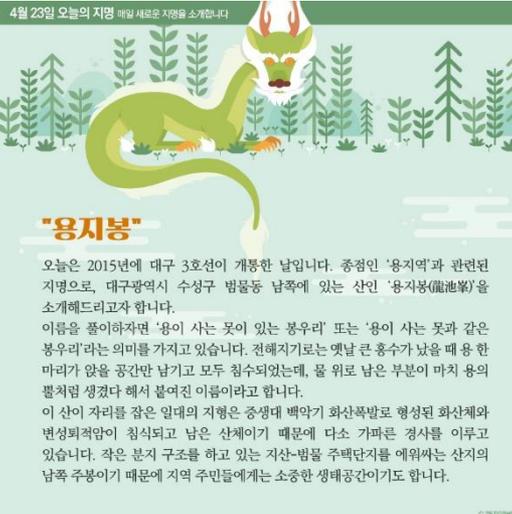
4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용지봉”

오늘은 2015년에 대구 3호선이 개통한 날입니다. 종영인 '용지역'과 관련된 지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남쪽에 있는 산인 '용지봉(龍池峯)'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을 풀이하자면 '용이 사는 곳이 있는 봉우리' 또는 '용이 사는 못과 같은 봉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큰 홍수가 났을 때 용 한 마리가 앓을 공간만 남기고 모두 침수되었는데, 물 위로 남은 부분이 마치 용의 뿔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 자리를 잡은 일대의 지형은 중생대 백악기 화산폭발로 형성된 화산체와 변성퇴적암이 침식되고 남은 산체이기 때문에 다소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분지 구조를 하고 있는 지산-분지-주맥단지를 에워싸는 산지의 남쪽 주봉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생태공간이기도 합니다.



4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카이스트교”

오늘 소개해드릴 지명은 '카이스트교'입니다. 무슨 이상한 종교의 이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소개해드리는, 한국 과학기술훈(KAIST)과 대전 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의 이름입니다.

길이 272.5m, 폭 25.9m 규모의 '카이스트교(KAIST橋)'는 2016년에 개통한 비교적 생긴 지 얼마 안 된 다리입니다. 카이스트와 대전 시내를 가로지르는 갑천(甲川)에 놓인 이 다리는 과학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상징인 카이스트의 명칭을 지명에 사용한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다리 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 7인의 흉상을 설치했는데, 천문기상학을 개척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 이원철, 세계적인 유전독종학자 우장춘, 우리별1호를 개발한 최순달, 한국과학원 초대 원장을 지낸 물리학자이자 광학자인 이상수, 동의보감의 저술, 조선 초 맹활약한 장영실, 고려 말 화약과 화포를 개발한 최무선 6인의 흉상이 세워졌으며, 나머지 한 자리는 한국 최초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위하여 비워둔 상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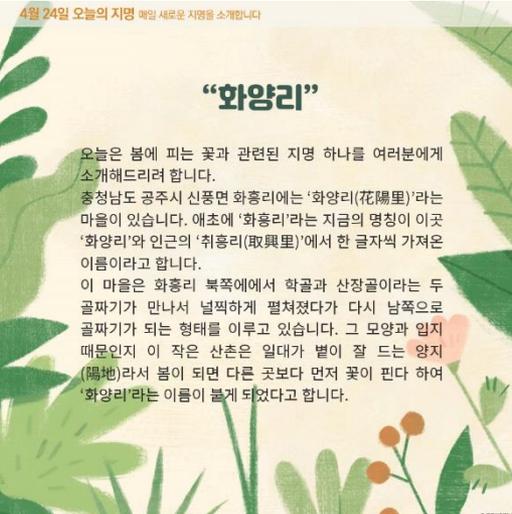
4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양리”

오늘은 봄에 피는 꽃과 관련된 지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화양리에는 '화양리(花陽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애초에 '화양리'라는 지금의 명칭이 이곳 '화양리'와 인근의 '취흥리(取興里)'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은 화양리 북쪽에서 학교와 산장골이라는 두 골짜기가 만나서 넓히게 펼쳐졌다가 다시 남쪽으로 골짜기가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일치 때문인지 이 작은 산촌은 일대가 별이 잘 드는 양지(陽地)라서 봄이 되면 다른 곳보다 먼저 꽃이 핀다 하여 '화양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4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구법원사거리”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따라서 법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는 '법원사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1984년에 수원지방법원이 원천동으로 청사를 이전 해 온 후 30여 년 간 법원사거리라 불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2019년 수원지방법원이 영통구 하동으로 다시 청사를 이전하면서, 이제 이곳은 '구법원사거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있던 그 자리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새롭게 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법원사거리'는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알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등 우리나라의 고지도(古地圖)를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지도가 전시되어 있어 지도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는 '지도박물관'도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유토”

오늘은 '유토'라는 재미있는 '봉'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은 '조도(鳥島)'라는 섬을 중심으로 154개의 섬을 거느리고 있는 군도(群島)입니다. '조도'는 마치 새때처럼 섬이 많다고 해서 붙게 된 이름입니다. 심지어 '조도'도 '상조도'와 '하조도'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며, 또 그 사이에는 '중도'와 '군암도' 등의 섬들이 있습니다. 왜 '새때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명은 '하조도(下鳥島)'에 있는 '유토(柳土)' 마을입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에 있는 이 마을은 손가락산(231m)과 돈대봉(敦大峰, 271m)을 서쪽, 신금산을 동쪽에 두고 하조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마을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 봄철에 울트는 모양이 아름답게 보인에서 '버드나무의 땅'이라는 뜻의 '유토'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4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고봉산

1989년 4월 27일은 1기 신도시(일산, 분당) 개발계획이 발표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봉산(高峰山)'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마루턱에 테두리가 있어서 예전에는 '대위산(帶圍山)', '대산(帶山)'이라고 쓰고 '태매산'이라는 부르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고봉(高峰)이지만 사실 고도가 203m로 아주 낮은 산은 아닙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고구려 안장왕 시집에 미녀인 한씨(漢氏)가 당시 달을성현(達志省縣)이었던 이곳의 높은 산 위에 올라 왕을 맞이했기 때문에 '고봉(高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산(一山)'이라는 명칭이 이곳 '고봉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있던 '한위(一山)'마을의 이름에서 '일산'이라는 명칭을 가져온 것인데, '한위'마을이 근처에 고봉산이 있기 때문에 붙게 된 것이라고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봉산'을 우리말로 하면 '한산'인데 이를 '대산'이 아니라 '일산'으로 불렀던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이순신대교”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입니다. 1545년 오늘 태어난 충무공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순신대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신 대교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중 전사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해역에 건설된 교량으로, 이순신 장군의 탄신년인 1545년을 기념하여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간의 거리)을 1,545m로 설계하고,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웅장한 모습을 형상화 하여 주탑을 건설하는 등 교량의 모습을 통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였으며, 그 이름도 '이순신대교'라 하였습니다. 전남 광양시와 '묘도(獐島)'를 잇는 이 다리의 총 길이는 2.26km로, '묘도대교'와 함께 광양시와 여수시 사이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시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4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봉산”

2011년 4월 29일은 순천완주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시의 지명 중 하나인 '오봉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낙안읍성 동쪽에 있는 해발고도 597m의 '오봉산'은 낙안읍의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좌청룡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산으로 낙안읍성을 동쪽에서 에워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하여 '오봉산(五峰山)'이라고 불렀으며, 간혹 '오봉산(五鳳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곳 오봉산에는 '아기장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조 22년(1589) 낙안의 어느 과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는 열 달을 넘겨 열 년을 채우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기축육사(己丑獄師)로 억울하게 죽은 정여림의 환생으로 여겼습니다. 세 살이 된 아기가 오봉산에 오르면서 어머니에게 열 달 동안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정여림 환생 소식을 들은 조경에서 군사를 파견하여 어머니로부터 행방을 알아내 아기가 온산한 산 중턱 바위를 부수자 수많은 병마(兵馬)가 쏟아져 나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 장수원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장수원'마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수원'은 현재 원도봉산 유원지 일구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원(院)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院)은 역 부근에 마련해둔 궁무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던 곳입니다. 이설계가 의정부에 머물 당시 대신들이 정무를 논하러 오던 길에 이곳에서 쉬어갔다고 하며, 다리원(樓院)을 거쳐 서울로 가는 선인들도 이곳에서 쉬어 가면서 이곳에 주막거리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장수원(長水院)'이라는 지명은 구버위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류의 삼청계소까지 길게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5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정자나무고개

오늘은 메이데이(May Day), 세계 노동자의 날,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도 도입을 쟁취해내기 위한 총파업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들의 희생 끝에 결국 8시간 노동제를 성취해낸 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이후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대와 권리의식을 확인하는 날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 하는 것'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의 남쪽에는 '비봉산(飛鳳山)'의 부속산인 '옛산'이라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그 서쪽에 있는 '오우미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개가 한 쌍을 이루는 저수지를 바라보는 이 '옛산' 높은 언덕 위에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집을 지고 길을 가는 사람이나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나무로 여겨져, 이곳 사람들은 이 언덕 고개를 속칭 '정자나무고개'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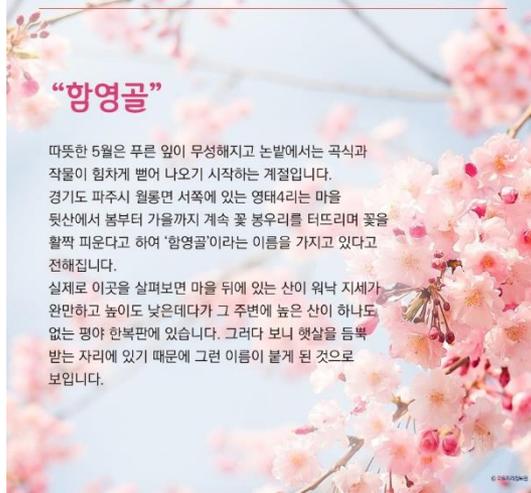
5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무봉산"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무봉산'을 소개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봉황 중 수컷인 '봉(鳳)'새가 날개를 펼쳐 춤추는 형국을 한 산이라고 해서 '무봉산(舞鳳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봉산에는 고려 전기의 승려 남대사(南大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만기사(萬奇寺)'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보물 제567호로 지정된 절조여래좌상을 비롯하여 후불탱화(後佛幀畫)·신중탱화(神衆幀畫) 등이 봉안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과 석등의 일부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절에 있는 '어정(御井)'이라는 우물은 세조가 이곳을 들렀을 때 마시고 물맛이 좋다 하여 '감로천(甘露泉)'이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하며, 후세 사람들이 임금이 마신 우물이라 하여 지금의 '어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5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함영골"

따뜻한 5월은 푸른 잎이 무성해지고 눈발에서는 곡식과 작물이 힘차게 뻗어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서쪽에 있는 영태4리는 마을 뒷산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 봉우리를 터뜨리며 꽃을 활짝 피운다고 하여 '함영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곳을 살펴보면 마을 뒤에 있는 산이 워낙 지세가 완만하고 높이가 낮아데다가 그 주변에 높은 산이 하나도 없는 평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햇살을 듬뿍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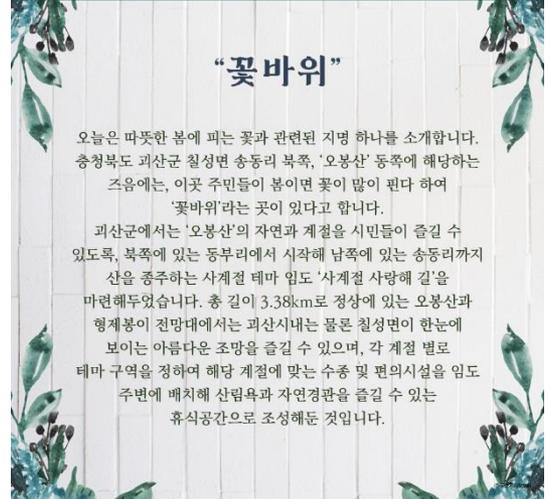
5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도란도란공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동시에 24절기 중 입하(立夏)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시작 되는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자라날 어린이들이 바르고 슬기롭게 성장하기를 응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는 높은 아파트들 사이에 어린이들이 정답게 꿈과 행복을 엮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로 '도란도란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공원의 이름은 '송도 12호 어린이공원'이었다고 합니다. 바뀐 이름처럼 이곳에서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연수구는 그밖에도 '어울림공원', '도란들공원' 등 도심 각지에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 산책하고 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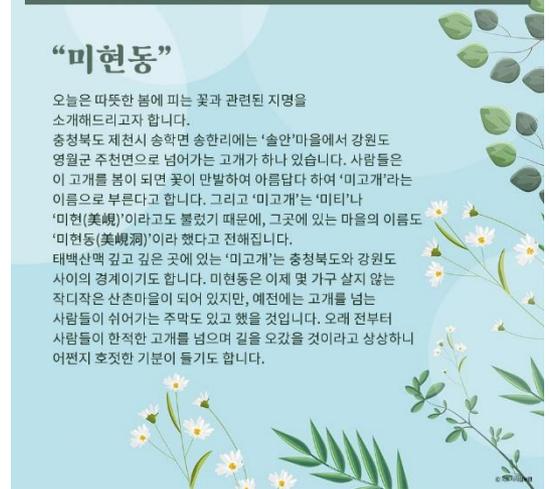
5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꽃바위"

오늘은 따뜻한 봄에 피는 꽃과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북쪽, '오봉산' 동쪽에 해당하는 즈음에는, 이곳 주민들이 봄이면 꽃이 많이 핀다 하여 '꽃바위'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괴산군에서는 '오봉산'의 자연과 계절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북쪽에 있는 동부리에서 시작해 남쪽에 있는 송동리까지 산을 종주하는 사계절 테마 임도 '사계절 사랑해 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총 길이 3.38km로 정상에 있는 오봉산과 형제봉이 전망대에서는 괴산시내는 물론 칠성면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조망을 즐길 수 있으며, 각 계절 별로 테마 구역을 정하여 해당 계절에 맞는 수종 및 편의시설을 임도 주변에 배치해 산림욕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둔 것입니다.

5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미현동"

오늘은 따뜻한 봄에 피는 꽃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는 '솔안'마을에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개를 봄이 되면 꽃이 만발하여 아름답다 하여 '미고개'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고개'는 '미타'나 '미현(美峴)'이라고도 불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마을의 이름도 '미현동(美峴洞)'이라 했다고 전해집니다. 태백산맥 깊고 깊은 곳에 있는 '미고개'는 충청북도와 강원도 사이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미현동은 이제 몇 가구 살지 않는 작디작은 산촌마을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주막도 있고 했을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한적한 고개를 넘어 길을 오갔을 것이라고 상상하니 어쩐지 호젓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5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동”

오늘은 봄에 꽃이 만발하는 지명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에는 ‘화동’마을이 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서쪽에 끼고 북쪽으로는 낮지만 그래도 겨울 찬바람은 너끈히 막아줄 수 있는 ‘매봉재’라는 뒷산을 가지고 있으며 사방이 온통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름진 평야가 펼쳐진 넉넉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봄이 되면 뒷산에 꽃이 만발하였다 하여 ‘화동’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꽃이 활짝 핀다는 그 ‘화동’마을의 뒷산에는 고려말 조선초의 무관이었던 전득우 장군의 묘가 있기도 합니다. 전득우의 아들 전홍이 태종 이방원의 사병으로 증군한 공으로 벼슬에 올랐는데, 이에 부친인 전득우도 세종에게 무언에 추증되고 묘비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5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불당굴”

오늘은 유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아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온건하게 자기를 완성함으로써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세상까지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현대의 윤리와 철학에서도 끊임없이 참조하고 재해석되고 있는 ‘오희되는 가르침’입니다. 동양문화권 전반에서 사용하는 ‘종교(宗敎, 오희되는 가르침)’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에는 ‘장군산(將軍山)’이라는 기백 좋은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북쪽과 남쪽으로 각각 ‘불당굴’이라는 골짜기와 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부처님을 모시던 골짜기 마을이라 해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5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효 우 촌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버이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은 ‘효(孝)’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군 도천면 우강리에는 ‘효우촌(孝友村)’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우강리에서 오희가는 마을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에 있게 지내자는 뜻에서 ‘효우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모름지기 ‘효(孝)’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기를 낳고 기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효를 행하는 도리(孝道)’가 아닐까 합니다.



5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배원”

5월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입하도 지났고 이제 불도 서서히 열려져 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름도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봄을 보내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의사리에 있는 ‘배원’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은 오봉산 동남쪽의 널따란 평야에 흐르는 달천 강가에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배꽃이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흰 구름처럼 많이 피었다고 해서, ‘백운동(白雲洞)’ 또는 ‘배원’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5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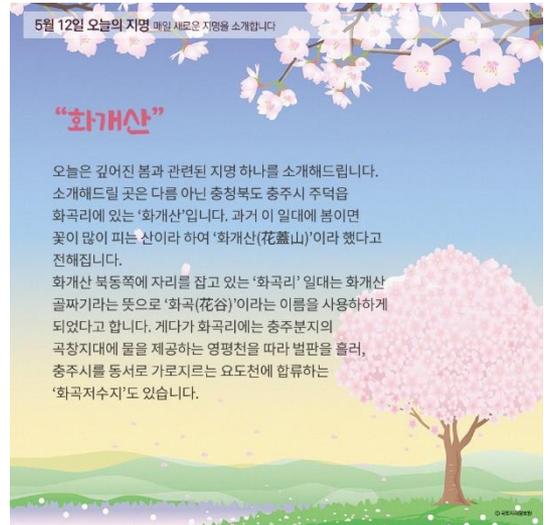
“성황산”

오늘은 ‘동학농민운동 기념일’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항거하여 농민을 스스로 들고 일어난 봉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지명은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에 있는 ‘성황산’입니다. ‘성황산(城隍山)’은 조선시대 태인현의 진신이자 주신으로 해전에는 양진산(襄眞山), 육사산(竹寺山) 등으로도 불렸으며, 산의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성황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황산은 1894년 11월 27일 전북총의 동학농민군 주력군이 일본군 - 관군 연합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전적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전북총의 성황산, 한기산, 도리산(도래미산) 9개 봉우리에 진을 치고 벌인 ‘태인 전투’에서의 패배로 농민군을 해산하게 되면서 사실상 혁명봉기는 실패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 당시 성황산에 있던 성황당도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전해집니다.

5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개산”

오늘은 깊어진 봄과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릴 곳은 다름 아닌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화개산’입니다. 과거 이 일대에 봄이면 꽃이 많이 피는 산이라 하여 ‘화개산(花叢山)’이라 했다고 전해집니다. 화개산 북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화곡리’ 일대는 화개산 골짜기라는 뜻으로 ‘화곡(花谷)’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곡리에는 충주분지의 곡창지대에 물을 제공하는 영평천을 따라 발판을 올려, 충주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요도천에 합류하는 ‘화곡저수지’도 있습니다.



5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숙지산”

오늘은 2001년에 수원월드컵경기장이 개장한 날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서로 마주 보는 자리에 있는 ‘숙지산(熟知山)’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이 산은 경조가 바로 옆에 있는 팔달산(화성장대)에 올라 숙지산 쪽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산이니 숙지산이라 부르라”고 한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물 수원은 경조와 관련된 지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산에는 수원화성을 축조할 당시 성벽을 쌓은 돌을 채취한 채석장도 남아 있습니다.



5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홍류동”

오늘은 햇볕 따스한 봄과 관련된 지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경남 함천 가야산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해인사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야천이 흐르는 계곡에는 ‘홍류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여러 꽃들이 물에 떠내려 오고 가을이면 단풍이 떠내려 오니 흐르는 물이 붉게 보인다 하여 골짜기의 이름을 ‘홍류동(紅流洞)’이라 했다고 전해집니다. ‘홍류동’ 계곡은 해인사를 찾는 참배객과 여행자들이 물소리를 들으며 가야산의 수려한 경치를 만나러 가는 아름다운 길로도 유명합니다. 함천군에서는 이곳을 ‘함천8경’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5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사자봉”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인류가 꾸준히 발전하고 성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선대의 지식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명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죽암리에 있는 ‘사자봉’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죽암리 주민들은 신의 형태가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사자봉’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죽암리 남쪽으로 보이는 보은리 ‘국사봉(國師峰)’을 스승으로 간주하고 죽암리 북쪽의 ‘사자봉(獅子峰)’을 제자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5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혜음공원”

오늘은 5월 셋째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사회적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근린공원 중에는 ‘혜음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혜음’은 ‘생각하다’, ‘세다’를 뜻하는 순우리말 ‘혜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생각’이나 ‘셈’을 의미합니다. 연수구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 건강할 생각을 가지고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혜음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공원의 기존 이름은 ‘절단산업로스터던지 3호 근린공원’이었다고 합니다.



5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너울가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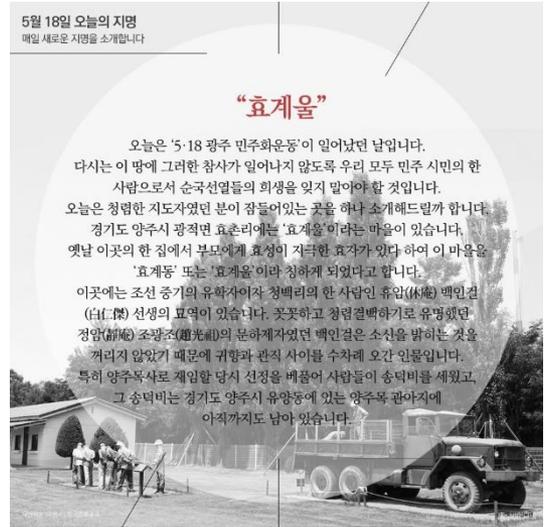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서 모두 제각각이지만,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가족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근린공원 하나의 이름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너울가지공원’입니다. ‘너울가지’란 ‘남과 갈 사귀는 솜씨’, 즉 불임성과 포용력이 좋은 정도를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이 공원이 친구와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너울가지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 공원의 기존 이름은 테크노마크 확대조성단지 2호 소공원이었다고 합니다.



5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효계울”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청렴한 지도자였던 분이 잠들어있는 곳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는 ‘효계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이곳의 한 집에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효자가 있다 하여 마을을 ‘효계동’ 또는 ‘효계울’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이자 청백리의 한 사람인 휴암(休庵) 백인걸(伯仁傑) 선생의 묘역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제자였던 백인걸은 소신을 밝히는 것을 꺼리지 않았기 때문에 귀환과 관직 사이를 수차례 오간 인물입니다. 특히 양주목사로 재임할 당시 신정을 베풀어 사람들이 송덕비를 세웠고 그 송덕비는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 있는 양주목 관아지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5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효동”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과 부모자식 사이의 도리인 '효(孝)'와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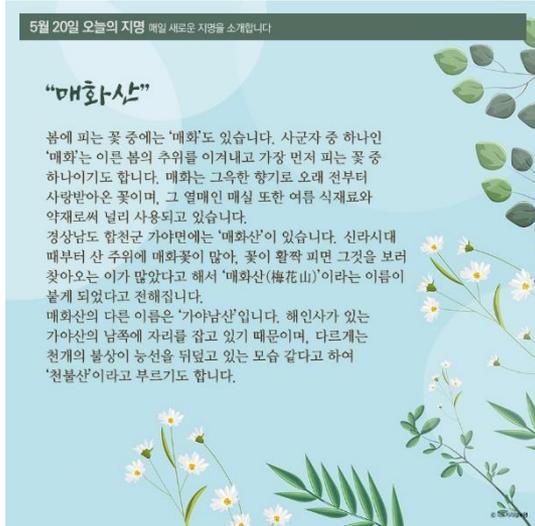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삼포리에는 '효동'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남쪽으로는 산이 높게 솟고 북쪽으로는 들만이 넓게 펼쳐진 이 마을이 원래 옛날 어느 효자가 일으킨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효자가 많이 나는 마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효동(孝洞)'이라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5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매화산”

봄에 피는 꽃 중에는 '매화'도 있습니다. 사군자 중 하나인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는 꽃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화는 그윽한 향기로 오래 전부터 사랑받아온 꽃이며, 그 열매인 매실 또한 여름 식재료와 약재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면에는 '매화산'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산 주위에 매화꽃이 많아, 꽃이 활짝 피면 그것을 보러 찾아오는 이가 많았다고 해서 '매화산(梅花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매화산의 다른 이름은 '기아남산'입니다.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의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며, 다크게는 천개의 불상이 능선을 뒤덮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하여 '천불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성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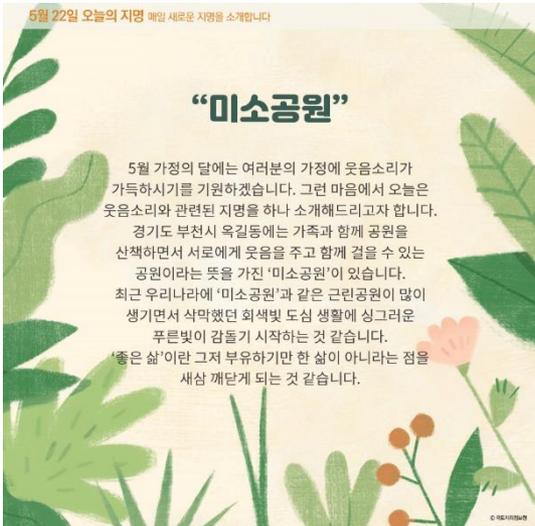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7년 제정 되었으며, 가정의 달 5월에 들(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성암리에는 '성덕'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오래 전 이곳에 살던 어느 부부가 자식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마을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료로 밥을 내주고 잠을 재워주며 십년 간 덕을 쌓고 정성을 들였는데, 결국 감명한 하늘이 이 부부에게 자식을 낳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 부부가 '덕을 이루었다'고 해서 부부의 집이 있는 이 마을을 '성덕(成德)'이라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에 화목함이 깃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5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미소공원”

5월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은 웃음소리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공원이라는 뜻을 가진 '미소공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미소공원'과 같은 근린공원이 많이 생기면서 삭막했던 회색빛 도심 생활에 싱그러운 푸른빛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삶'이란 그저 부유하기만 한 삶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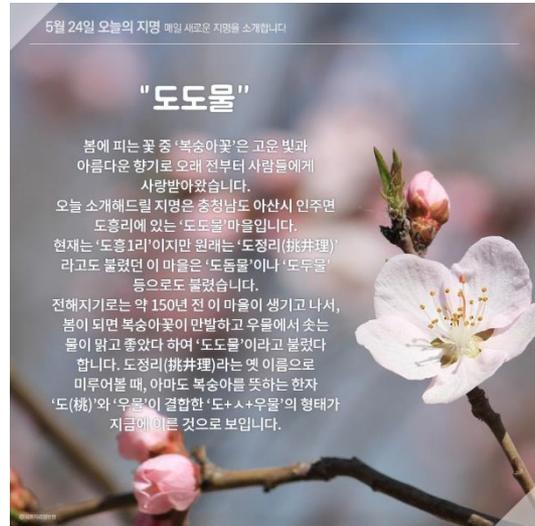
이제 곧 우리 걸을 떠나는 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은 '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에는 '춘기'마을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대(樵臺)'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턴인지 모르게 지금의 '춘기'마을이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풍수지리에서 앞산의 지형을 나비살이의 형체라고 했는데, 나비는 봄에 오는 것이므로 이 마을의 이름을 '춘기'라 불렀다고 합니다.



5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도도물”

봄에 피는 꽃 중 '복숭아꽃'은 고운 빛과 아름다운 향기로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명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에 있는 '도도물'마을입니다. 현재는 '도흥1리'이지만 원래는 '도정리(挑井里)'라고도 불렀던 이 마을은 '도도물'이나 '도두물'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약 150년 전 이 마을이 생기고 나서, 봄이 되면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우물에서 솟는 물이 맑고 좋았다 하여 '도도물'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도정리(挑井理)라는 옛 이름으로 미루어볼 때, 아마도 복숭아를 뜻하는 한자 '도(桃)'와 '우물'이 결합한 '도+수+우물'의 형태가 지금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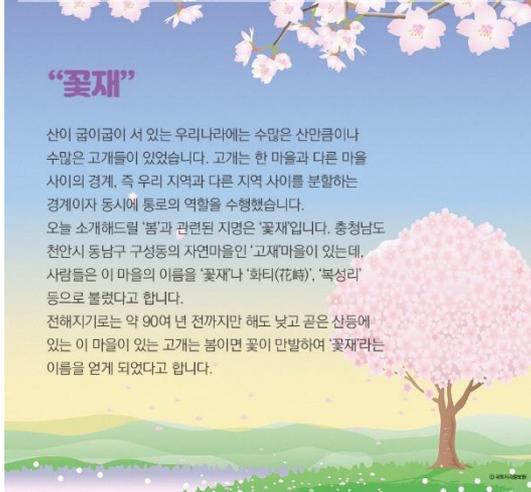


“도장”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과 관련된 지명유래가 있는 지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인원면 유곡리에 있는 연비산 서쪽에는 '도장'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동북 오씨 성을 가진 어느 선비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더니 마음이 안정되고 가족들이 날로 건강해지자, 이 마을을 '정신수양의 도장'이란 뜻으로 '도장(道場)'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설로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모양이 도장같이 울퉁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도장'마을을 감싸고 있는 연비산(鸞飛山)은 '승개(鷹)가 날아오르다(飛)'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유곡리(漚谷里)'의 옛 이름은 '담실'마을이었다고 합니다.

© 한국지리정보원

5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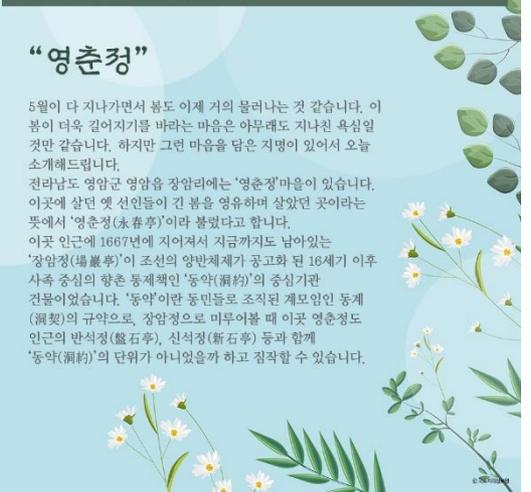


“꽃재”

산이 굽이굽이 서 있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산만큼이나 수많은 고개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는 한 마을과 다른 마을 사이의 경계, 즉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를 분할하는 경계이자 동시에 통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의 자연마을인 '고재'마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마을의 이름을 '꽃재'나 '화티(花蒂)', '복성리' 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약 9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낮고 곧은 산등애에 있는 이 마을이 있는 고개는 봄이면 꽃이 만발하여 '꽃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한국지리정보원

5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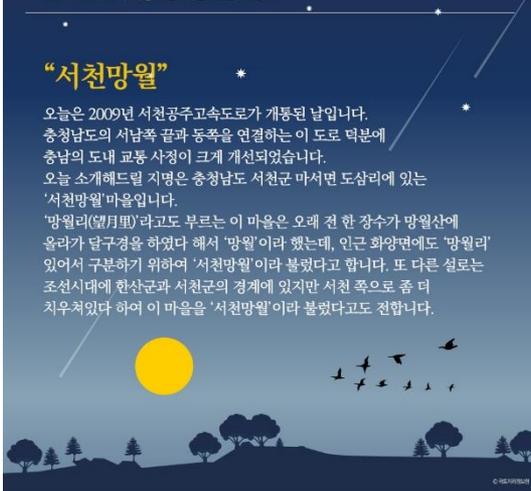


“영춘청”

5월이 다 지나가면서 봄도 이제 거의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무래도 지나친 욕심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담은 지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장암리에는 '영춘정'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옛 선인들이 긴 봄을 영유하며 살았던 곳이라는 뜻에서 '영춘정(永春亭)'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 인근에 1667년에 지어져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장암정(場巖亭)'이 조선의 양반체제가 공고화 된 16세기 이후 사족 중심의 향촌 통제책인 '동약(洞約)'의 중심기관 건물이었습니다. '동약'이란 동민들로 조직된 계모임인 동계(洞契)의 규약으로, 장암정으로 이루어질 때 이곳 영춘정도 인근의 반석정(盤石亭), 신석정(新石亭) 등과 함께 '동약(洞約)'의 단위가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지리정보원

5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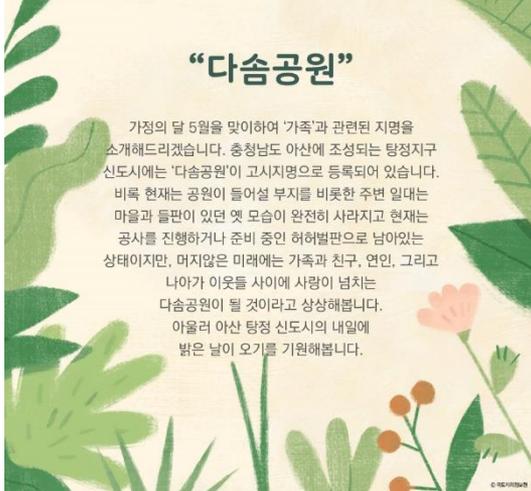


“서천망월”

오늘은 2009년 서천공주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입니다. 충청남도의 서남쪽 끝과 동쪽을 연결하는 이 도로 덕분에 충남의 도내 교통 사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명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서천망월'마을입니다. '망월리(望月里)'라고도 부르는 이 마을은 오래 전 한 장수가 망월산에 올라가 달구경을 하였다 해서 '망월'이라 했는데, 인근 화양면에도 '망월리' 있어서 구분하기 위하여 '서천망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로는 조선시대에 환산군과 서천군의 경계에 있지만 서천 쪽으로 좀 더 치우쳐있었다 하여 이 마을을 '서천망월'이라 불렀다고도 전해집니다.

© 한국지리정보원

5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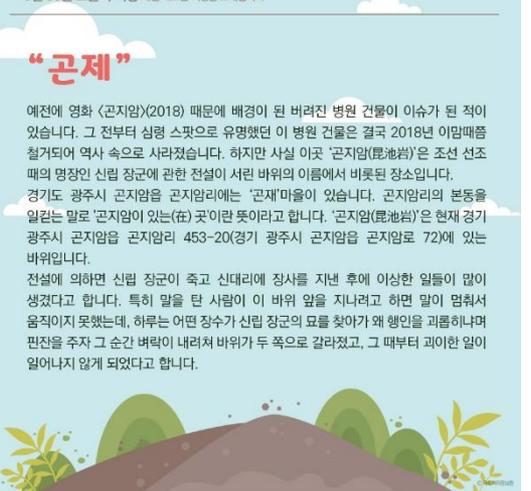


“다솜공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조성되는 탕정지구 신도시에는 '다솜공원'이 고시지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공원이 들어설 부지를 비롯한 주변 일대는 마을과 들판이 있던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인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가족과 친구, 연인, 그리고 나아가 이웃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다솜공원이 될 것이라고 상상해봅니다. 아울러 아산 탕정 신도시의 내일에 밝은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 한국지리정보원

5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곤제”

예전에 영화 <곤지암>(2018) 때문에 배경이 된 비련된 병원 건물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심령 스팟으로 유명했던 이 병원 건물은 결국 2018년 이맘때쯤 철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 '곤지암(昆池岩)'은 조선 선조 때의 명장인 신립 장군에 관한 전설이 서린 바위의 이름에서 비롯된 장소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는 '곤제'마을이 있습니다. 곤지암리의 본통을 일컫는 말로 '곤지암이 있는(在) 곳'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곤지암(昆池岩)'은 현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20(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72)에 있는 바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신립 장군이 죽고 신대리에 정사를 지낸 후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말을 탄 사람이 이 바위 앞을 지나려고 하면 말이 멈춰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하루는 어떤 장수가 신립 장군의 묘를 찾아가 왜 행인을 괴롭히느냐며 핀잔을 주자 그 순간 바위가 내려져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고, 그 때부터 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 한국지리정보원

5월 3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풍암”

그리고 보면 올해는 2002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오늘 개막전이 펼쳐지면서 지구촌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마을 뒷산에 단풍나무와 비위가 많이 있으므로 '풍암(楓岩)'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당산(304m) 북사면에 위치한 풍암동의 명소로는 아시다시피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있으며, 그밖의 명소로 '풍암저수지'도 있습니다. 풍암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를 제공하던 저수지였지만 현재는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송도”

2009년 오늘, '동막역'까지만 운행하던 인천 1호선 열차가 처음으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운행한 날입니다. 이 구간은 '송도연장선' 1단계 구간으로 밝혔습니다. 오늘은 국제업무지구역 인근에서 자주 쓰이는 '송도' 지명을 소개합니다. 고시지명 '송도'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입니다. 원래 이곳은 인천부 시민 '옥련리(玉蓮里)'였지만,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수인선(水仁線)이 개통될 때 일본인들이 역 이름을 '송도역(松島驛)'이라고 붙이고, 이곳의 이름도 '송도정(松島町, 마쓰시마초)'으로 고쳤습니다. 이제 '옥련동'이라는 이름은 다시 되찾았지만, '송도'라는 명칭은 '송도국제도시'로 이어져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옥련동' 일대를 '구송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6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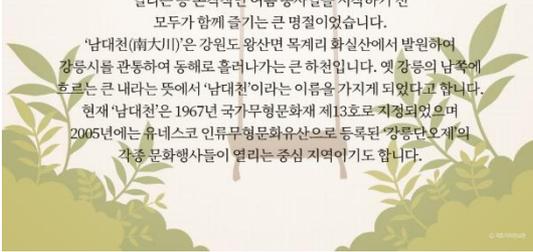
다양한 민속놀이와 함께 했던 우리의 전통 명절 단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평리에 있는 '추산' 마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곳은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마을 뒷산의 큰 소나무에 그네를 매고 '추천(鞦韆, 그네뛰기)'을 즐겼다고 하여 '추산'이라 불렀다고 하며, 다르게는 뒷산에 가래나무가 많아서 추산(楸山)이라 했다고도 합니다. '추산'마을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송아천 건너편에 펼쳐진 들판의 이름도 '추산앞들'이라 합니다.



6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남대천”

오늘은 '단오(端午)'입니다. 음력으로 5월 다섯날인 '단오'는 전통적으로 '정월 설대보름'과 '팔월 추석'과 함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였습니다. 이날은 일 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강한 날로 여겨졌으며, 마을마다 수호신에게 제를 올리고 모두가 함께 그네뛰기, 씨름, 수박화, 석전(石戰) 등이 열리며, 장터에서는 탈출이나 인형놀이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여름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 모두가 함께 즐기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남대천(南大川)'은 강원도 왕산면 목계리 화산산에서 발원하여 강릉시를 관통하여 동해로 흘러나가는 큰 하천입니다. 옛 강릉의 남쪽에 흐르는 큰 내라는 뜻에서 '남대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대천'은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강릉단오제'의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6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느티나무골”

오늘은 '단오'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느티나무골'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마을은 약 500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이어서, 이곳을 '느티나무골' 또는 '느티마을'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중앙에 있던 이 느티나무는 1790년(정조 14)에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 화성(華城)의 서까래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오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청명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해서 느티나무 동제를 지내는 단오제를 지냈다고 하며, 지금도 '영통 청명 단오제'라는 이름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오여민이공원'에 있던 이 커다란 느티나무는 2018년 침맞비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 고사(枯死)되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씨앗과 밀동 근처의 새싹을 통해 후계목을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6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당정들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급격히 도시화로 인하여 원래의 생태를 잃어버렸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을 시작한 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44번지 일대에는 '당정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광주군 동부면 지역에 속했던 한강 가운데 있던 섬으로, '당정도'나 '당정어섬' 등으로 불렸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당정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골재 채취 사업으로 섬 전체가 완전히 사라졌으나, 2000년대 들어서 퇴적작용으로 섬이 다시 복원되어 크고니 등 철새 도래지가 되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이 지역을 강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름을 공모했고 '당정들'이라는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6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동작동



오늘은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이에 국립묘지 겸 호국보훈사찰인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의 이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작동이란 이름은 조선시대에 이곳이 용산에서 수원으로 통하는 도진(澗津)의 하나였던 '동작진(銅雀津)'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덕분에 이 일대였던 '동작동'은 '동작기' 마을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국립현충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서달산(西達山)은 인근 주민들에게 산책과 휴식을 제공하는 쉼터일 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등을 품고 있는 교육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6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관자고개”

우리 조상들은 단오가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여름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에 있는 청명산에는 '관자고개'라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고개가 상당히 가파르므로 여름에 행인들이 이 고개에 오르게 되면 갓을 벗고 쉬어간다고 해서 '관자고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무더운 한낮에는 잠시 쉬어가면서 건강에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그늘리”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늘'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에는 '양덕'마을과 '선동'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햇볕(陽)의 덕(德)이라는 뜻을 가진 이 '양덕'마을과, 신선이 머문다는 뜻의 '선동(仙洞)'마을이 원래는 '그늘리'라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구한말까지만 해도 마을 입구에 무성하게 우거진 숲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어서 지나는 길손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었다고 전하며, 이때문에 '그늘리' 또는 '그늘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나무 그늘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한낮에 휴식하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며, 그들이 워낙 좋아 '신선이 쉬었다가 갈 만하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6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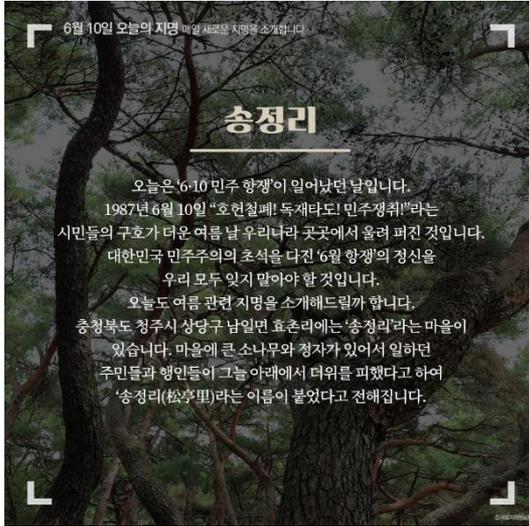
오늘은 '구강 보건의 날'이라고 합니다. 첫 영구치가 나오는 만 6세의 '6'과 구치(臼齒, 어금니)의 '9'를 합쳐서 6월 9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군 김곡면 마천리에는 '아동(牙洞)'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의 뒷산인 '큰등산'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두 개가 마치 어금니 뿌리처럼 생기고, 마을 모양이 어금니 몸통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치방'이라 하다가 차차 변하여 지금의 '아동'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6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송정리

오늘은 '6·10 민주 항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1987년 6월 10일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시민들의 구호가 터져 여름 날 우리나라 곳곳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6월 항쟁'의 정신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름 관련 지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호춘리에는 '송정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큰 소나무와 정자가 있어서 일하던 주민들과 행인들이 그늘 아래에서 떠위를 피했다고 하여 '송정리(松亭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6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질구내”

오늘은 '여름'과 관련된 지명으로, 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의 '질구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질구내' 마을은 여름철이 되면 동쪽에 있는 큰 산인 갑장산(甲長山)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는데, 여기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질병에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 마을의 이름을 '지천(智川)' 또는 '질구내'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천동(智川洞) 계곡은 지금도 갑장산의 명소로 유명하며, 산 위에는 고려 후기에 창건된 사찰인 용흥사(龍興寺)와 갑장사(甲長寺)가 있습니다.



6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남대천”

얼마 전 단오 날에는 여러분에게 강릉의 '남대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양양에도 같은 이름의 '남대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각각 '강릉 남대천'과 '양양 남대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양양 남대천'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南大川)'은 오대산과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양양 남쪽을 흘러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으로, 연어와 황어, 은어 등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양양군은 홍수 대비 등을 목적으로 남대천에 물고기들이 통과할 수 있는 어로(漁路)를 설치한 60여개의 수중보를 설치했는데, 어로가 퇴적물 등의 원인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어족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양양군은 일부 보를 철거하고 어로를 개선하는 등의 대응책을 포함하는 '양양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김대중대교

2000년 6월 13일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암해읍 북룡리와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사이를 잇는 다리에는 '김대중대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총 길이는 925m이며 폭 20m의 이 해상교량은, 두 지자체 사이에서 명칭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다가, 신안군 출신으로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故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기 위하여 두 지자체(신안-무안)를 연결하는 최초의 해상교량에 '김대중대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합의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무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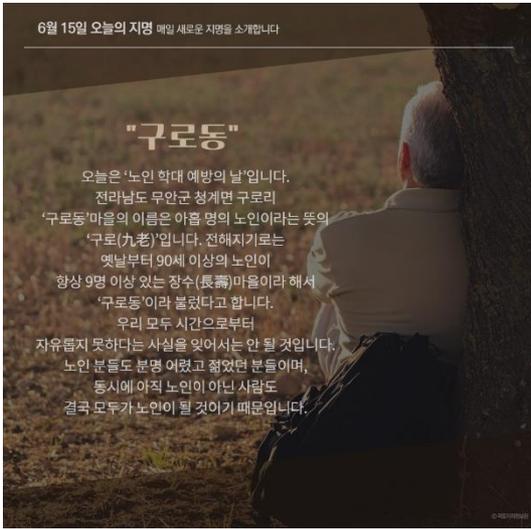
오늘은 '어름'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는 '무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약 200년 전 노장성이란 사람이 정착하면서 생성한 마을로, 당시 마을 가운데 찬 우물과 큰 정자가 있어 여름이면 이곳에서 피서를 하였다 하여 우물과 정자를 의미하여 '수정(水亭)'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의 '무징이'는 '수정', 즉 '물정'이라는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여 지금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구로동”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 '구로동'마을의 이름은 아홉 명의 노인이라는 뜻의 '구로(九老)'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부터 90세 이상의 노인이 항상 9명 이상 있는 장수(長壽)마을이라 해서 '구로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인 분들도 분명 어렸고 젊었던 분들이며, 동시에 아직 노인이 아닌 사람도 결국 모두가 노인이 될 때가 때문입니다.



6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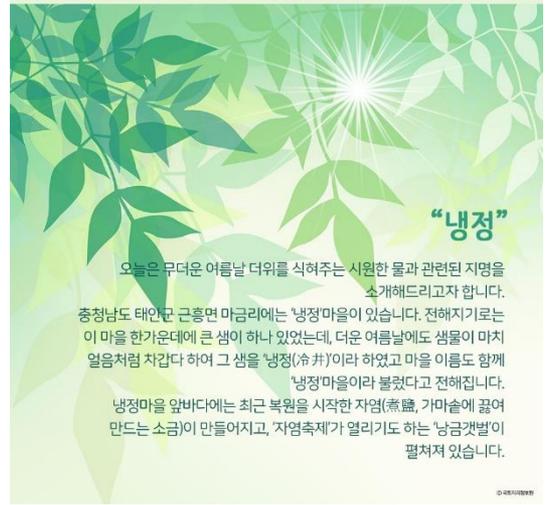
오늘은 2018년 수도권 전철 서해선의 소사-원시 구간이 개통된 날입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4호선과 수인분당선, 서해선이 교차하는 '초지역'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을 소개합니다. '초지동(草芝洞)'의 이름은 이곳이 과거 서해안의 요충지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조선시대의 군 주둔지였던 초지양명(草芝梁營)이 설치되어 있다가 효종 7년(1656년)에 군명을 강화도로 옮기면서 이곳을 1초지, 강화도를 2초차라 명명하면서 지금 '초지동' 이름의 유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설로는 이곳이 산초와 띠가 무성한 곳이라는 데서 이곳에 '초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전해집니다.



6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냉정”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물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그리에는 '냉정'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을 한가운데에 큰 샘이 하나 있었는데, 더운 여름날에도 샘물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다 하여 그 샘을 '냉정(冷井)'이라 하였고 마을 이름도 함께 '냉정'마을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냉정마을 앞바다에는 최근 복원을 시작한 자연(煮鹽, 가마솥에 끓여 만드는 소금)이 만들어지고, '자염축제가 열리기도 하는 '삼금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6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토동”

오늘은 '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황천리에 있는 '토동(土洞)' 마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황보' 마을, '황계' 마을과 함께 하동군 황천면 황천리를 구성하는 '중앙' 마을이 있습니다. 황천리의 중앙에 있는 이 마을은 '황천' 마을에서 분리되어 '토동' 마을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중앙'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토동'이라는 지명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국토 건설시 흙을 파낸 곳이라 하여 '토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편 황천리 일대에는 고인돌과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토기조각, 삼국시대의 토기 및 도자기 조각 등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황천강 일대를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이곳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굴바위굴”

오늘은 더운 여름날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에는 '굴바위굴' 또는 '굴방이굴'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곳은 산 전체가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바위가 마치 굴(굴짜기)처럼 파여 있다고 해서 붙게 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그 바위 굴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가 이 일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인근에 있던 '매뚜기마을'을 비롯하여 상징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이 마을의 옛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6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하설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름'과 관련된 지명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에 있는 '하설산(夏雪山)'입니다. 원악산 국립공원의 용하구곡 동쪽에 솟아있는 1,023m 높이의 이 산은, 이름처럼 실제로 여름에도 눈이 오지만 그만큼 이 산이 시원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 아래에 있는 용하계곡의 아홉 경승지, '용하구곡(用夏九曲)'은 경치가 아름답고 계곡물이 차갑고 맑기로 유명합니다. 이번 여름 깊고 맑은 계곡이 그렇다면 '용하구곡'의 아름다움에 한 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송정”

오늘은 24절기 중 '하지(夏至)'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에는 '송정' 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 인근에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 있어서, 여름이면 그 송림에 들어가 더위를 식혔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지'는 북반구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이 시기 낮의 길이는 서울의 경우 약 14시간 46분 정도 되며, 이 무렵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6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모라치고개”

장마는 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뜨겁고 습한 기압이 서로 만나면서 많은 비를 내리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 집중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활산리와 무왕리 사이에는 '모라치산'과 '모라치고개'가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산 아래에 모래를 몰아다 썰기 때문에, '모라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하시어, 쾌적하고 무사히 올해 장마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은동”

오늘은 6.25 전쟁 관련 지명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원창리에 있는 '대은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창리의 원래 이름은 '은척리(隱尺里)'로, 대은리의 은(隱)과 척동리의 척(尺)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은척'이 소리가 변하여 지금의 '원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지기로는 '대은(大隱)'이라는 이름은 옛날 임진왜란이나 6.25 등의 큰 전쟁이 일어날 때면, 이 마을이 주민들이 크게 숨을 수 있는 동네라고 해서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6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피앗재”

오늘은 6.25 전쟁 관련 지명인 피앗재라는 작은 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죽리신면 만수리 피앗재는 속리산 동남쪽 깊은 산골에 있던 작은 산촌입니다. 1977년 시행된 화전정리사업으로 마을 자체는 철거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피앗재 마을에 원래 세 집이 살고 있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이 오면서 네 집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별다른 이름이 없던 이 산골 마을을 그 때부터 '피앗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재화(災禍)를 피한다는 뜻의 피화(避禍)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앗재 마을은 사라졌지만, 인근 만수리 마을에 속리산에 오르는 산행객들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피앗재산장'이 있으며, 속리산과 백두대간 등산로의 중요한 지점인 피앗재라는 지명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정농(定農) [정착농원]”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한국전쟁은 실질적으로는 이미 끝났지만, 형식적으로는 아직 종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쟁의 끈을 끊기 위하여 평화로운 대일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에 있는 '정농(定農)'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 반교리 서남쪽에 있는 '정농1'라는 6.25때 이곳으로 피난 온 황해도 출신 실향민들이 정착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을 이름이 그래서 원래 마을 이름도 '정착농원(定着農園)'이었다고 하며, 현재도 벼농사와 함께 고구마, 포도, 배, 복숭아 등을 재배하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후농”

어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에 있는 '후농' 마을입니다. 완주군 반교리 '경농' 마을이 실향민들이 모여서 만든 '정착농원'에서 비롯된 것처럼, '후농'도 '후생농원(厚生農園)'을 줄인 이름입니다. 원래 이 지역에는 '돌꼭지(혹은 '돌치', '돌재)'라는 마을이 있던 지역인데, '정농' 마을처럼 한국전쟁 때 남하한 피난민들이 정착하고, 이후 후생농원 사업을 위해 사람들이 이주해오면서 지금의 '후농' 마을이 되었습니다.

6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신개촌”

그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는 '신개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남하한 피난민이 하천 옆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편 '신개촌'과 함께 '읍내리'를 구성하는 마을로 '들말'과 '오리장터'가 있습니다. '들말'은 남쪽 들편 가운데 있는 마을이어서 붙은 이름이며, 경춘선 철다리의 부근에 있는 '오리장터' 마을은 오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6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관촌역전”

오늘은 '철도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근간을 이루는 철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철도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약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의 '관촌역전(館村驛前)'입니다. 이 마을은 1931년 전라선 개통시 설치된 기차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객관(客館) 마을로, 일제강점기 일본이 기차역을 여관(旅館)의 '관(館)'과 마을(村)을 합친 '관촌역(館村驛)'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관촌역전'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촌역'은 여객과 화물 운송은 중단된 상태이며, 군사 목적의 화물 취급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소연평도”

오늘은 '제2연평해전'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순국한 장병들과 그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소개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소연평도'입니다. 소연평도는 연평도(대연평도) 남쪽 6.4km 지점에 있는 섬으로, 북한의 황해도 강령군 앞바다에 있지만 북방한계선 남쪽 대한민국 영토에 속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얼굴바위 등 기암괴석과 총식 석회암이 절경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인근 바다에서는 농어·민어·준치·우럭 등이 많이 잡히고 굴·소라 등 해류도 많아 섬의 주민은 주로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뱃사람과 황해사들에게 선박 운항을 위한 표지 역할을 하는 섬으로 유명하며, 산이 많아서 '산연평도(山延坪島)'; '역새가 많아져 '새연평도'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연안부두에서 소연평도행 여객선이 매일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호포

1999년 오늘 부산 2호선의 호포-서면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마을을 소개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어느 풍수기가 이 마을의 모양이 알드린 여우가 달을 바라보는 형상이라 하여 이른바 '복호망월형(伏狐望月形)'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마을 이름을 '여호계(여호-여우의 옛말)'라 하다가 그것이 변하여 지금의 '호포'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정산 서쪽 양산천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호포마을은 부산교통공사 호포차량기지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부산지하철 '호포역'은 부산도시철도 역들 중 부산광역시 경계 외부에 설치된 최초의 역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7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전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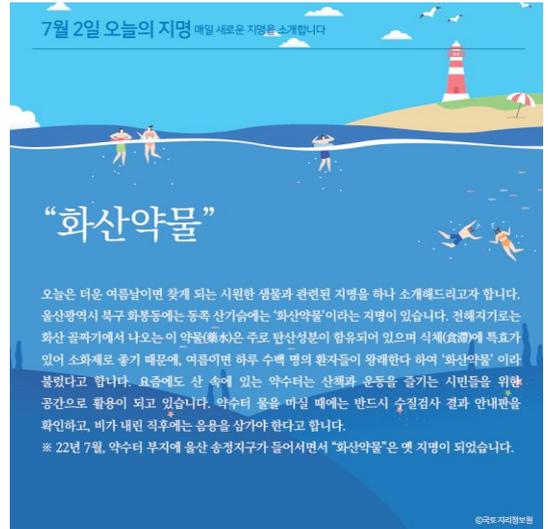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속격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에 있는 '전월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를 관통하는 금강과 면하고 있는 '전월산'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청류부곡(淸流部曲)이 있던 구을촌(仇乙村) 앞이 되므로 '구름다리'라고 하다가 한자로 '전월산(轉月山)'으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하며, 또 산의 동쪽에서 금강과 미호천의 합류하는데 이곳에서 강물이 삼태극의 형상으로 돌기 때문에 달뿔에 이 산에서 동쪽의 강을 내려다보면 강에 비친 달이 빙글빙글 돈다는 데서 '전월(轉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왕의 인녕을 기원하는 곳이었다고 하는 산 정상에 있는 '용천(龍泉)'이라는 샘물은 기우제를 지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샘물에는 돌을 매단 명주실을 넣으면 명주실이 금강으로 나온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7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산약물"

오늘은 더운 여름날이면 찾게 되는 시원한 샘물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에는 동쪽 산기슭에는 '화산약물'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화산 폭발기에서 나오는 이 약물(藥水)은 주로 탄산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재(食滯)에 효과가 있어 소화제로 좋기 때문에, 여름이면 하루 수백 명의 환자들이 왕래한다 하여 '화산약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산 속에 있는 약수터는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약수터 물을 마실 때에는 반드시 손질수가 결과 안내판을 확인하고, 비가 내린 직후에는 유충을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 22년 7월, 약수터 부지에 울산 송정저수지가 들어서면서 '화산약물'은 옛 지명이 되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7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소미기"

우리 조상들은 한여름의 힘든 농사일을 해내기 위해 소를 키워서 그 도움을 받았습다. 오늘은 '여름'과 '소'와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옥성면 금봉리에는 '소미기'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원래 이곳 산정상에서 이어지는 능선 인근에는 화전민들이 사는 '소미기' 마을이 있었는데, 이 일대에 소가 좋아하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 소를 방목하기 좋다 하여 '소미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오지마을로도 유명했던 듯하지만, 현재는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서 마을은 사라지고 대신 산책과 트래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는 숲길의 일부로서만 남아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7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약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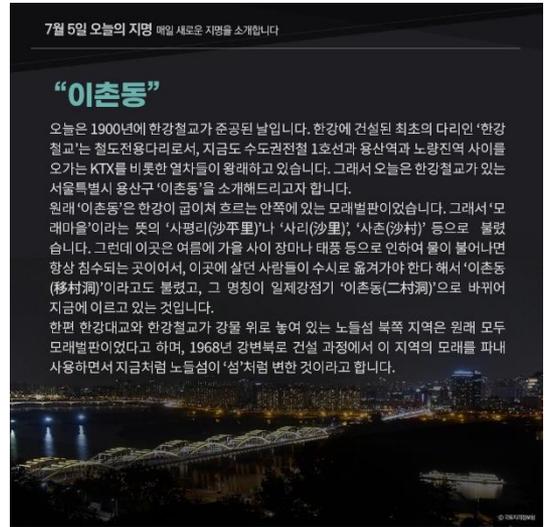
오늘은 여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에는 '약막'마을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동쪽에 있는 충주호와 심황산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마조막재'를 넘기 시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원래 지금처럼 개발되고 도로가 나기 전에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마조막재에서 작은 폭포를 이루었다가 그 아래에 있는 '약막'마을 인근 산기슭에서 용덩이를 이루면서 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조선 말엽 나병을 앓던 환자가 음막을 짓고 이 물에 몸을 담그고 마시면서 병을 고쳤다고 하여 '약막(藥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조막재의 폭포는 개발로 인하여 사라지고 없지만, '약막'마을을 흐르는 물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여름에도 물이 차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이촌동"

오늘은 1900년에 한강철교가 준공된 날입니다. 한강에 건설된 최초의 다리인 '한강철교'는 철도전용다리로서, 지금도 수도권전철 1호선과 용산역과 노량진역 사이를 오가는 KTX를 비롯한 열차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철교가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촌동'은 한강이 굽어쳐 흐르는 안쪽에 있는 모래밭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래마을'이라는 뜻의 '사평리(沙平里)'나 '사리(沙里)', '사촌(沙村)'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름에 가을 사이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물이 불어나면 항상 침수되는 곳여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수시로 옮겨가야 한다 해서 '이촌동(移村洞)'이라고도 불렀고, 그 명칭이 일제강점기 '이촌동(二村洞)'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강대교와 한강철교가 강물 위로 놓여 있는 노들섬 북쪽 지역은 원래 모두 모래밭판이었다고 하며, 1968년 강변북로 건설 과정에서 이 지역의 모래를 파내 사용하면서 지금처럼 노들섬이 '섬'처럼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7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비룡”

1970년 내일은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된 날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진행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면도 분명 있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물류와 인적 교류 측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통영대전고속도로' 및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와 만나서 갈라지는 지점에 '비룡 분기점'이 있습니다. '비룡 분기점(비룡 JC)'은 그곳 인근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비룡동(飛龍洞)'이라는 멋진 이름은 이 마을에서 보이는 산의 형세가 높은 지형에서 비룡이 승천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비룡'이라는 명칭은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을 거치는 동안 변하여 '비룡들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비룡동'에서는 선사유적 고분군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일찌감치 사람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비룡동'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마다 비룡동 경승계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7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길치고개”

1970년 오늘은 경부고속도로로 전 구간이 개통된 날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혹한 노동과 희생을 강요했다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아찔한 경부고속도로 덕분에 우리나라의 물류유통과 교통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대전광역시 인근을 지날 때 거쳤던 '(구)대전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원래 이름은 '길치터널'로, 인근의 '길치 고개'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고속도로에 '길치'라는 지명이 결합된 재미있는 이곳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동쪽 고봉산에는 '길치고개'가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회덕)에 "질현은 현 동쪽 12리에 있다."고 하여 관련 기록이 처음 등장하며, 이후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해동지도』, 『조선지리지』 등에서 질지(漆峙)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땅이 유난히 질퍽거려서 '질티고개'라고 했다고도 하고, 고개가 길다 하여 '길치고개'나 '길티고개'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7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송산리고개



어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였습니다. 그리고 1971년 아제 시작된 백제 무령왕릉의 발굴이 오늘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무령왕릉'이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의 '송산리(松山里)'는 송씨가 많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의 이름도 '송산리고개'인데,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에서 시작된 옛 무덤군이 송산리고개 너머 '교촌리 고분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과거에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현재 공주시는 시민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 일대를 '왕릉원'으로 조성했습니다.

7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유목정”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에 있는 '유목정'마을의 이름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곳은 옛날 느릅나무가 울창하여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 덕분에 오고가는 행인들이 쉬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자연이 만든 정자라고 하여 느릅나무 '유(楡)자를 써서 '유목정(楡木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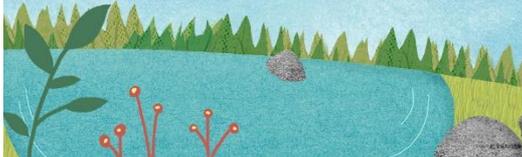
예전에는 마을 길가에 둘레 약 4m의 느릅나무 정자목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말라 죽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7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용수맥이”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없던 예전에는, 무더운 여름 날 찬물을 시원하게 끼얹어 더위를 식혀곤 했습니다. 특히 샘물이나 우물물이 차갑게 솟아나는 곳은 이와 관련한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신촌리에는 '용수맥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노성산성이 있는 노성산의 동쪽 구릉 사이에 있는 골짜기, '용수맥이골'에 있는 이 마을은 전해지기로는 아주 시원한 얼음 같은 물이 솟아 올라와 여름에 땀띠나 더위를 식혔다고 하여 '용수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구룡이 끝나는 곳부터는 노성전이 흐르고 그 너머로 다시 넘따관 평야가 이어지는 곳에 있는 이 마을은, 지금도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마을로서의 풍경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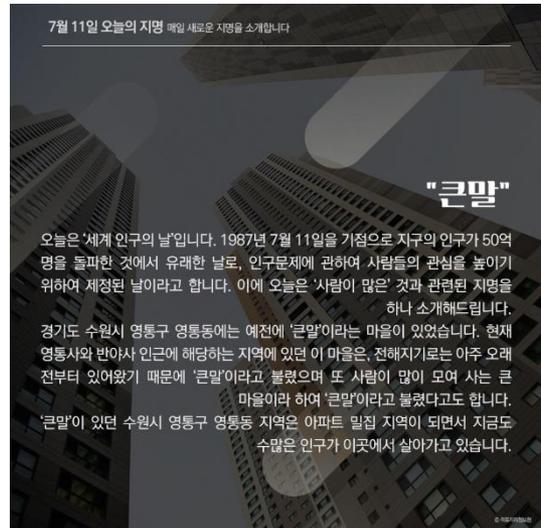


7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큰말”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지구의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에서 유래한 날로, 인구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사람이 많은' 것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는 예전에 '큰말'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현재 영통사와 반야사 인근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던 이 마을은, 전해지기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큰말'이라고 불렸으며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큰 마을이라 하여 '큰말'이라고 불렸다고도 합니다. '큰말'이 있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되면서 지금도 수많은 인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성불계곡”

오즘은 여름 피서지로 바다를 많이 찾기도 하지만, 교통이 편리하지 못했던 시절까지만 해도 피서지로 가장 각광받던 곳은 가까운 산에 있는 계곡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인근 계곡에서 여름의 더위를 식히면서 자연이 선물해주는 맑은 공기와 함께 휴식을 즐기고는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적 맑은 물이 흐르는 '성불계곡'을 소개합니다. 전남 광양시에 있는 이 계곡은 '성불사(成佛寺)'로 가는 길에 있는 계곡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성불사는 신라 말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절터를, 1960년 복원하면서 다시 일으킨 사찰이라고 합니다. 하조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오르는 방향에 있는 '성불계곡'은 비단 불고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찾는 계곡으로, 특히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7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신술”

오늘은 음력 6월 보름날로, 이제는 거의 잊혀져가고 있지만 원래 '유두'라고 부르는 명절날이었습니다. '유두(流頭)'는 '동류수두욕목(東流水頭沐浴)에서 나온 말로, 이름 그대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는 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高句麗)와 신라(新羅)에 이미 널리 퍼져있던 풍속으로(『열왕세기(列國歲時記)』), 이후 고려(高麗)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도 유두를 거르지 않고 지켜 왔으며 유두면(流頭面), 수단(水團), 건단(乾團), 상화병(香花餅) 등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덕암리에는 '신술'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하서산과 덕암산 사이로 무안천이 흐르는 좁은 평지에 있는 '신술'은, 나무와 숲이 많으며 경치가 좋아서 한여름 피서하기에 좋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오래 전 '신술'마을에서는 '유두'날이 되면 유유 흐르는 무안천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지 않았을까 한 번 상상해봅시다.



7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문수산”

1997년 내일은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한 날입니다. 울산광역시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이자 부산과 인천에 이은 제3의 항구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의 승격을 하루 먼저 기념하는 의미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문수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문수산'의 이름은 이 산에 있는 '문수사(文殊寺)'라는 사찰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신라시대 때 '연희'라는 법명을 가진 스님이 이 산에서 지혜를 관장하는 부처인 문수보살을 만나고 '문수암'이라는 암자를 창건하면서 지금의 '문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이 문수보살이 나타난 산이라고 해서 '문수산(文殊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수산'의 또 다른 이름은 '청량산(淸涼山)'입니다. 이것은 문수보살이 용왕에게서 '청량석(淸涼石)'을 가져다 우타이산(五台山)에 놓음으로써 불교의 성지가 된 청량사(淸涼寺)의 전설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중국 '우타이산'의 또 다른 이름 역시 '청량산(淸涼山)'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잠실”

오늘은 1982년 잠실야구장이 개장했던 날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스포츠 중 하나인 야구 클럽들 중 두 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잠실야구장의 정식 명칭은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이에 오늘은 잠실야구장이 있는 '잠실'이라는 지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잠실'은 송파구 잠실동에 있던 마을의 이름입니다. 조선 초 이곳에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치는 곡림양잠소격인 잠실도회(蠶室都會)를 두었던 데서 '잠실(蠶室)'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조선 말기까지 경기도 양주군 고양주면 신천리 및 잠실리였고, 1914년 고양군 독도면 잠실리로 바뀌었다가, 1949년 서울특별시 상동구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잠실동'이 되었고, 1975년 강남구, 1979년 강동구를 거쳐 1988년 송파구로 관할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7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닭이봉”

오늘은 '삼복(三伏)' 중 '초복(初伏)'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키는 '삼복더위'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옛날부터 무더운 복에는 몸을 보하기 위하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찾아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삼계탕', 즉 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명도 '닭'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에 있는 '삼계사'에는 '닭이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산 봉우리 모양이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닭이봉'은 『대동여지도』에는 '계현(雞峴, 닭고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지리지』에는 '계지(雞峙, 닭고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책에 '계산(鷄山)'이 따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책은 계현과 계산의 합을 이룬 '닭기고개'와 '달기산'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명총론』에는 '닭이산'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7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서리풀터널”

오늘은 '제헌절',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에 여러분들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그리고 대법원이 있는 서초동의 '서리풀터널'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서리풀터널'은 각종 법원과 인접해 있는 '서리풀 근린공원'을 관통하며, 동쪽 출구는 대법원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서초(瑞草)'라는 말이 순우리말 '서리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때에는 쌀을 '서화(瑞禾)'라 했는데, 옛날부터 이곳 서초동 지역에서 생산 되는 쌀을 임금님께 바쳤다는 기록을 보아 '서초'란 상서로운 풀로서의 '벼'를 뜻하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계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는 바다를 향해 솟아오른 모양이 닭 머리와 같다고 하여 계두(鷄頭)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 '계두'와 그 앞바다에 있는 섬 '백야도' 사이의 길에는 특별히 '계두수도(鷄頭水道)'라는 이름이 붙여있기도 합니다. 이 일대는 유속(流速)이 최고 1.0Kn(노트) 정도로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해역에 인접한 계두만(灣)도 파도가 잔잔한 해역이라고 합니다. 이 해역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연안에서는 꼬막이나 새조개 등의 양식업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7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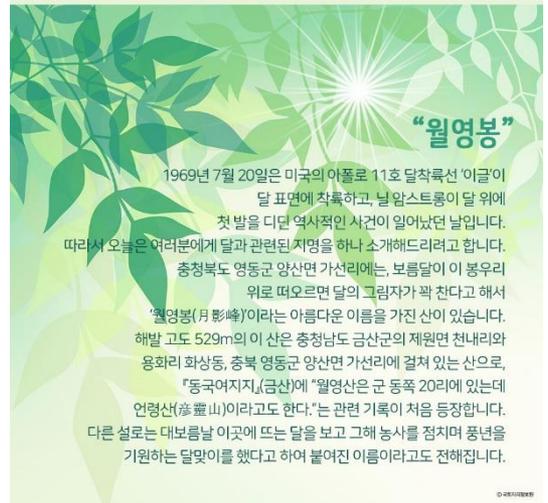
오늘은 1985년 부산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날입니다. 이에 부산지하철 1호선이 시작되는 '노포역'이 있는 '노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곳은 원래 동래군 북면 작장리(鶴掌里)와 소산리(蘇山里) 지역이었다가, 1910년 동래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동래군 북면 노포리가 되었고, 1963년 부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흡수되었다가 1966년 리제(里制) 폐지로 지금의 '노포동'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곳에 있던 자연마을인 '노포'마을의 이름은 뒷산의 형상이 높은 쥐가 들에서 노는 형국이라 하여 붙게 되었다고도 하고, 다르게는 농사가 잘되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고도 합니다. 고속버스 등을 타고 부산에 도착하게 되면,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내려서 노포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부산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7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월영봉”

1969년 7월 20일은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착륙선 '이글'이 달 표면에 착륙하고, 낱알스트롱이 달 위에 첫 발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달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에는, 보름달이 이 봉우리 위로 떠오르면 달의 그림자가 짝 찬다고 해서 '월영봉(月影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산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 529m의 이 산은 충청남도 금산군의 제원면 천내리와 용화리 화상동,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동국여지승람(금산)'에 "월영산은 군 동쪽 20리에 있는데 언형산(彦峯山)이라고도 한다."는 관련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다른 설로는 대보름날 이곳에 뜨는 달을 보고 그해 농사를 정지며 풍년을 기원하는 달맞이를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집니다.



7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괴정”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열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에 있는 '괴정'마을을 소개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여름이 되면 마을 현감이 밖으로 나와서 화나무(槐木) 밑에서 더위를 피하며 놀던 곳이라 하여 '괴정(槐亭)'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마을에 화나무가 많아서 '괴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괴정'마을은 마을 서쪽으로 쌍천이 흐르고 농경지가 많은데다가, 앞 들관 일대가 옛 집터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매우 오래 전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요풍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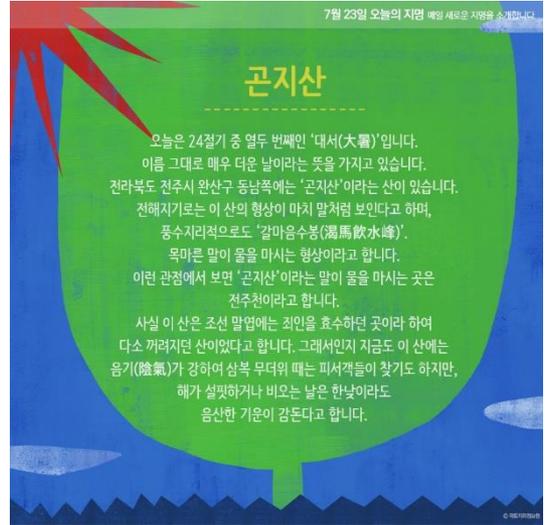
여름 더위가 견디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냉방병에 걸리게 되면 그에 못지않게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는 '요풍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강바람이 불기 때문에, 삼복더위에도 맘을 모르고 지낸다 하여 '요풍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마을은 임진강 바로 건너에 개성시가 있는 개풍군이 있기도 합니다.



7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곤지산

오늘은 24절기 중 열두 번째인 '대서(大暑)'입니다. 이름 그대로 매우 더운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동남쪽에는 '곤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산의 형상이 마치 말처럼 보인다고 하며, 풍수지리적으로도 '갈마음수봉(渴馬飲水峰)',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곤지산'이라는 말이 물을 마시는 것은 정추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산은 조선 말엽에는 최연이 효수하던 곳이라 하여 다소 꺼려지던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 산에는 음기(陰氣)가 강하여 삼복 무더위는 피서객들이 찾기도 하지만, 해가 실핏터거나 비오는 날은 한낮이라도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고 합니다.



7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냉천동”

한여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원한 물 한 잔과 함께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에는 '냉천(冷川)' 마을을 소개합니다. 전해지기로는 동네 앞 샘물이 맛이 기가 막히게 좋고 시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샘' 마을, 또는 '냉천동(冷泉洞)'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지금의 '냉천동(冷川洞)'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은 관내에서 물맛으로 으뜸가기로 유명하며, 가을에도 색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맛이 좋은 이유에 대하여 오래 전 우물을 팔 때, 맑은 날 산 위로 오색구름이 떠다니다가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생기가 감도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7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치알봉”

나라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겠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역시 '냉면'과 함께 '삼계탕'이 여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냉면에도 달걀이 들어가는 것을 떠올려본다면 여름에 가장 대표적인 식재료는 역시 '닭'이 아닐까 합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에는 '치알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풍수지리상 이 산의 형국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고시된 지명은 '치알봉'으로, '채일봉' 또는 '치알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읍 유입한 후 선진장을 거쳐 남쪽으로 유입하는 '동복천'이 이곳 '치알봉'의 서쪽 산록에서 발원합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산 아래 형성되어 있어서 '꽃모실'이라 하다가 후에 산을 의미하는 꽃이 꽃으로 와전되고 한자로 꽃 방(芳)을 사용하여 방촌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방리(芳里)'라는 고즈넉한 산촌마을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7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삼악산”

오늘은 1939년 경춘선 철도가 개통한 날입니다. 이에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에 있는 '삼악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달리 '삼학산(三鶴山)'이라고도 불리는 해발 고도 656m 높이의 '삼악산(三岳山)'은, 주봉인 용화봉과 함께 청운봉(546m)과 등선봉(632m)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불개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춘천읍지』에 따르면 "부의 서쪽 25리의 강 북쪽에 있다."고 전하며, 『대동지지』에는 "서쪽으로 35리 강 북쪽 언덕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지도』, 『청구도』, 『동여도』에도 이 산에 고성이 표기되어 있고, 인근에 '보안역(保安驛)'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성은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 국가인 '백국(百濟)'의 성터로 알려져 있으며, 보안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29개의 속역을 관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7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닭재산”

예로부터 닭은 새벽을 알리는 새, 아침 해를 부른다는 의미에서 빛을 밝히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계정리에는 닭재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오래 전 큰 흉수가 님을 때, 이곳은 닭이 한 마리 양을 만함 땅이 울며 잠기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해서 '닭재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닭재산'에서 닭만 한 금덩이가 나왔다고 해서 '닭재산'이라고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곳 닭재산은 영험한 산신령이 있는 산이어서, 성삼문(成三閭)이나 최영(崔瑩)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특히 예산 지역에서는 최영 장군의 꿈에 닭재산 산신령이 나타나 큰 도움을 줬다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닭재산'에는 최영장군을 모신 사당이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생계령”

오늘은 '삼복(三伏)' 중 '중복(中伏)'입니다.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에 해당하며, 그래서 몹시 더운 날씨를 달리 '삼복더위'라고도 말합니다. 옛날부터 무더운 복날에는 기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찾아 먹는 풍습이 지금까지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이 날에 특히 '닭'을 많이 찾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에는 '생계령(生雞嶺)'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에 자란이 이 산에서 닭 두 마리를 울게 한 뒤 묘지를 잡았다 하여 '생계령(雙鷄嶺)'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금의 '생계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7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여름 관광지(산)

태화산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에는 해발 고도 642m 높이의 '태화산'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대해산(大海山)' 혹은 '대하산(大河山)'이라고 기록된 태화산에는, '대화약수(大華藥水)'라는 유명한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은 고려 충숙왕 12년 경에 일연선사(日蓮禪師)가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장군수(將軍水)'라고도 부르는 이 샘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여언(御眼)을 치료하기 위해 이 약수를 떠다가 치료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협재”

많은 분들이 지친 일상을 달랠 수 있는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는 ‘협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여름 휴양지입니다. ‘협재(挾才)’라는 마을 이름은 재주 있는 석학자(碩學者)가 많이 배출되는 마을이란 뜻에서 지어졌다고 하며, 다르게는 뿔김으로 쓰는 나무를 뜻하는 ‘설나무’가 많아서 ‘섬재’ 또는 ‘협재’라 불렀다고도 합니다. 협재 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 단위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해수욕장 앞으로는 비양도가 있어 정감어린 풍경을 자아내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7월 3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주금산”

자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을 하는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에는 해발고도 813m 높이의 ‘주금산’이 있습니다. ‘비단산’이라는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는 ‘주금산’은, ‘여지도서’에 ‘주금산(鑄金山)은 포천현(抱川縣)의 남쪽 35리에 있고 가평 오악산에서 뻗어온 산줄기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천연수림에 계곡마다 많은 물이 흐르는 ‘주금산’에는 특히 수동천 상류의 ‘비금계곡’이 풍부한 수량과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 덕분에 여름을 피서 명소로 유명합니다.

8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울포”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름 휴양지로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보성군 최천면 울포리에 있는 ‘울포 해수욕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울포리는 원래 ‘발개’, ‘울포’, ‘포촌’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여촌 마을이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인근 장곡리, 서용리를 병합하여 울포리로 명명하고 보성군 최천면에 편입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울포’마을은 고려말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로, 마을의 이름은 이곳 지형이 높은 쥐가 밤을 주워 먹는 형국이기 때문에 붙었다고 설과, 해안에 즐비한 암석을 밤에 비유하여 밤(葉)이 굴러다니는 항구(浦)라 하여 써서 울포(栗浦)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울포항 북동쪽에는 소나무 숲 너머로 바다를 향해 넓게 펼쳐진 모래밭이 있습니다. ‘울포 해수욕장’은 여기저기 설치된 다양한 조형물과 아름다운 일몰 풍경은 관광객들의 지친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인근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울포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8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꽃지”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본격적인 재충전을 하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는 여름 피서 휴양지로 유명한 ‘꽃지해수욕장’이 있습니다. 5km에 이르는 백사장과 할미·할배바위, 그리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붉게 물든 낙조(落照)가 서로 어우러져서 경관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꽃지’라는 이름은 오래 전부터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서 붉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꽃지’ 해변의 할미바위에는 얽힌 슬픈 전설도 있습니다. 828년(홍덕왕 3년)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기점으로 하여 주둔할 당시 ‘승연(承彦)’이라는 부하가 이곳 지휘관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승연과 아내 ‘미도’는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급히 출정할 승연이 돌아오지 않자, 미도는 산에 올라 그를 기다리다 끝내 산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 산이 바위로 변한 것이 지금의 할미바위라고 합니다.

8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야산”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재충전을 하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피서지로 시원한 계곡을 가지고 있는 산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가운데 완장리에는 해발 931m 높이의 ‘대야산(大耶山)’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세상이 개벽할 때 산봉이 대용만큼 남았다 하여 대야산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대야산’에는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만들어주는 계곡이 많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3단으로 흘러내려 하트 모양의 소(沼)를 이루는 용추폭포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용추계곡과 함께 소나무, 참나무, 야생화 등 다양한 천연림으로 이루어진 대야산자연휴양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용추의 양쪽 열 바위에 신라시대 최치원이 썼다고 하는 ‘세심대’, ‘활청대’, ‘옥화대’, ‘명차석’ 등의 음각 글씨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신선이 거닐고 다녔다는 뜻의 선유동(仙遊洞) 계곡이 있습니다. 속풍 때의 학자 이재를 기려 후학들이 1906년에 세운 학원정(鶴泉亭), 용추계곡과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최치원이 썼다고 전해지는 ‘선유정(仙遊亭)’이라는 바위에 새겨진 각문, 의천왕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칠우정(七壽亭)’ 등이 있으며, 한여름에도 맑고 차가운 계곡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8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덕동계곡”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본격적인 재충전을 하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피서지로 시원한 계곡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산 남쪽 기슭 백운천 상류에는 ‘덕동계곡’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계곡이 ‘덕동리’에 있다고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서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동(德洞)’이라는 마을 이름은 이곳에 마을이 생기기도 전에 덕을 쌓으려 수양하던 도인이 있었다고 하여 ‘덕굴’이라 불렀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덕동계곡은 울창한 산림과 맑고 시원한 계곡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며,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덕동계곡이 남쪽에서 내려오다 다시 북쪽으로 꺾이는 지점에 있는 구수애에 위치한 개울 한복판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돌을 던져 바위 위에 올리는 사람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아들바위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8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모항”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번진면 도청리에는 '모항'이라는 작은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뽕(산디) 밭을 개간하여 만든 마을이라 '모항'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모항에는 바로 '모항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모항 해수욕장'은 내변산과 외변산이 마주치는 곳의 바닷가에 자연 조성된 작은 모래사장이다. 아담한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밭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시해의 다른 바닷가와와는 달리 물이 빠져도 갯벌이 되지 않고 백사장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2000년 12월에야 비로소 관광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덕분에, 이곳은 번진반도 일대에서 가장 한적한 해수욕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근에는 '국립번산자연휴양림'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8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한신계곡”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일상을 잠시 떠나 재충전하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피서지로 시원한 계곡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크고 깊은 지리산에는 '한신계곡'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한신'이라는 이름은 깊고 넓은 계곡이라는 뜻으로 붙게 된 이름이라고도 하고, 한여름에도 물에 한기를 느낀다 해서 부른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또 계곡의 물이 차갑고 심하게 굵아지는 곳이 많아 '한신'이라 부르다가 지금의 '한신'이 됐다는 이야기, 또 한신이란 사람이 농악대를 이끌고 세석으로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물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한신계곡'이 되었다는 이야기 등도 전해집니다. 한신계곡은 수많은 폭포들로도 유명합니다. 20여개의 물줄기를 자랑하며, '바람폭포'로도 불리는 '첫나들이폭포' 15m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50여평의 검푸른 소를 만들어내는 '가나소폭포' 그리고 계곡을 대표하는 이름은 기진 닷새 흥으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한신폭포' 등이 있습니다.



8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경포말”

오늘은 절경상 가을로 들어선다는 '임추(立秋)'지만 아직 햇살에서 뜨거운 기운이 가시려면 한참 일었다 싶은 8월 한여름입니다.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저동에는 '경포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경포대'가 있어 '경포말' 또는 '경포촌'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관동8경 중 하나이기도 한 '경포대(鏡浦臺)'는 경포해수욕장에 있는 누각의 이름입니다. 고려 후기에 처음 지어졌다가 지금의 호수 북쪽으로 옮겨지고, 이후 일진왜란 때 허물어졌다가 다시 지어지는 등의 부침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그 유명한 '경포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경포 해변'이 정식 명칭이며, '경포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 '안포 해수욕장', '순포 해수욕장' 등 여러 개의 해수욕장이 긴 백사장을 따라 나란히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경포 해변'은 백사장 바로 뒤로 해안도로와 산책로, 걸출물이 밀집하여 들리는 바람에 해수욕심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강릉시에서는 긴급대책과 함께 중앙기대택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아름다운 해변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8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북한산”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피서지에 제각인 시원한 계곡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의 북부를 등적하게 막아주고 있는 커다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삼각산이라고도 불리는 서울의 진산(眞山) '북한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한산(漢山)이라 불렀는데 '큰 산'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한외(汗外)'를 한자로 차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북한산'은 '한산' 북쪽 지역을 이르는 말로 쓰이다가, 이후 서울의 북쪽에 있는 한산이라 하여 지금의 '북한산'이라는 명칭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대한민국 오악(五岳)에 포함되는 명산이기도 합니다. '북한산'을 포함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깊고 푸른 숲과 함께 맑은 물이 흐르는 '송추계곡', '정릉계곡', '우이동계곡' 등이 있습니다. '북한산'뿐만 아니라 '도봉산'과 '수락산' 계곡이 있는 '수락산'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이 멀리 않은 곳에서 한여름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맑고 시원한 계곡이 산재해 있습니다.



8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육지도”

뜨거운 여름 재충전을 위한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휴양지로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앞바다에는 큰 섬 '육지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육도(鹿島)'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 '육지도'는 두미도(頭尾島)·상노대도(上老大島)·하노대도(下老大島)·우도(牛島)·연화도(蓮花島) 등 9개의 유인도와 30개의 무인도가 있는 육지면의 주도(主島)입니다. 전해지기로는 100여 년 전에 한 노승(老僧)이 시자승(侍者僧)을 데리고 연화도 상봉(上峰)에 올랐는데, 시자승이 도(道)에 대해 묻자 '육지도 관세존도(欲知觀世尊島)'라고 답하며 이 섬을 가리킨 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하며, 그 외에도 유래에 대한 설이 몇 가지 더 전해집니다. 육지도에는 덕동, 유동, 현직실, 도동, 통단, 노적해수욕장 등의 해수욕장이 바닷가를 따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덕동 해수욕장'처럼 잘 알려진 곳도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 한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해수욕장도 섬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 휴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통영시 여객선터미널에서 1일 5회, 통영시 삼덕항에서 1일 4회 정기여객선이 운항 중입니다.



8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가리산”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갈 수 있는 여름휴가 시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름 피서지로 좋은 산과 계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에는 해발 고도 1,051m의 '가리산'이 있습니다. 산 이름인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말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순우리말로서, 산봉우리가 노적기리처럼 고갈 모양으로 생긴 데서 유래했습니다. 능선은 완만한 편이나, 정상 일대는 좁은 협곡 사이에 둔 3개의 암석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면 소양호를 비롯하여 북쪽으로 향로봉에서 설악산을 거쳐 오대산으로 힘차게 뻗어나간 백두대간 등 강원 내륙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으로도 유명합니다. 1998년 문을 연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우거진 숲과 노출들이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휴양림입니다. 여기에 '용소간 폭포'를 비롯한 '작은 장구실 골짜기'와 '큰 장구실 골짜기' 등이 있어서 시원한 계곡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청량한 숲의 기운을 함께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여름 휴양지로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8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제부도”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오늘은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여름 관광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앞바다에는 '제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육지의 송고리와 제부도 사이를 건너는 갯고랑을 어린아이들은 얽고 노인들은 부속하고 건너서, 약한 이를 구하고 붙들다는 뜻의 '제약부경(濟弱扶庚)'이라는 말에서 '제부도'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부도'는 6시간마다 만조와 간조가 엇갈리면서 바닷길이 열리는 자연현상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곳의 해 지는 풍경은 '제부낙조(濟扶落照)'라 하여 화성팔경(華城八景)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 붉게 물든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제부도를 찾는 사람들의 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8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덕촌”

광복 77주년 광복절(光復節)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장담리에는 '덕촌'마을이라는 작은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마을은 풍수리적으로 마치 방알을 품고 있는 밤송이와 같다 하여 '밤방굴'이라 불렸으며, 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음동(東洞)'이라 칭하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마을은 산자락 안쪽으로 움푹 파고 들어간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6년 장담에서 '덕촌'마을로 독립할 당시, 이는 일본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덕(德)이라는 뜻에서 '덕촌(德村)'이라 명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해방촌”

광복 77주년 광복절(光復節)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는 '해방촌'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1945년경 광복 직후 이곳에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해방촌'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형성된 마을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새마을”

광복 77주년 광복절(光復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용생리는 8·15광복 후 월남한 사람들이 정착해 새로운 마을이 생겨서 '새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율생리를 비롯한 이 일대는 원래 김포평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크고 작은 여러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서 도시화 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천광리”

광복 77주년 광복절(光復節)입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을 되찾다'는 뜻에 잘 부합하는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는 '천광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건해지기로는 8·15 해방 이후 새로 생긴 맹인 집단부락으로, 하늘로부터 광명(光明)을 얻고자하는 바람으로 '천광리(天光里)'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8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해양도”

어제는 광복 77주년 광복절(光復節)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군 고이면 계상리에는 '해양도'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름에서 연상되는 것과는 다르게 섬이 아니라 내륙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8·15 해방으로 바다 건너에서 귀국한 동포 및 분이 북쪽으로는 산과 숲이 있고 남쪽으로는 동평천이 흐르는 따뜻한 양지에 주택을 지어 살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해양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8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복음촌”

며칠 전은 광복 77주년 광복절(光復節)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공리에는 ‘복음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광복 이후 전제인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는데, 전제인중 다수가 기독교 신자라 ‘복음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평택 고덕신도시 개발로 마을은 사라지고 ‘벌판만 남아 있지만, ‘복음촌길’이라는 지명을 통해 이곳에 원래 마을이 있었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8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돌장재”

며칠 전은 광복 77주년 광복절(光復節)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빛을 되찾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에는 ‘돌장재’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호조벌 서남쪽에 있는 ‘돌장재’ 고개에는 광복 직후 실랑민들이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고개 마루턱에 백석이 많아 돌장재라 불렀다고 전해지며, 300년 전 시흥시 포동(포리) 곁쪽에서 이곳 돌장재 사이에 방죽을 쌓아 농토를 만든 것이 지금의 ‘호조벌’이라고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8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유정”

오래 전부터 더운 여름날 뜨거운 한낮의 햇살을 피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조상들은 논이나 밭의 경계에 커다란 나무를 심어 경계로 삼는 동시에 햇살과 비를 피하는 휴식처로 삼아왔습니다. 오늘은 나무그늘과 관련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유정리에는 ‘유정’마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버드나무가 숲을 이룰 정도로 많이 있었다 하여 ‘유정(柳亭)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이 마을에는 버드나무가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에 인근 선비들이 봄과 여름철 더운 날이 되면 종종 이 마을의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모여 글을 지으며 놀았다고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8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풍혈”

우리나라에는 제 아무리 더운 날에도 냉장고처럼 서늘한 기운이 도는 얼음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에 있는 ‘풍혈(風穴)’을 소개합니다. ‘연천풍혈’이라고도 부르는 ‘풍혈’은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절벽 아래에 형성된 자연 동굴입니다. 동막골을 흐르는 아이천에 접해 있는 이 동굴은 깊이 16m에 높이 2.2m의 암벽 동굴로, 여름철에도 얼음이 녹지 않을 정도로 찬 공기가 불어오는데, 반면 겨울철에는 마치 히터처럼 따뜻한 바람이 부는 동굴로 유명합니다. ‘천국의 얼음골’이나 ‘풍혈은 추운 북방계 식물이나 고산식물이 자생하는 등 그 인근에 희귀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찾는 걸음이 늘면서 생태계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8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석정”

오늘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가래리에 있는 ‘석정마을’을 소개합니다. 전해지기로는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 큰 돌들이 산재해 있어서 마을 이름을 ‘석정(石亭)’이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느티나무 아래에 정자도 하나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느티나무는 지금도 여름철이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석정’마을에는 약 1625년경 건립된 ‘석곡서당(石谷書堂)’이 있습니다.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제자이자 영남 사림의 좌장이었던 한강(寒岡) 정구(鄭逵)의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서당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8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상범”

1970년 8월 22일, 석굴암의 국가 관리가 결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굴암이 있는 토함산 동쪽,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범곡리에는 ‘상범’마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범곡리’는 옛날 석굴암 근처에 사는 범이 자주 이 마을에 나타나므로 처음에는 ‘호곡(虎谷)’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범곡(凡谷)’, ‘범실’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그리고 범곡리의 위쪽마을이라 하여 ‘상범’마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석굴 사원 양식이 신라까지 이어지면서 불교의 전파 경로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8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물한”

오늘은 '처서(處暑)'입니다. 이 날은 티워가 그친다는 뜻으로, 처서가 지나고 나면 여름이 지나 티워도 점차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북서쪽 깊은 산 속에 '물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삼복더위에도 차갑게 느껴지는 물이 솟는 샘이 있어 '물한' 또는 '물한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처서가 되면 장마에 쫓겨 옷과 책을 내다 말리고,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는다 하여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벌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서를 맞아 여름 동안 목은 일들은 모두 털어내고 산뜻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이재현

8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서피동”

오늘은 여름 더위를 피한다는 뜻의 '피서(避暑)'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는 '서피동'이라는 지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악산 북서쪽 깊은 산속에 있는 이곳은 조선시대 중엽부터 말엽까지 선비들이 이곳을 피서지로 이용하였다 하여 '서피동'이라 불렀다는 설입니다.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이곳이 지름길이었어서 겨울철 '설피'를 신고 길을 뚫고 다녔다 하여 '설피골'이라 불렀으며 '설피동', '설포동', '서피동' 등으로도 함께 부른 것이 지금에 이르러 되었다고도 합니다. '서피동'이 서흥리에서 동쪽으로 산을 가로질러 넘어가는 위치에 있다 보니, 두 가지 설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8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법수동”

오늘은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법수'와 관련된 지명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는 '법수동(法水洞)'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열두개울' 입구에 있는 큰 마을인 '법수동'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천군의 국사봉과 중현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흐르므로, 불교에서 불법이 중생의 마음 속 때를 깨끗이 씻는 것을 물에 비유한 '법수(法水)'를 빌어 '법수동'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마을 남쪽의 산자락 안 '절골'에 있던 절의 이름이 '법수사'라 동네 이름도 '법수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선녀바위, 무장소, 보안소, 만장바위, 평바위, 도라소, 돌목소, 봉바위, 쌍무소, 용수굴소 등의 명소가 10리에 걸쳐 펼쳐지는 '열두개울'은, 옛날 다리가 없던 시절 법수동에서 동남쪽 덕동리로 가려면 굽이치는 개울을 따라가면서 열두 번 건너야 했다고 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열두개울'은 현재 5개의 다리가 놓이고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아직도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진:이재현

8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한정어”

한여름 삼복더위가 한창일 때는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려나 싶었는데, 어느 새 여름의 막바지가 다가오니 아찔한 새삼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오늘은 여름 관련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에는 '한정', 또는 '한정어'라고 부르는 아늑한 마을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인 이 마을은 옛날부터 돌과 돌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물맛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맑고 찬 샘물이 나오는 마을이라 하여 이곳을 '한정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 사진:이재현

8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남창골”

오늘은 여름 막바지 아직 가지 않은 더위를 달랠 수 있는 시원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는 '남창골(남창계곡)'이 있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입암산(訖岩山) 남쪽에 있는 '남창골'은 여섯 개의 골짜기가 약 3km 규모로 이어지는 '자연이 만든 워터파크'로, 울창한 숲과 풍부한 수량 덕분에 '장성 8경'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이 지역을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 사진:이재현

8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가탄”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여름 관련 지명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에는 '가탄(佳檀)' 마을이 있습니다. 동강이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다가 북쪽으로 급격하게 굽이쳐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이 마을은, 전해지기로는 여름 햇볕에 여름물이 은빛 같아서 아름다움을 비할 때 없다고 해서 '불어린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동강 여름(峯)의 가랑지리에 있어서 '가탄'이라 하다가 한자로 차용되면서 이름다들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가탄' 마을은 동강 전통의 썰다리로 유명합니다. '가탄' 마을의 주민들은 매년 늦가을에 동강을 가로질러 유지마을과 연결하는, 강물이 줄어든 겨울철에 놓던 동강의 전통 다리인 '썰다리'를 놓습니다. 이 썰다리는 과거에는 동강변 마을마다 있었지만, 현재는 가탄마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가수리는 조양강과 지창천이 합류하여 동강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인 여름치 및 멸종위기종 어류인 목נבז자루, 얼룩새고미꾸리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 분포하고 있는 생태친화적 마을이기도 합니다.



© 사진:이재현

8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원심교

멀어져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면서
오늘은 '먹감기'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에는 석곡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교량이
건설되면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 중 하나인 '분토마을'에서는
원래 이곳에 있는 보의 이름을 휘둘러오는 하천 좌측이 바위와
산비탈로 되어 있어서 먹을 감기 좋은 길이의 물이 고이는 곳이라
하여 '원심보(元深堡)'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에 2017년에 이곳 교량의
지명을 정식으로 '원심교(元深橋)'로 고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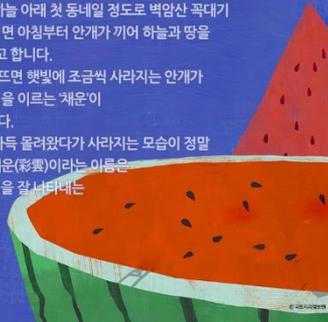


8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광복절

“채운”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에는 '채운(彩雲)'이라는 산골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거의 하늘 아래 첫 동네일 정도로 벽암산 꼭대기
가까운 곳에 있어서, 여름이면 아침부터 안개가 끼어 하늘과 땅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아침에 해가 뜨면 햇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안개가
오색찬란하다 해서, 이 광경을 이르는 '채운'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깊은 산 속 마을에 구름이 가득 물려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운 것만 같습니다. 채운(彩雲)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의 그 신비로운 풍경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8월 3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여름실”

오늘은 이름에 '여름'이 들어가는 지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에는 '여름실'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철에 이 마을을 지나는 행인들이 쉬어가기 적당한 곳에
있기 때문에 '여름실' 또는 '하곡(夏谷)'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옛날 이 마을 앞산 골짜기에 과일나무가 많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잔뜩 열리고도 해서 그곳을 '열매실', '열음실',
'여름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일본인들이 '열음(熱音)실(谷)'의 '여름'을 계절의
의미(夏)으로 착각해서 '하곡동(夏谷洞)'으로 표기했던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리뜰”

1994년 오늘 분당선 수서-오리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당시 분당선 개통을 통해
분당신도시와 서울 사이의 접근성이 다소나마 개선되었으며, 이후 수원역까지 연장되면서
현재는 '수인-분당선'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역'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마을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이 마을 앞 들뜰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아 오리га
 많이 모여 놀았다 하여 이 마을을 '오리뜰', 또는 '부평(烏坪)'이라 불렀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을에 방목장으로 하천을 따라서 오리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리뜰'이라
 불렀다는 설입니다. 예전에는 '오리뜰'의 북쪽지역을 '우말', 아래쪽을 '아랫말'이라고
 불렀으나, 이곳의 옛 모습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재는
농수산물유통단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현대적인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9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우이동”

오늘은 2017년 '우이-신설선'이 개통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오늘은
'우이동'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은 이름대로라면 '소귀마을'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에서 삼각산(북한산)을 올라다보면 봉우리 중 하나가 우이(牛耳) 즉
소귀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것을 '쇠귀봉', 또는 '우이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이름도 그 아래 있다고 해서 '우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이동'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우이동 계곡'으로 유명합니다. 서울
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이 계곡에는 너럭굴, 맷골, 문골, 소담바윗골, 율판
바윗골, 절골, 긴골 등의 골짜기 지명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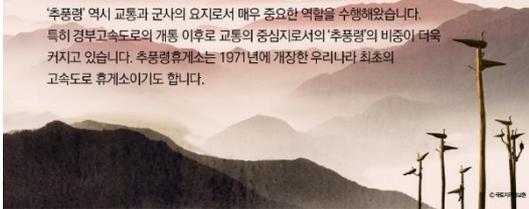
9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이제 슬슬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 산과 그 주변이 붉은 황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가을에 떨어진 단풍으로 뒤덮인 것과 같다 하여 '누른 단풍',
즉 '황단(黃丹)'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한편 '법대리(法大里)'는 예전부터 벌이 많아서 '벌매' 또는
'벌대'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하며, 다르게는
마을의 지형이 마치 벌집 같아서 붙게 된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9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추풍”

충북 영동군과 경북 김천시를 연결하는 유명한 고개에 하나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늘 소개드릴 지명은 바로 '추풍령(秋風嶺)'의 '추풍'입니다. 원래 '추풍'이라는 지명은 고려 시대부터 이곳에 설치되어있던 '추풍역(秋風驛)'이 설치되어있던 마을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추풍'이라는 명칭의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불어름의 기후가 가을바람과 같이 선선한 곳이라 하여 '추풍(秋風)'이라고 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추풍(秋風)'이 사살은 순우리말 '가파람'이나 '가파람'의 음차표기일 것이라는 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다고 해서 '추풍(秋豐)'인데 한자가 변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추풍령'은 오래 전부터 경상도와 충청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예로부터 가장 중요한 길목으로 여겨졌던 것은 물론 '조령(鳥嶺)', 즉 '문경새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추풍령' 역시 교통과 군사의 요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이후로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추풍령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추풍령휴게소는 1971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이기도 합니다.



9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추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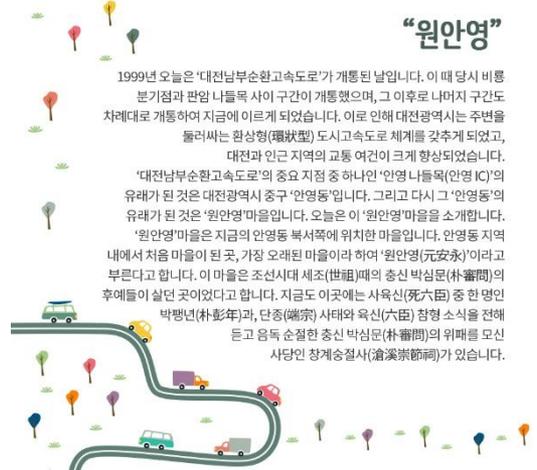
오늘은 '가을'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에는 '추도리'마을이 있습니다. '추더리', '추다리' 등으로도 부르는데 이 마을은 한자로는 '족자동(族子洞)'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 앞 드넓은 평야를 '추더리평', '추다릿밭', '추월평'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과 들반이 가을밤에 달을 보기에 좋은 곳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과 들반의 남쪽에 있는 산의 이름도 '월출산(月出山)'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이곳에서는 유독 넓게 펼쳐진 하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을밤 은은한 달빛이 하늘과 온 세상을 물들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이름들이 생겼을까 하고 한 번 상상해봅시다.



9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원안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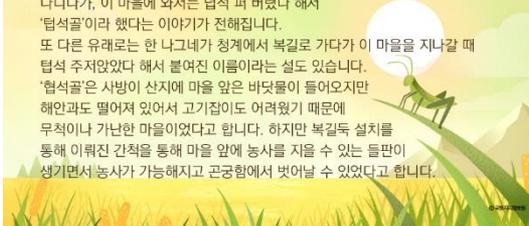
1999년 오늘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된 날입니다. 이 때 당시 비룡 분기점과 판암 나들목 사이 구간이 개통했으며, 그 이후로 나머지 구간도 차례대로 개통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 주변을 둘러싸는 환상형(環狀型) 도시고속도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대전과 인근 지역의 교통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의 중요 지점 중 하나인 '원안영(元安永)'의 유래가 된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영동'의 유래가 된 것은 '원안영'마을입니다. 오늘은 이 '원안영'마을을 소개합니다. '원안영'마을은 지금의 안영동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안영동 지역 내에서 처음 마을이 된 곳,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 하여 '원안영(元安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세조(世祖)제의 충신 박심문(朴審問)의 후예들이 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사육신(死六臣) 중 한 명인 박팽년(朴彭年)과, 단종(端宗) 사태와 육신(六臣) 참정 소식을 전해 듣고 음독 순절한 충신 박심문(朴審問)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 창계송철사(滄溪崇節祠)가 있습니다.



9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협석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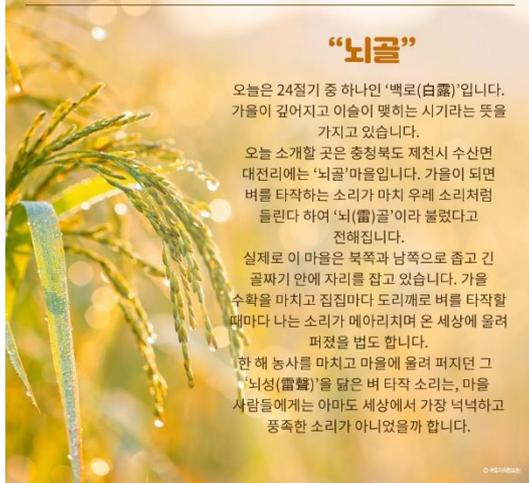
오늘은 '곤충의 날'입니다. 곤충의 환경적·영양학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습니다. 제4회 곤충의 날을 맞아 이번에는 곤충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에는 '협석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담석골'이었는데, 후에 마을이 좁은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의 '협석골'로 개칭한 것입니다. '담석골'이라는 지명은 이 마을이 바닷가에 있어 갈따구가 많아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 해변에는 갈따구가 무인보다 훨씬 많았는데, 어느 날 해변의 한 할머니가 차마다해 해변의 갈따구를 담아 곳곳에 뿌리고 다니다가, 이 마을에 와서는 담석 퍼 버렸다 해서 '담석골'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유래로는 한 나그네가 청계에서 복길로 가다가 이 마을을 지나갈 때 담석 주저앉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협석골'은 사방이 산지에 마을 앞은 바닷물이 들어오지만 해안도 떨어져 있어서 고기잡이도 어려웠기 때문에 무척이나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길읍 설치를 통해 이뤄진 간척을 통해 마을 앞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들반이 생기면서 농사가 가능해지고 곤궁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9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뇌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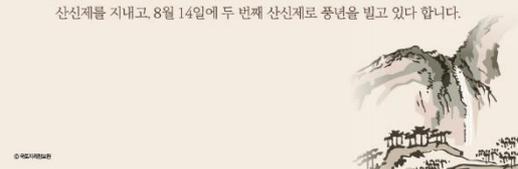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백로(白露)'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이슬이 맺히는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대전리에는 '뇌골'마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벼를 타작하는 소리가 마치 우레 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뇌(雷)골'이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북쪽과 남쪽으로 좁고 긴 골짜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을 수확을 마치고 집집마다 도리끼로 벼를 타작할 때마다 나는 소리가 메아리치며 온 세상에 울려 퍼졌을 법도 합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마을에 올라 퍼지던 그 '뇌성(雷聲)'을 담은 벼 타작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세상에 가장 넉넉하고 풍족한 소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9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제추골”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오늘은 가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에는 '제추골'이라는 골짜기와 마을이 있습니다. 미시령(彌矢嶺), 한계령(寒溪嶺), 대관령(大關嶺)과 함께 태백산맥을 넘는 중요한 고갯길인 진부령(眞富嶺)에 있는 이 마을은 깊은 산 속 가을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고대 중국의 제(齊)나라의 가을 경치는 매우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곳의 가을 경치가 그와 비유할 만하다고 해서 '제추(齊秋)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추골'을 비롯한 진부리는 현재 재래종(석청)쌀로 매우 유명하며, 그밖에도 당귀 등의 약초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매년 3월 3일에 삼월 삼산제와 산신제를 지내고, 8월 14일에 두 번째 산신제로 풍년을 빌고 있다 합니다.



9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망월산”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는 ‘망월산(望月山)’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추석이냐 정월 보름날이 되면 이 산에 올라 달맞이를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는 산봉지 봉우리 사이에서

떠오르는 보름달이 사이에 걸렸다 다시 뜨는 모습을 보고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망월산 등성에는 호랑이가 살았다고 하는 ‘범굴’이 있으며

동북쪽 봉우리에는 봉화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망월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섬과 주변 바다의 풍광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압촌”

가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늘에

떼를 이루고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와 오리 등 철새가 오가는 풍경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의 유래가 된 자연마을 ‘압촌’은,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바에 의하면, “가을이면 마을 앞 저수지에

기러기가 많이 날라와 서식하였다 하여 압촌이라 칭”한다고 합니다.

이를 더 조사해본 결과 가을마다 마을 앞 저수지인 ‘압촌제(鴨村堤)’에

청둥오리가 날아와 머문다고 하여 ‘압촌(鴨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는 이 저수지를 ‘압보(鴨保)’라고도 부르던 모양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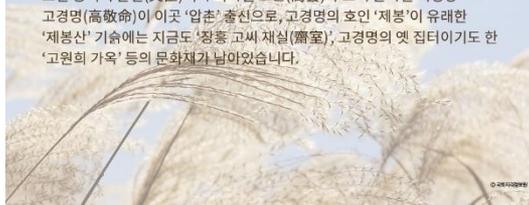
이 마을의 옛 이름 중에는 ‘압보촌(鴨保村)’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이자 화가인 고운(高雲)과 그의 손자인 의병장

고경명(高敬命)이 이곳 ‘압촌(鴨保)’ 출신으로, 고경명의 호인 ‘제봉’이 유래한

‘제봉산’ 기술에는 지금도 ‘황홀 고씨 채실(齋室)’, 고경명의 옛 집터이기도 한

‘고원회 가옥’ 등의 문화재가 남아있습니다.



9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금동”

추석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가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는 ‘금동(金洞)’마을이 있습니다. 금산사(金山寺) 뒷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마을은 마을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든

모습이 마치 한 폭의비단처럼 곱다고 해서 ‘금동(錦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산사’는 전북 최대의 사찰로 백제 시대에 창건되고, 이후 수차례 중수와 재건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산사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에 건축된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산적해 있어서,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9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중리”

오늘은 ‘한국 법원의 날’입니다.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했던

사건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법관의

출생지인 전라북도 순창군 북홍면 하리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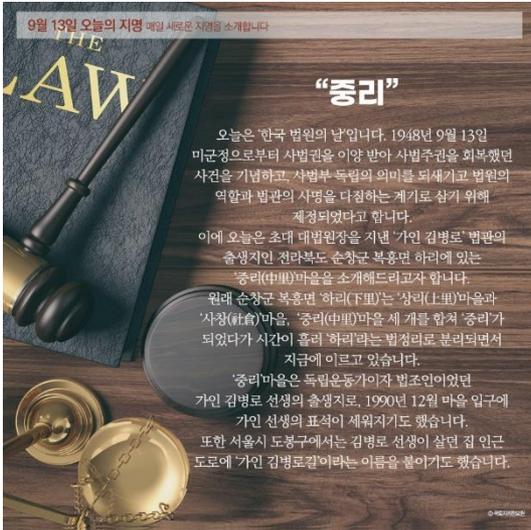
‘중리(中里)’마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순창군 북홍면 하리(下里)는 ‘상리(上里)’마을과

‘사창(倉)’마을, ‘중리(中里)’마을 세 개를 합쳐 ‘중리가

되었다가 시간이 흘러 ‘하리’라는 법정리로 분리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행단”

가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는 풍경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는 ‘행단(杏壇)’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은행

나무와 살구나무가 많아서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하며, 특히 예로부터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모습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행(杏)’은 살구나무를 이르는 한자이며, 은행(銀杏)은 열매가 은행이 도는

살구와 같다고 해서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단(杏壇)’은 글자

그대로라면 은행나무 또는 살구나무가 있는 제단 또는 은행나무나 살구나무로 만든

제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행단’이라는 단어는 관습적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현 중 한 명인 공자가 살구나무가 있던 곳에서 제자들에게

아우수업을 했던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9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연래굴”

가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봄에 찾아왔던

제비가 다 커운 새끼들과 함께 떠나고 남은 빈 둥지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에는 가을이면 제비가 갔다가 그 이듬해 봄이면 다시

온다고 하여 ‘연래(燕來)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유포리

수림마을에서 북쪽으로 산을 따라 난 깊은 산 속 골짜기를 따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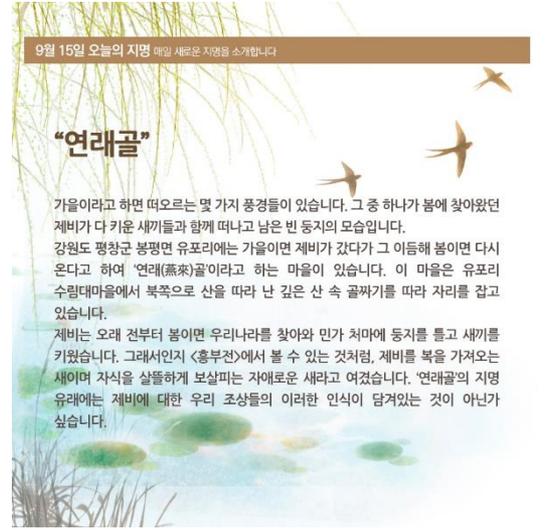
제비는 오래 전부터 봄이면 우리나라를 찾아와 민가 처마에 등지를 틀고 새끼를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홍부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비를 복을 가져오는

새이며 차식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자애로운 새라고 여겼습니다. ‘연래굴’의 지명

유래에는 제비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인식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9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추포도”

제주도와 육지 사이에는 '추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가 거느리고 있는 '추자군도(楸子群島)'에는 다시 '추포도'라는 섬이 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이 '추포도'입니다.

'추포도(秋浦島)'는 추자도에서 북동쪽으로 3.5km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113m 높이의 산지 형태의 섬이고 해안 대부분이 암석이기 때문에 동남쪽 해안 근처에 사면이 접이 들어선 게 전부인 작은 섬입니다. 현재 이 섬에 주민등록계상 2세대 6명이 인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상주하는 인구는 1가구 4명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섬은 특히 가을철이 되면 바다낚시꾼들이 추자도를 거쳐 배를 타고 찾아오는 발걸음으로 평소보다 분주해집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낚시천국”이라는 팻말이 바위에 붙어있을 정도로 가을이 아름다운 섬, 추포도입니다.

화랑터

9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청년의 날'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관한 담론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도 신라의 '화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관(花判), 선랑(仙郎), 국선(國仙), 풍월주(風月主) 등으로도 불렸던 신라의 화랑(花郎)은 성년을 앞둔 청소년들의 수련 모임인 '화랑도(花郎徒)'를 이끄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자작동에는 '화랑터'라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신라시대에 군방 청년들이 이곳에 집결하여 훈련하던 곳이라 하여, 이곳 자작동(自作洞)을 '화랑터'라고도 부른다 합니다.

한편 자작동(自作洞)이라는 이름도 스스로 가업을 일으켜 새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신라의 화랑정신이 현재의 마을 이름에도 담겨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지기”

오늘은 1899년 경인선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한 날입니다. 노면전차(트램)를 제외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을 통해 인천의 항만 운송과 철도 운송이 결합하면서 수도권 운송 체계의 구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대지기'마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마을의 정확한 명칭 유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경인선 부설 당시에 전주를 많이 심어다 쌓아놓고는 햇볕 대를 세워 놔다 하여 '대지기'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는 합니다. 현재 경인선 철도는 화물열차 및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인천-구로 구간의 노선으로 운행 중입니다.

9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미어살”

가을을 일컬어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가을걷이와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에는 '미어살'마을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이곳의 이름은 옛날부터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서 가을이면 황금들판을 이루는 마을이라 '미어살' 또는 '미살(米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꼭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더러도, 오곡과 과일이 익는 흥성한 가을과 함께 여러분 모두 풍성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9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물치도”

1875년 오늘은 '윤요호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이것은 통상조약 체결을 위해 일본 군함 윤요호가 불빛으로 강화도에 돌이와 측량을 구실로 조선 정부의 동태를 살피다, 조선 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을 말합니다. 일본제국의 본격적인 한반도 침략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에는 '물치도(勿瀝島)'라는 섬이 있습니다. 영종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이 작은 섬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붙인 이름인 작약도(芍藥島)로 줄곧 불려오다가, 2020년 본래의 이름인 '물치도'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도 그리지 못한 과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물치도' 지명 환원은 일제의 식민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태봉산”

668년 오늘을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된 날입니다. 이 전투의 패배 이후 고구려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는 태봉산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고구려 시대에 왕자의 태(胎)를 이 신에 뭍었다 하여 '태봉산(胎封山)'이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자가 달라져 지금의 '태봉산(泰峯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왕실에서는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그 태를 소중하게 취급해 전국에서 길지(吉地)를 골라 태실을 만드는 안태(安胎)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실의 주인이 왕으로 즉위하면, 태실의 내외부에 석조물을 추가하고 태실을 다시 꾸미는 태봉(胎封)을 했습니다.

이는 태(胎)를 생명의 근간으로 여기는 인식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단풍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단풍구경을 위해 산을 찾습니다. 산행은 건강과 정신적 휴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유용한 활동이지만, 부상과 사고에 유의하여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에는 '단풍이' 또는 '단풍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의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방이 온통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덕분에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이 든다하여 '단풍이' 또는 '단풍마을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단풍이는 '단풍리(丹楓里)'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9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가독”

오늘은 24절기 중 열여섯 번째인 '추분(秋分)'으로,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밤이 낮보다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에는 '가독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초목이 울창하여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웠다 하여 '가독' 또는 '가독이'라 불렀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유래는 알기 어렵습니다.

추분 즈음이면 논밭의 곡식을 모두 거두어들인느라 농촌 마을은 한창 분주해집니다. 벼농사를 추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겨우내 양식으로 삼을 산채와 나뭇을 말리는 등 총체적인 가을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9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황장곡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원면에는 정상이 한상 구름과 안개에 덮여있는 것 같다는 '운무산(雲霧山)'이 있고, 그 '운무산' 남쪽 골짜기에는 '황장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곳이 바로 이 황장곡입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산 속 깊은 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 조를 많이 심는데, 가을이면 그 이삭이 누렇게 익어서 골짜기가 온통 황색이 된다 하여 '황장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9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금평”

가을이 깊어지고 벼를 심은 들만이 누렇게 익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을 일컬어 '황금들판' 또는 '황금들판'으로 비유합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에는 '금평(金坪)' 마을은 그 비유를 아예 마을 이름으로 끌어다 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마을은 득량만 간척지 개발과 함께 생긴 마을로, 가을이면 마을 앞 들만이 황금빛으로 물든다고 해서 '금평'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을 앞의 드넓은 간척지가 모두 농토입니다. 아마 간척되기 전에는 한적한 어촌이었을 것입니다.

9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와룡산

2002년 오늘은 이른바 '개구리소녀'으로 알려진 장기실중소녀들의 유골이 발견된 날입니다. 유골 발견 당시 지역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하여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와룡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은 정상부가 움푹한 분지 형태의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화강암 지대인 반면 주변부는 단단한 변성암 지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친 침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산의 이 형태가 마치 용이 땅 위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와룡산(臥龍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상부 분지는 대구시가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와룡동”

기록에 의하면 1484년 오늘 창경궁이 준공되었습니다. '창경궁(昌慶宮)'은 성종 14년(1483년)에 세조비 정희왕후, 예종비 안순왕후, 덕종비 소혜왕후 세 명의 왕비를 위해 옛 수강궁(壽康宮) 터에 창건하여, 이듬해인 성종 15년(1485년)에 준공된 궁입니다.

오늘은 창경궁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을 소개합니다. 창덕궁(昌德宮), 돈화문(敦化門)이 있는 지대이므로, 나라의 상서(祥瑞)인 와룡(臥龍), 봉익(鳳翼)의 이름을 따서 '와룡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창경궁은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부 전각이 허물어지고 '창경원'이라는 이름의 동식물공원이 되는 차용을 겪어야 했던 궁입니다. 역사를 잊거나 왜곡하지 않고 올바르게 바라보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9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추포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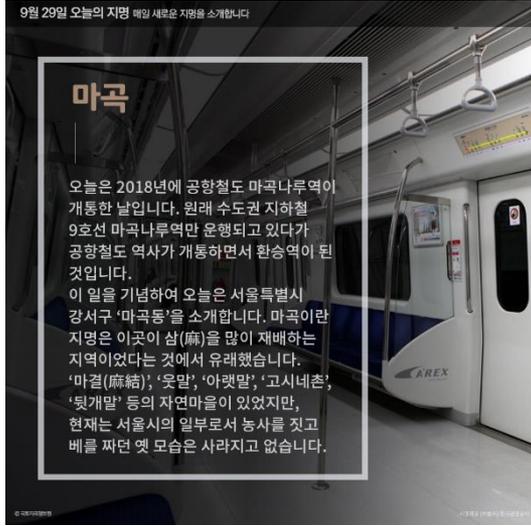
오늘은 지명에 '가을'이 들어가는 섬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추포도(秋浦島)'라는 섬이 있습니다. 원래 북쪽의 포도(浦島)와 남쪽의 추엽도(秋葉島), 동쪽의 오도(梧島) 등으로 분리된 섬이었다가, 1965년에 방조제를 쌓아 간척담(干拓壩)과 염전을 개발하면서 하나의 섬이 되었습니다. '추엽도'와 '포도'에서 글자를 하나씩 가져와서 지금의 '추포도'가 된 것입니다. 300여 년 전 추포도 주민들이 동쪽의 큰 섬인 압태도와 왕래하기 위해 갯벌에 돌을 쌓아 '노dut길'을 만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 아예 콘크리트로 길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밀을 때내 바다 밑에 잠겨서 오직 별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9일 '추포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가 개통했습니다. 정확한 추포도와 압태도 사이에 다리가 놓인 것인데, 압태도가 이미 2019년에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주민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및 지역의 특색과 상징성을 반영한 '추포대교'가 선정되었습니다.



9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마곡

오늘은 2018년에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한 날입니다. 원래 수도권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만 운행되고 있다가 공항철도 역사가 개통하면서 환승역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여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을 소개합니다. 마곡이란 지명은 이곳이 삼(麻)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마결(麻結)', '옷말', '아랫말', '고시네촌', '뒷개말'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울시의 일부로서 농사를 짓고 베를 짜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9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매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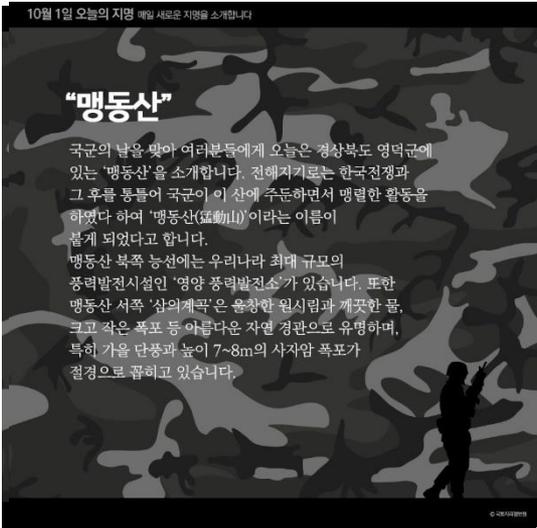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가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부산광역시 가덕도(加德島)에는 해발고도 359m의 '매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가덕도의 연대봉(459m)과 응봉산(314m) 사이에 있으며, 형태가 매의 모습을 닮았다고 비롯된 이름입니다. 매봉 남동쪽으로 누른 연곡개를 넘어면 나오는 해변에는 '누른연 벼랑'이 있습니다. 마치 깎아 만든 듯한 절벽에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이 바닷물에 비치면 누른 연못처럼 보인다하여 '누른연 벼랑'(노란연못 벼랑)이라는 이름이 붙여 졌다고 합니다.



10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맹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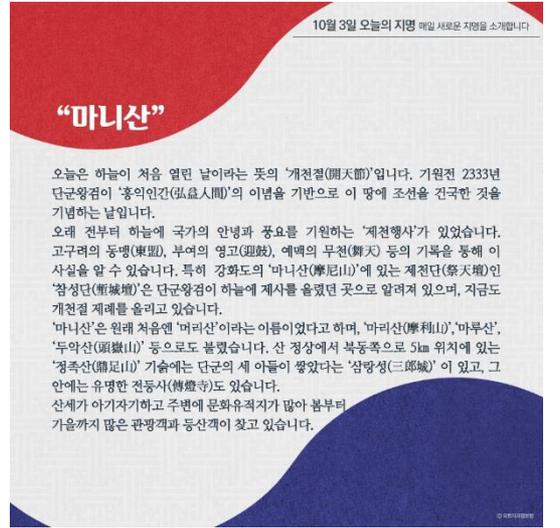
국군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맹동산'을 소개합니다. 전해지기로는 한국전쟁과 그 후를 통틀어 국군이 이산에 주둔하면서 맹렬한 활동을 하였다 하여 '맹동산(猛動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맹동산 북쪽 능선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인 '영양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또한 맹동산 서쪽 '삼의계곡'은 울창한 원시림과 깨끗한 물, 크고 작은 폭포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특히 가을 단풍과 높이 7~8m의 사자암 폭포가 절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0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영안동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노인'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에는 '영안동'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230여 년 전에 이곳은 노인들이 모여서 언제까지나 편안히 살 수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영안동(永安洞)'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입암저수지 북쪽에 있으며 사방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 않은 곳에 내장산에서 뻗어나온 크고 작은 산도 있습니다. 농사짓기에 좋고 산과 숲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도 좋은 이 마을의 입지가, 어쩌면 '영안(永安)'이라는 이름을 낳은 것은 아닐까 하고 짐작해봅니다.



“마니산”

오늘은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開天節)'입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기반으로 이 땅에 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래 전부터 하늘에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천행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맥의 무천(無天) 등의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화도의 '마니산(摩尼山)'에 있는 제천단(祭天壇)인 '참성단(壇城壇)'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개천절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니산'은 원래 처음엔 '마리산'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하며, '마리산(摩利山)', '마루산', '두약산(頭巖山)'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5km 위치에 있는 '정족산(鼎足山)' 기슭에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방성(三郞城)'이 있고, 그 안에는 유명한 전승사(傳燈寺)도 있습니다. 산세가 아기자기하고 주변에 문화유적이 많아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고 있습니다.

10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금추리”

가을이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싱그럽게 푸르던 나뭇잎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면서 울긋불긋한 색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행중리에는 ‘금추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벼가 익어서 주위가 온통 황금빛으로 변한다 해서 ‘금추(金秋)’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은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드넓게 펼쳐진 들판에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둘러보면 하늘 아래로 주변이 온통 물던 논으로 가득 펼쳐지는 것입니다. 가을 벼이삭이 누렇게 익는 시기가 되면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좀처럼 상상이 잘 안 됩니다.



10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후암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남산도서관’은 1922년 10월 5일 명동의 한성병원 부지에서 개관했던 ‘경성부립도서관’을 모체로 합니다. 1927년 중구 소공동 대관정 자리로 옮겼다가, 해방 후 1946년 9월 경성부 ‘서울시립남대문도서관’으로 개칭하고, 1964년 지금의 후암동 자리로 옮긴 후 1965년 ‘서울특별시립남산도서관’으로 개칭하고,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으로 개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산도서관’의 개관 10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남산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후암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DB에 의하면 ‘후암동’은 ‘해방 후에 이곳에 있는 ‘두텁바위(厚岩)’의 이름을 따서 후암동(厚岩洞)이라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곳에 돌고개 두꺼운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인근에서 자손이 귀한 사람들이 찾아와 그 ‘두텁바위’에 자손 연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후암동’은 그밖에 ‘전생동’, ‘전생서’, ‘전생서동’, ‘정성재’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곳에 원래 조선 초기부터 국가 제사용 소·돼지·양 등을 기르던 관청인 전생서(典牲署)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새터”

한글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제작한 문자’입니다. 소리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표기함으로써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문자입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국의 지명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지명들에는 한자어 지명과 고유어 지명,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혼합된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골’과 ‘설곡(雪谷)’처럼 같은 뜻을 가진 두 가지 지명을 따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유어 지명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다를 아닌 ‘새터’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의 ‘새터’마을이나 충북 진천군 성서리 ‘새터/신대(新垆)’마을처럼, ‘새터’라는 지명은 이곳이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10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신촌”

한글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제작한 문자’입니다. 소리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표기함으로써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문자입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국의 지명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지명들에는 한자어 지명과 고유어 지명,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혼합된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골’과 ‘설곡(雪谷)’처럼 같은 뜻을 가진 두 가지 지명을 따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 지명 중 한자어로 된 지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신촌(新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순우리말 지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학곡리 ‘신촌’마을처럼 ‘신촌’ 역시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10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양지말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제작한 문자’입니다. 소리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표기함으로써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문자입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국의 지명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지명들에는 한자어 지명과 고유어 지명,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혼합된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골’과 ‘설곡(雪谷)’처럼 같은 뜻을 가진 두 가지 지명을 따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합된 지명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명은 ‘양지말’이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적곡리 ‘양지(陽地)말’의 경우, 약 330여 년 전 마을에 처음 정착한 강씨 선조가 양지쪽에 터를 잡고 살았다 하여 ‘양지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전해집니다. ‘양지말’에서 ‘말’은 ‘마을’을 뜻하는 옛말이자 순우리말입니다.

10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옥낭각씨베짜는바위”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이 날은 한글 창제와 훈민정음의 발표를 기념하고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제작한 문자’입니다. 언어의 소리를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표기함으로써 손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문자입니다.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전국의 지명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지명들에는 한자어 지명과 고유어 지명, 그리고 한자어와 고유어가 혼합된 지명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골’과 ‘설곡(雪谷)’처럼 같은 뜻을 가진 두 가지 지명을 따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주암산’에는 있는 ‘옥낭각씨베짜는바위’를 소개합니다. 이 바위에는 바위산이 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바위 속에서 옥낭각씨가 배를 짜고 있었는데, 어떤 남성에에게 쫓겨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한편 이 바위는 임진왜란 때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죽고 돌아오지 못하자 한 여성이 그 바위에 올라 평생을 그리워해서 ‘옥녀바위’ 또는 ‘각사바위’라고 부른다는 구전도 전해집니다.



10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왕암고개”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역대 왕 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세종대왕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문주리에는 ‘왕암고개’가 있습니다. ‘왕암재’라고도 부르는 이 고개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 속리산에 행차할 당시 이 고개를 넘다가 머물렀던 곳이라서 ‘왕암고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궐터”

그저께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역대 왕 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무관 성향의 태조와 태종으로 이어지던 조선 왕실이 세종대왕 이후로 문치(文治)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정재리에는 ‘대궐터’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전에 조선 왕실의 행궁(行宮)이 있었기 때문에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행궁’은 왕이 지방에 갔을 때 머무는 건물을 말합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세종가 인근 속리사와 복천사 등에 갔다가 행궁으로 돌아와 쉬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곳이 행궁터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해줍니다.



10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시어동”

며칠 전은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의 역대 왕 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무관 성향의 태조와 태종으로 이어지던 조선 왕실이 세종대왕 이후로 문치(文治)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북 보은군과 경북 상주시에 걸쳐 서 있는 속리산에는

‘시어동(侍御洞)’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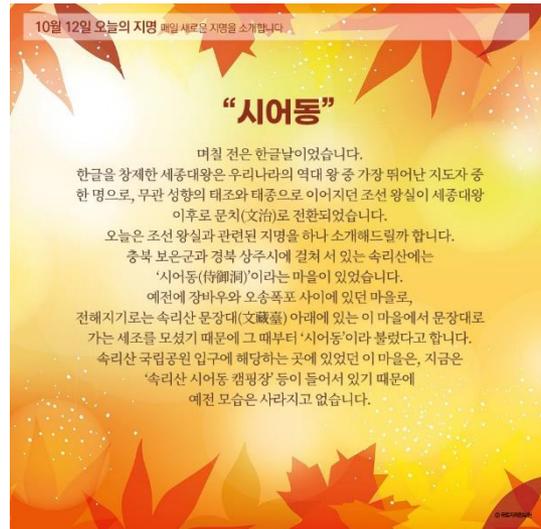
예전에 강바우와 오송폭포 사이에 있던 마을로,

전해지기로는 속리산 문장대(文藏臺) 아래에 있는 이 마을에서 문장대로 가는 세조를 모셨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어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던 이 마을은, 지금은

‘속리산 시어동 캠핑장’ 등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10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남한산성”

가을이 깊어지면서 은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한 ‘남한산성(南漢山城)’이 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주장성(耑長城)’, 고려 시대에는 ‘광주성(廣州城)’ 등으로 계속 사용되어오다가, 조선시대에 한양이 도읍이 되면서 성벽과 시설을 확충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한산성은 ‘남한산성 둘레길’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역사적 문화적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가을 단풍이 물드는 계절에는 성곽을 따라 걷는 ‘산성일주’와 함께 단풍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집니다.



10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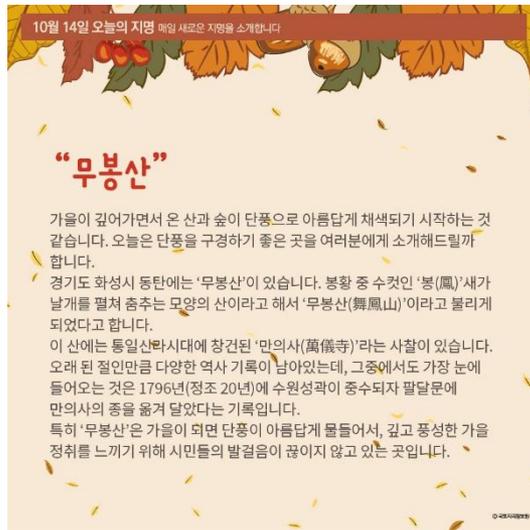
“무봉산”

가을이 깊어지면서 은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안에는 ‘무봉산’이 있습니다. 봉황 중 수컷인 ‘봉(鳳)’새가 날개를 펼쳐 춤추는 모양의 산이라고 해서 ‘무봉산(舞鳳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산에는 통일신라시대 장건된 ‘만의사(萬億寺)’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오래 된 절인만큼 다양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1796년(정조 20년)에 수원성곽이 중수되자 딸달문에 만의사의 종을 옮겨 달았다는 기록입니다.

특히 ‘무봉산’은 가을이 되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서, 깊고 풍성한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도덕산

10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은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도덕산(道德山)’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사신들이 이 산에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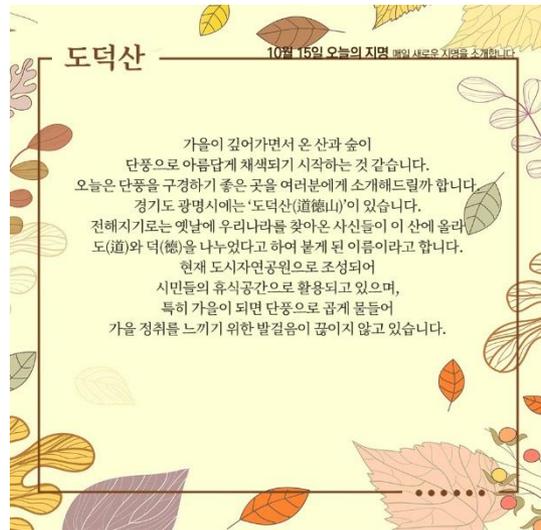
도(道)와 덕(德)을 나누었다고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곱게 물들어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주왕산”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상북도 청송군에는 '주왕산(周王山)'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산세가 웅장하고 기암괴석이 많아 '석빙산(石屏山)'이라 부르기도 하며, 깊은 계곡과 함께 가을의 단풍이 절경으로 손꼽히면서, 금강산만큼 아름답다 하여 '소금강(小金剛)'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은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여행과 트레킹을 즐기는 시민들이 가을에 즐겨 찾는 단풍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송추굴”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는 '송추굴'이 있습니다. 소나무(松)와 가래나무(椴)가 많아서 원래는 '송추(松樾)'라고 했는데, 한자가 변해서 지금은 '물이를 추(秋)'를 사용하는 '송추동(松湫洞)'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송추유원지'이기도 한 '송추굴'은 옛날부터 신선이 노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사계절 즐겨 찾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내장산”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는 '내장산(內藏山)'이 있습니다. 원래 636년(무왕 37년) 백제의 승려 영은(靈隱)이 창건한 '영은사(靈隱寺)'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靈隱山)'이라고 부르다가, 후에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많다고 해서 지금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장산'이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특히 가을철이 되면 단풍이 매우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꼽혔으며, 지금도 가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내장사(內藏寺)'를 비롯하여 금선폭포와 용수폭포, 신선로, 기림바위 등을 만날 수 있는 등산로를 찾습니다.

10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설악산”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엔 소개할 곳은 태백산맥에 위치한 '설악산(雪岳山)'입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한가위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하지가 되어서야 녹는다고 해서 '눈산', 즉 '설악(雪岳)'이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설악산'은 '설산(雪山)'이나 '설봉산(雪峯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대청봉과 소청봉, 중청봉, 화계봉 등 수많은 봉우리들이 이루는 절경은 오래 전부터 시인묵객들에게 찬사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설악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을 단풍 여행지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치악산”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횡성군과 원주시 사이에는 '치악산(雉岳山)'이 있습니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적악산(赤岳山)'으로, 붉은 단풍이 아름다운 큰 산이라는 데서 붙게 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뱀에게 먹히려던 꿩을 구해준 나그네가 그 꿩의 보은으로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에 따라 지금의 '치악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치악산은 높은 산봉우리들 사이로 가파른 계곡들이 자리해 있어서, 예로부터 산세가 이르는 풍경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그만큼 험난하기로도 이름이 높은 산입니다. 특히 원래 이름이 '적악산'일 정도로 가을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어서,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0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둔산”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시와 전라북도 원주군 사이에는 '대둔산(大鵬山)'이 있습니다. 산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 우리말 '한둔산'을 한자로 쓴 것이라는 설입니다. 산 정상부를 따라 바위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서, 바위산 또는 커다란 더미라는 의미의 '한둔산'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음차한 것이 '대둔산'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할 때 이 산에서 많은 군사가 주둔하였다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는 설입니다. 실제로 대둔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관군과 치열한 전투 끝에 많은 이들이 전사한 '대둔산 전투'가 벌어졌던 산이기도 합니다. 당시 농민군이 지세에 기대 저항을 시도할 정도로 '대둔산'은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입니다. 최고봉인 '마천대(摩天臺)'를 비롯한 '대둔산'이 가장 유명한 것은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雪景)입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인지 충청남도과 전라북도과 '대둔산 도립공원'을 각각 지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오대산

10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온 산과 숲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채색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풍을 구경하기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와 홍천군, 평창군 사이에는 '오대산(五臺山)'이 있습니다. 산의 가운데에 있는 중대(中臺)를 비롯하여 북대·남대·동대·서대가 오목하게 원을 그리고 있고, 산세가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인 연심(蓮心)과 같다 하여 오대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는 각각의 봉우리에 다섯(五)개의 암자(庵)가 있어서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오대산'에는 월정사(月精寺)와 상원사(上院寺), 중대 적멸보궁(寂滅寶宮), 북대사, 중대사, 서대사 등의 유서 깊은 사찰과 조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오대산사고지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생태계로 유명한 '오대산 국립공원'은 가을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 오면,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등산객과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특히 '울곡 이이'가 오대산 울곡의 '청학산과 계곡에 다녀가면서 남긴 『유정학산기(遊靑鶴山記)』를 통해, 이곳이 오래 전부터 빼어난 풍광으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득적동”

10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상강(霜降)'입니다. 이 날을 전후하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맘때가 되면 항상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상강'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득적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지기로는 이곳이 토지가 매우 비옥한 곳으로 늦가을 수확 절이 되면 항상 들판과 마을에 노적(露積, 곡식을 쌓은 터미)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득적동'이라는 이름은 이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갯마을”

10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농가에서 한창 가을걷이와 겨울 준비로 바쁜 늦가을입니다. 도시에 살게 된 현대인들도 한 해 동안 해온 일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두꺼운 옷과 이불을 꺼내는 등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에는 '갯마을'이라는 산촌이 있습니다. '소마평' 마을과 '큰골마을'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은 고개 위에 넓게 펼쳐진 들판에 위치한 곳이라 하여 '갯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 주민들은 마당의 흙을 쌀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갯마을'을 포함한 정선군 남면 유평리는 고병계곡, 삼내약수, '한치마을'의 노거수 등 오래된 산골마을의 정취가 잘 남아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도

10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입니다.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으며,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이기도 합니다. 동해 바다 속에서 분출한 화산성 해산(海山)으로 동도(99m)와 서도(169m)의 두 개 큰 섬, 그리고 89개의 암초와 바위 등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조선시대에 '삼봉도(三峰島)', '거지도(可支島)', '천산도(千山島)', '적산도(子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으로 불렸으나, 조선의 공식문서와 기록에는 '우산도(宇山島)'로 기록되어 19세기 말까지 내려옵니다. '독도'라는 지명은 울릉도 개척 당시 섬에 들어간 주민들이 '바위로 된 돌섬'이라는 뜻으로 '돌섬', '독섬'으로 부르다가, 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독도(獨島)'로 표기한 것입니다. 자연지명 '독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지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죽미”

10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3리에는 '죽미(竹美)'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낙동강이 죽미마을의 품 안에서 크게 굽어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 지역인 이곳 강가에는 민물고기가 많아 좋은 낚시터가 되고, '죽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근 대나무 숲 또한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을에서 바라보는 가을 경치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운치 있다고 합니다.

“양화금”

10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화려하게 물든 산을 보고 싶다면 겨울에 앞이 모두 떨어져 황량해질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남해도와 창선도 두 개의 섬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남해도 동쪽 끝에는 '양화금'이라는 항구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앞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서 봄이면 버드나무 꽃이 많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곱다 하여 '양화금'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옛날에 한 도인이 이곳을 지나면서 꾀고리가 버드나무에 튼 동지라는 뜻의 '앵소유지(鶯巢有枝)'의 형태라고 한 것에서 '버들 양(柳)' '자화 꽃(花)'을 따서, 다음으로 마을 주변을 둘러싼 4개의 산(물금산, 금미산, 임금산, 기금산, 강금산)에서 '금(金)'자를 따서 '양화금'으로 부르다가, 나중에 글자가 '비단 금(錦)'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10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교촌”

오늘은 '교정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주관으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이에 '교정(矯正)'과 관련된 지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에는 '교촌리가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조선시대에 이곳에 현방정(지금의 교도소)이 있다 하여 붙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옥전(獄前)', 또는 '옥앞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이제는 연평대가 높은 주민들만 사용하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교정(矯正)'이란 '바르게 바로잡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재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이 보편화되어서, 교정시설이 점점 더 한산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추강

10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점점 깊어가는 가을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인지리에는 '추강'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아 가을달이 강에 비치면 아름답다 하여 '추강(秋江)'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남쪽으로 '물인천'이 V자로 굽어쳐 흐르고 북쪽은 뒷산이 둥글게 비티고 서있는 '배산입수(背山臨水)'의 전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에 단풍으로 뒷산이 곱게 물들고 맑은 밤하늘을 밝게 비춰주는 달이 떠있는 이 마을의 풍경을 한 번 상상해보고 싶노라니, 어찌지 기분이 호젓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부용산”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가을이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아름다운 곳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남 보성군에는 '부용산(芙蓉山)'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보성군의 벌교를 벌교리, 척령리와 전동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고도: 193m). 봉우리 모양이 갈미(갈뚝)처럼 생겼다 하여 갈미봉이라 하였다. 동쪽 기슭에 옛 석성 터가 있다. 지형이 부용 또는 봉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부용산'이라고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박기동 시인이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추도시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의 작곡가 안성현이 곡을 붙인 가곡 <부용산>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동안 묻혀 있다가 이후 1997년 가수 안치환의 재발견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속금산”

경상남도 남해군은 남해도와 창선도 두 개의 섬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 중 하나인 남해군이라 하더라도 가을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도에 있는 '속금산'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조선시대에 풍수가 한 명이 이곳을 지나다가 '속금산'의 가을풍경을 보고는 '온 산을 비단으로 묶은 것 같다고 남긴 말이 전해지면서 '속금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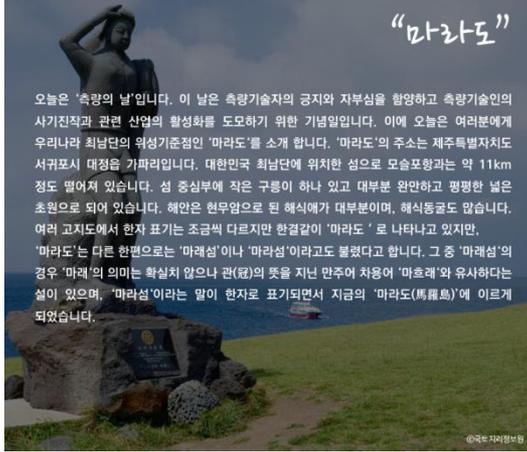
한편 속금산 동쪽에는 '곤유마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지만 어업보다는 속금산 자락에서 맥주보리 등을 재배하는 농업에 좀 더 주력하는 마을입니다. 동쪽 바다와 서쪽 속금산의 풍광이 어우러지는 '곤유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놓고 보면, 아마 '속금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어느 풍수가 지나친 마을이 이곳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11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마라도”

오늘은 '축량의 날'입니다. 이 날은 축량기술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고 축량기술인의 자기진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최남단의 위성기준점인 '마라도'를 소개 합니다. '마라도'의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모슬포항과는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섬 중심부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고 대부분 원만하고 평평한 넓은 초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은 원무암으로 된 해식애가 대부분이며, 해식동굴도 많습니다. 여러 고지대에서 한자 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결같이 '마라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마라도'는 다른 한편으로는 '마래섬'이나 '마라섬'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중 '마래섬'의 경우 '마래'의 의미는 확실치 않으나 관(冠)의 뜻을 지닌 만주어 차용어 '마흐레'와 유사하다는 설이 있으며, '마라섬'이라는 말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지금의 '마라도(馬羅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1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대추”

11월이 되면서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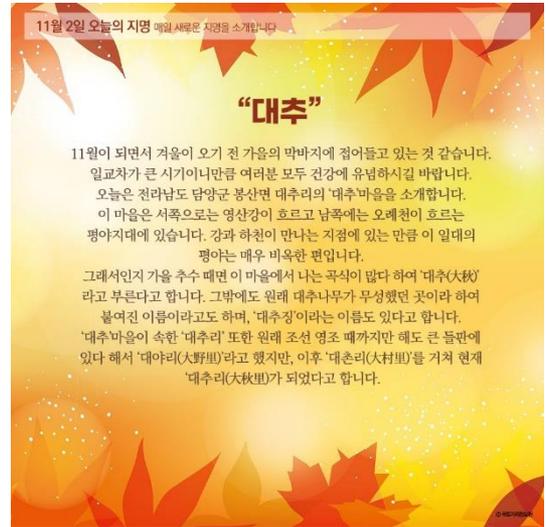
일교차가 큰 시기이니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의 '대추마을'을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서쪽으로는 영산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오례천이 흐르는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강과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만큼 이 일대의 평야는 매우 비옥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을 추수 때면 이 마을에서 나는 곡식이 많다 하여 '대추(大秋)'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원래 대추나무가 무성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며, '대추정'이라는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대추마을'이 속한 '대추리' 또한 원래 조선 영조 때까지만 해도 큰 들만에 있다 해서 '대야리(大野里)'라고 했지만, 이후 '대촌리(大村里)'를 거쳐 현재 '대추리(大秋里)'가 되었다고 합니다.



11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적상산”

오늘은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적상산(赤裳山)’입니다. 이 산은 붉은 암석 절벽이 마치 붉은(赤) 치마(裳)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적상산(赤裳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의 네 방향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있는 반면 산 정상부는 농사가 가능한 정도의 평평한 분지입니다. 이러한 지형 때문인지 정상부에는 백제시대에 처음 축조된 ‘적상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상산(裳山)’, ‘상성산(裳城山)’, 산성산(山城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에 ‘붉은’이 들어가서 그린지, ‘적상산’은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밖에도 산 정상부에는 코리 말 또는 조선 초에 창건된 ‘안사(安善寺)’,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史館)’의 옛터, 그리고 무주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만든 ‘적상호’라는 산정호수도 있습니다. 이곳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명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1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창골”

가을의 또 다른 이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가을 추수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합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에 ‘창골’마을이 있었습니다. 일단 ‘야동동(冶洞洞)’이라는 지명은 원래 이곳에 풀뚫간(대장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던 ‘풀무골’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써서 ‘야동(冶洞)’이라고 했던 것에서 유래했으며, ‘야동리’를 거쳐 지금의 ‘야동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야동동’에는 ‘창골’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개성에서 온 한 부자(富翁)가 이곳에 곡식을 쌓아두는 큰 창고를 두었다 해서 ‘창(倉)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경의선 철도 개설과 일제강점기, 해방에 이어 발생한 한국전쟁과 분단, 주한미군의 주둔과 이전 및 철수,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의 주거지와 신도시 설치 문제 등 한국 근대사의 온갖 부침을 모두 겪어낸 도시입니다. 이후에 도래할 평화통일 시대에 파주시가 한반도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발전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1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남가좌동”

1905년 오늘은 ‘경의선(京義線)’이 개통한 날입니다. ‘경의선’은 서울과 평안북도 신의주 사이에 부설된 철도입니다. 신의주에서 압록강철교를 통해 만주로 연결됩니다. 이에 오늘은 경의선 ‘가좌역’이 있는 ‘남가좌동(南加佐洞)’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가제가 많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여 ‘가제골’이라고 하던 것이 한자음으로 가좌리라고 하다가 가좌동이 되었으며, 이곳 ‘남가좌동’은 가제를 남쪽에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경의선’은 현재 끝단으로 인하여 서울역-문산역 사이 구간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된다면, ‘경의선’은 남북 경제교류와 함께 중국 및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연결되는 물류유통경로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11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숯골”

가을건지도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입니다. 농가에서는 한 해 중 이맘때만큼 마음이 넉넉한 시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문야면 북지리에는 ‘숯골’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원래는 내성천을 따라 마을 인근의 들만이 넓고 비옥하여 이 마을을 ‘화곡(禾谷)’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비가 추수된 모양이 보기 좋아서 ‘벼이삭 수(穗)’를 쓰는 ‘수곡(穗谷)’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숯골’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아져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 ‘북지리’ 일대에는 신라시대의 ‘한절’이라는 대사찰이 있었고, 부근에 27개의 사찰이 있어 500여 명의 승려들이 수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숯골’마을에서 서쪽 내성천을 건너면 자연암벽을 파내 불상이 들어앉을 거대한 방모양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높이 4.3m의 마애불을 새긴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奉化 北枝里 磨崖如來坐像, 국보 제201호)’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천복터”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입동(立冬)’입니다. 이 날은 겨울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추위되기 전에 가을김치를 끓여두고 겨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완남면 상노리에는 ‘천복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 이 마을에 추수 때면 수천 석을 수확하는 천부 성을 가진 부자가 살았다 하여 ‘천복터’라 부른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 ‘천복터’에는 조선 초기의 흥신자 효자로 이름 높은 무신인 ‘남연년(南延年)’을 기리는 ‘남연년흥신각(음성군 향토문화재)’이 있습니다.

11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행정”

요즘에는 가을 하면 떠오르는 풍경 중에는 길 양편이 노란 은행잎으로 가득 물든 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많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행나무의 정화기능이 탁월하고, 도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병충해에 잘 걸리지 않아 가로수 역할에 제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행정’마을은 마을 뒤에 약 200년 정도 된 오래 된 은행나무와 정자가 있다 하여 ‘은행정’, ‘오능정’ 등으로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합할 때 ‘행정(杏亭)’이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마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오래 된 은행나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령이 매우 긴 편인데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름에는 넓고 짙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는 식용 및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11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단광촌”

‘단풍(丹楓)’은 가을에 나뭇잎이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자연현상인 동시에, ‘단풍나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풍나무’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는 ‘단광’마을과 ‘가작’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단광’마을은 마을 주위에 단풍나무가 많아서 가을이 되면 단풍 빛이 곱게 물들어 경관이 좋은 곳이라 하여 ‘단광(丹光)마을’, ‘단광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아담한 농촌인 ‘단광’마을은 산과 산 사이 골짜기의 평평한 곳에 있기 때문에, 가을이면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드는 풍경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편 ‘가작(加作)마을도 ‘단광’방쪽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바깥단광’마을이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상암동”

오늘은 2001년 ‘서울월드컵경기장’이 개장했던 날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지명인 ‘상암동’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上岩洞)’의 이름은 원래 이곳에 있던 ‘수상리(水上里)’와 ‘휴암리(休岩里)’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붙여 만든 것입니다. 1949년 서울특별시에서 편입되었고, 1950년에 지금의 ‘상암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75년에는 시대문구에서 마포구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수상리’는 ‘물차’, ‘물위차’, ‘수색(水色)’, ‘수생리’라고 불리던 마을이었습니다. 수색 앞에 있던 넓은 들 건너편에 있던 마을로, 장마 때면 한강물이 이곳까지 넘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휴암동’은 마을 근처에 부영이 모양의 바위가 있어 ‘부영바위굴’이라 부르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짐작컨대 ‘부영바위’를 ‘효암(鰲岩)’으로 쓰다가 나중에 글자와 소리가 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논산평야”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의 위상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된 날입니다.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농민이 흙과 가깝다는 점에서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을 상징했고, 한자 11(十一)을 합치면 흙(土)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가 되면 농업인들이 가을걷이를 거의 끝내고 휴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논산평야(論山平野)’는 차령산맥 동남부의 금강 하류에 펼쳐진 평야로, 차령산맥 북부의 내포평야(內浦平野)와 더불어 충청남도의 양대 평야를 이루는 곡창지대입니다.

차령산맥(車嶺山脈)이 북쪽을 막아주므로 기후가 온난하고 연강수량도 1,200~1,300 mm 정도의 다우지대이므로 각종 농산물 생산하는 주요 곡창지대를 이루며, 경지 면적 중 논 비중이 70% 이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화지미”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올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늦가을과 관련된 지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는 ‘화지미’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약 100년 전 박토에 목화밭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생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늦가을이 되면 눈송이처럼 흰 목화가 만개해서 ‘화전(花田)’이라고 불렀고, 이후 소리가 변해서 ‘화지미’라고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마을은 생긴 지 약 100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주시에 있는 다른 마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마을에 속한다고 합니다.

‘천년고도(千年古都)’라는 경주시의 별칭이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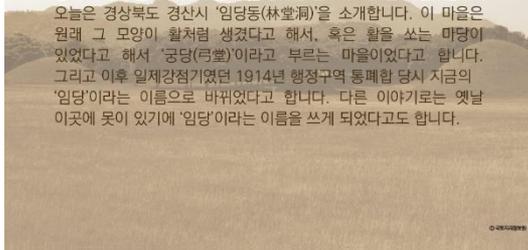


11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임당”

1982년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일대에서 10여 기의 고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후에 ‘경산임당동고분군’으로 명명된 이 고분군에서, 당시 영남대학교 발굴팀은 국보급 가야식 금동관 등을 발굴하면서 삼국시대 초기의 신라를 구성하는 ‘암독국’ 등 소국의 문화, 그리고 당시 가야와 신라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林堂洞)’을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원래 그 모양이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혹은 활을 쓰는 마당이 있었다고 해서 ‘궁당(弓堂)’이라고 부르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지금의 ‘임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옛날 이곳에 못이 있기에 ‘임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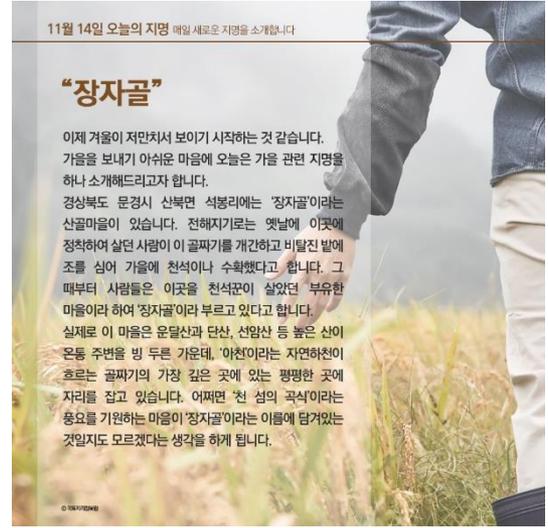
11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장자굴”

이제 겨울이 저만치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을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가을 관련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에는 ‘장자굴’이라는 산골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옛날에 이곳에 정착하여 살던 사람이 이 골짜기를 개간하고 비탈진 밭에 조를 심어 가을에 천석이나 수확했다고 합니다. 그 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천석굴이 삼았던 부유한 마을이라 하여 ‘장자굴’이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은 윤달산과 단산, 선암산 등 높은 산이 온통 주변을 빙 두른 가운데, ‘아천’이라는 자연천이 흐르는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 석의 곡식이라는 용어를 기원하는 마을이 ‘장자굴’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1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하안리”

1989년 오늘 '하안대교'가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구로구 독산동과 광명시 하안동을 잇는 이 다리는 인접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후에 지금의 서울시 금천구 지역에 속하게 되면서 '금천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을 소개합니다. '하안동'의 유래가 된 '하안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이곳에 있던 '하평리(下平里)'와 '안현리(安峴里)'가 있었는데 합쳐지면서 지금의 '하안리'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금정수들이 소금을 팔러 한양에 있는 지금의 '염창동(鹽倉洞)'으로 갈 때, 도덕산과 구름산 사이로 난 한치고개에 도달하면 한 술 둘러면서 마을을 내려다 보며 안도감을 갖는다 해서 '하안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입니다.



11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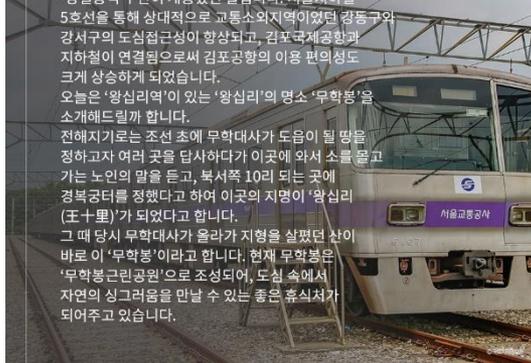
“무학봉”

1995년 어제는 서울지하철 5호선이 왕십리역-상일동역 구간이 개통했던 날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교통소외지역이었던 강동구인 강서구의 도심접근성이 향상되고, 김포국제공항과 지하철이 연결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왕십리역'이 있는 '왕십리'의 명소 '무학봉'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조선 초에 무학대사가 도읍이 될 땅을 정하고자 여러 곳을 듣고, 북서쪽 10리 되는 곳에 경복궁터를 정했다고 하여 이곳의 지명이 '왕십리(王十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 무학대사가 올라가 지명을 살폈던 산이 바로 '무학봉'이라고 합니다. 현재 무학봉은 '무학봉그린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 속에서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외앗골”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유공자들 가운데 일신(一身)과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殉國先烈)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업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이에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덕동'마을 서쪽에 있는 '외앗골'이라는 골짜기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오얏골', '이문(李門)', '이동(李洞)'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골짜기는 오얏나무(자두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이 운신 또는 수양하기 위해 머무는 동안 그곳에 오얏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외앗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편 지리산 북서부의 깊은 산 속에 있는 '덕동(德洞)'마을은 예전에는 외지인이 종종 찾아가기 힘들 오지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마을 앞을 지나는 지방도로가 잘 정비되면서 자연 속 휴식을 위한 휴양지들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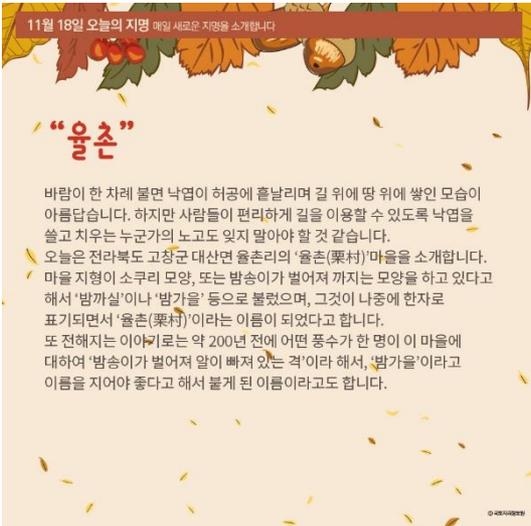


11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울촌”

바람이 한 차례 불면 낙엽이 허공에 흩날리며 길 위에 땅 위에 쌓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편리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낙엽을 쓸고 치우는 누군가의 노고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고창군 대신면 울촌리의 '울촌(栗村)'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지명이 소쿠리 모양, 또는 밤송이가 벌어져 까지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밤까살'이나 '밤가을' 등으로 불렸으며, 그것이 나중에 한자로 표기되면서 '울촌(栗村)'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약 200년 전에 어떤 풍수가 한 명이 이 마을에 대하여 '밤송이가 벌어져 알이 빠져 있는 격'이라 해서, '밤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붙게 된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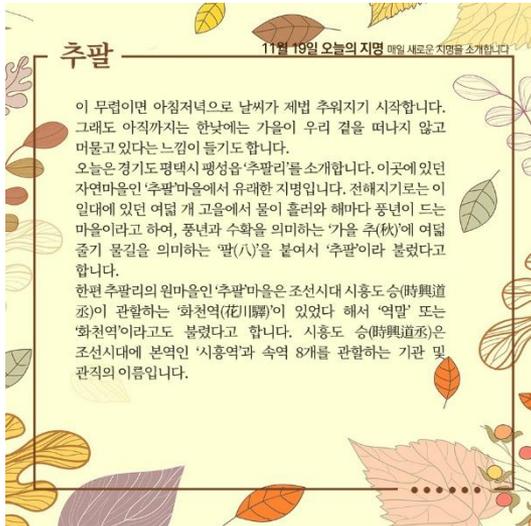
추팔

11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이 무렵이면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낮에는 가을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추팔리'를 소개합니다. 이곳에 있던 자연마을인 '추팔'마을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일대에 있던 여덟 개 고을에서 물이 흘러와 해마다 풍년이 드는 마을이라고 하여, 풍년과 수확을 의미하는 '가을 추(秋)'에 여덟 줄기 물길을 의미하는 '팔(八)'을 붙여서 '추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추팔리의 원마을인 '추팔'마을은 조선시대 시흥도승(時興道丞)이 관할하는 '화천역(花川驛)'이 있었다 해서 '역말' 또는 '화천역'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시흥도 승(時興道丞)은 조선시대에 본역인 '시흥역'과 속역 8개를 관할하는 기관 및 관직의 이름입니다.



11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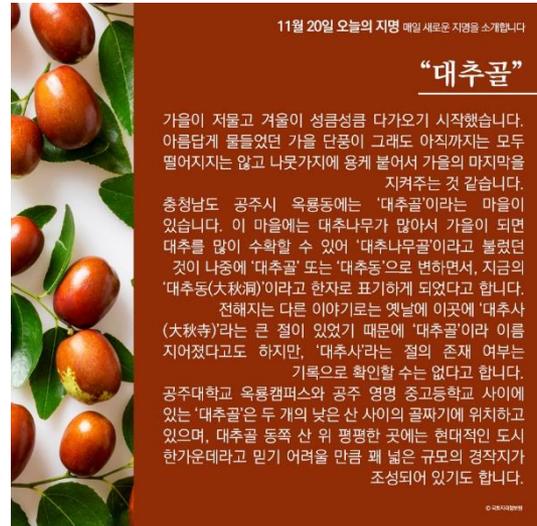
“대추골”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물들었던 가을 단풍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행이네요. 옹골 붙어서 가을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에는 '대추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추나무가 많아서 가을이 되면 대추를 많이 수확할 수 있어 '대추나무골'이라고 불렀던 것이 나중에 '대추골' 또는 '대추동'으로 변하면서, 지금의 '대추동(大秋洞)'이라고 한자로 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다른 이야기로는 옛날에 이곳에 '대추사(大秋寺)'라는 큰 절이 있었기 때문에 '대추골'이라 이름 지어졌다고도 하지만, '대추사'라는 절의 존재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와 공주 영명 중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대추골'은 두 개의 낮은 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추골 동쪽 산 위 평평한 곳에는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라고 믿기 어려운 만큼 꽤 넓은 규모의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11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성산동”

오늘은 세계인의 축제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월드컵 경기는 6월에 개최해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린 월드컵인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도 남반구에서는 겨울인 6월경에 개최했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 대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월드컵을 맞이하여,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성산동(城山洞)'이라는 지명은 이곳에 성처럼 생긴 '성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말로 '성애', '성미'로 부르던 것이 한자로 옮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그밖에 '뫼들', '우리울', '풀무골', '안골', '새말'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 ▶ 한편 '성산'은 현재 '성산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산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풍곡”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소설(小雪)'입니다. 이때부터 살얼음이 생기고 땅이 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맘때는 대체로 날이 차갑고 세찬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뱃길을 조심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소설'은 한편으로는 아직 따뜻한 햇볕이 간간히 내리쬐어 '소춘(小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楓谷里)'를 소개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오래전에는 이 지역이 단풍나무를 비롯한 활엽수가 많아서 가을에 특히 경관이 좋은 마을이라는 뜻으로 '풍(楓)골(谷)'이라 부르며 '풍곡리'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곳은 북쪽으로 한강이 흐르는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했으며, 한강에서 만물고기를 잡는 어업도 병행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최근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신곡리는 옛 모습을 모두 상실해버렸지만, 풍곡리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되면서 그대로 아직까지는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흑두지”

역시 한국인에게 '밥'은 정말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을김'이라고 하면 보통 농부가 한 해 동안 경성껏 일꾼은 벼농사를 수확해 쌀을 거둬들이는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에는 '흑두지'로 지명이 고시되어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외사리 일대는 '송말천이 가로지르는 넓따란 평야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매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곳의 토질이 진흙이어서 가을에 추수하면 흙으로 만든 두지에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흑두지', 또는 '토두동(土頭洞)'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지'는 아마 '뒤주'의 방언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뒤주'는 일반적인 작은 귀(甔) 형태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독집형'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양 지역 대동가에서는 속칭 '나락밭'이라 부르는 작은 창고 형태의 뒤주가 나뉘었다고 하며, 외사리의 '흑두지' 또한 진흙으로 만든 뒤주를 뜻합니다.

11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밤가시”

가을의 즐거움 중 하나가 구워먹거나 삶아먹는 '밤' 같은 가을 먹거리가 아닐까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는 '밤가시'라는 지명이 남아 있으며, 이것은 원래 이곳에 오래 전부터 자라를 잡고 있던 '밤가시'마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마을은 조선 중기에 발견된 '고양군지'에는 '율악부곡(栗岳部曲)'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예전에 이 마을에 밤나무가 울창해서, 가을이면 밤송이가 산길이나 길가에 널려 있어서 '밤가시', '율동(栗洞)'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좋은 밤의 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지(三國志)', 위지 등이전 마한조(馬韓條)에는 마한에서 굶기가 배만한 밤이 난다고 되어 있고, '후한서(後漢書)'에도 마한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큰 밤을 생산하는데 굶기가 배만하다고 쓰여 있는 등, 수많은 역사서 등에 우리나라의 밤이 크고 좋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황금재”

이제는 사실상 가을과 겨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 가을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마음과 함께 가을에 관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안좌도에 있는 '매봉산'에는 '황금재'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가을에 이 고개 너머 작은 들뜰에서 키운 곡식이 익으면 고개 위에서 볼 때 황금빛 물결이 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고개의 이름이 '황금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안좌도'는 동쪽의 안창도(安昌島)와 서쪽의 기좌도(基佐島)라는 섬이 간척사업에 의하여 연결되고 하나의 섬이 되면서, 원래 있던 두 섬의 이름을 따서 안좌도라 부르게 된 섬입니다. 이 간척사업 덕분에 '황금재' 주변의 벌판도 옛날보다 훨씬 광활하게 변했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성당못”

1997년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1단계 전철역-중앙로역 구간이 개통한 날입니다. 당시 구간에는 '성당못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성당못역'은 2019년부터는 '서부정류장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행 중입니다.

오늘은 '성당못역'의 이름이 유래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던 '성당못'을 소개해드립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성당이 못, 성당지) 성당동(聖堂洞)에 있다. 동쪽에 있는 못, 조선 때 팔성당이 있었는데 헐리고 그 후 판관(判官) 김로(金路)가 못을 파다 한다. 현재도 사래문자리가 남아 있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원래 이곳은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채씨' 성을 가진 편씨가 사는 집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풍(나라의 풍수) 한 명이 이곳을 보고는 정차 임금이 나와 명당이라 하여, 집을 없애고 땅을 파 물이 채워서 연못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백추"

가을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겨울이 와야만 다시 봄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을을 떠나보내면서 오늘은 남해 먼 바다 '거문도(巨文島)'에 있는 '백추(白秋)'라는 지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거문도는 서도(西道)와 고도(孤島), 동도(東島)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서도'의 남쪽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에 있는 '백추'라는 지명이 국토지리정보원 지명DB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명DB의 유래에 따르면 '해안의 물과 돌이 희어서 가을에는 눈빛 같아 하여, 백추라 칭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곳이 희어진 자갈이 깔린 해안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부딪힌 하얀 포말이 겹치는 장소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1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명량"

1970년 오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 원 주화가 최초로 발행되었습니다. 지름 24mm, 무게 5.42g에 백동 재질로 만들어진 통니 110개의 이원형 주화의 정식 명칭은 '백원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도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 원 주화 발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충무공이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명량'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명량(鳴梁)'은 '명량해협'의 이름입니다. 이곳 알바다에 흐르는 조수의 격렬한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嗚)처럼 들린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이곳의 다른 이름인 '울돌목'이 입초에 부딪혀 나는 소리가 매우 커 바위가 우는 것 같다고 한 데서 유래한 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곳 '명량 해협'은 물살이 빠르고 겨울기로 유명했습니다. 현재도 이 물길은 우리나라에서 조류(물살)가 가장 빠른 곳이며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조류가 빠른 해역입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곳에 '조류신호 표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조류속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바닷길 안전을 위하여 명량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1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장보고대교"

2017년 오늘은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날입니다.

이에 오늘은 '장보고대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원도' 동쪽의 '신지도(新智島)'와 '고금도(古金島)' 사이를 잇는 1,305m 길이의 연도교인 '장보고대교'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DB에 밝힌 지명 고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28년 장보고가 창건한 대사로 임명되어 원도군 정자리 정도를

중심으로 신지도, 고금도, 해안에서 곡만을 위무하고 당과

왜해적을 소탕하여 중국, 일본과 교통 무역을

하면서 해상권을 완전 장악한 해역으로,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장보고가

활약했던 해역임을 알리고 찬란했던

창해건의 옛 영광 재현을 위하여 장보고 대교라고 선정함."

수많은 섬을 품고 있는 남해 바다를 가르는

'장보고대교'의 이름에 담긴 영원치함,

우리나라의 미래도 바다 멀리 뻗어나가기를 기원해봅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2월 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쟁갈"

임인(壬寅)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며 여러분에게 지명을 소개해드리기 시작한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겨울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을 봉덕리에는 '쟁갈'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DB에 의하면 '길고 긴 침낭골이 서로 어우러져

어름에는 침이므로 덮여 푸른 돌이 되고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큰 구멍이 사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여 '쟁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을 '장갈(長巷, 긴 침낭골)'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니, 침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쟁갈'마을에는 아무기와 관련된 전설도 있습니다. 원래 침술 위로 아무기가 자주 보였는데, 하루는 한 노인이 눈에 떠있는 복지개(밤고루뚱뚱) 두 개를 발견해 집에 가져갔더니 아무기가 둘러달라고 채근해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후, 아무기가 복지개를 들고 눈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것이 필시 여의주였을 것이리 여겼다고 합니다.

현재 '쟁갈'마을 일대와 주변에는 아파둑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옛 마을은 이제 일부만 남아 있고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1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필동이가"

1994년 오늘은 서울시가 수도가 된 지 600년이 된 것을 기념하여 '서울 1000년 타임캡슐'을 '남산골 한옥마을'에 매설한 날입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남산골 한옥마을'이 위치한 '필동이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는 특이하게도 지명 고시인 '필동이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가지로 17가와 3가 역시 각각 '필동인가', '필동심가'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필동(筆洞)'은 조선시대 이 마을에 남부의 부청이 있어 '부동(部洞), 또는 '붓골'이라고 불렀는데, '붓골'을 한자로 다시 음차 표기하는 과정에서 '필동(筆洞)'이라고 쓴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창계천의 지류인 '필동천'이 흘렀으며, '필동교'라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필동천'은 복개되어 지하로 흐르고 있으며, '필동교'가 있던 자리에도 서울 도심의 백백한 빌딩들이 솟아 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2월 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설월리"

12월이 접어들면서 낙엽도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겨울 관련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에는 '설월리(雪月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이 산에 가려진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면 늦은 봄까지도 눈이 녹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의 입지를 보면 '설월(雪月)'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이 수궁이 같습니다. 애초에 '봉현리(鳳峴里)'라는 이름이 '봉재(鳳峴)'라는 고개가 있기 때문일 만큼, 주변이 높진 않지만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분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남시와 이천시 사이를 연결하는 '성남이천로'가 '봉현터널'을 빠져나온 서쪽에 있는 '설월교'가 '설월리'로부터 유래했습니다.



© 국토지리정보원

12월 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빙석촌”

12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파에 잘 대비해서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에는 '빙석촌'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 의하면 “얼음처럼 생긴 차들이 뒷산에 있었기 때문에 ‘어름들’ 또는 ‘빙석촌’이라 부른다. 또 겨울이 되면 응달진 곳의 얼음이 녹지 않아 주변이 얼음으로 덮여 ‘얼음들’ 또는 ‘빙석촌’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문봉동’의 유래가 된 ‘문봉서원(文峰書院)’이 ‘빙석촌’ 입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12월 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소선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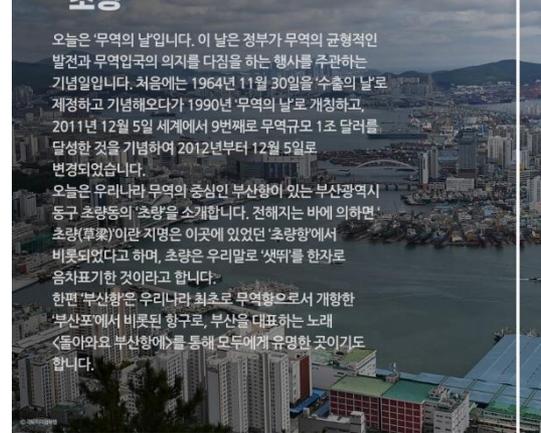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서 다음 봄이 와서 다시 녹기 전까지 차갑고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는 ‘소선땅’이라는 지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림저수지’ 남쪽 산기슭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국토지리원 지명 DB에 의하면, “이곳은 산 아래 지역이라 겨울이면 몹시 춥다 하여 소선땅이라 부르기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과림동’은 예전에는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지만, 최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되었습니다.



12월 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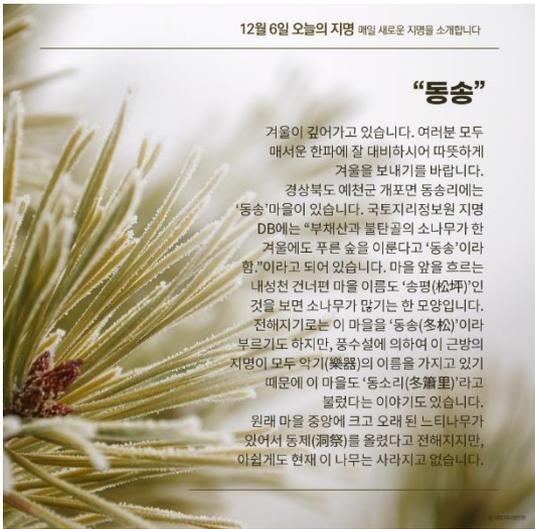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이 날은 정부가 무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짐을 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념일입니다. 처음에는 1964년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해오다가 1990년 ‘무역의 날’로 개칭하고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여 2012년부터 12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무역의 중심인 부산항이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의 ‘초량’을 소개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초량(草梁)’이란 지명은 이곳에 있었던 ‘초량항’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초량은 우리말로 ‘셋딴’을 한자로 음차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초로 무역항으로서 개항한 ‘부산포에서 비롯된 항구로, 부산을 대표하는 노래 <들어와요 부산항에>를 통해 모두에게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12월 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동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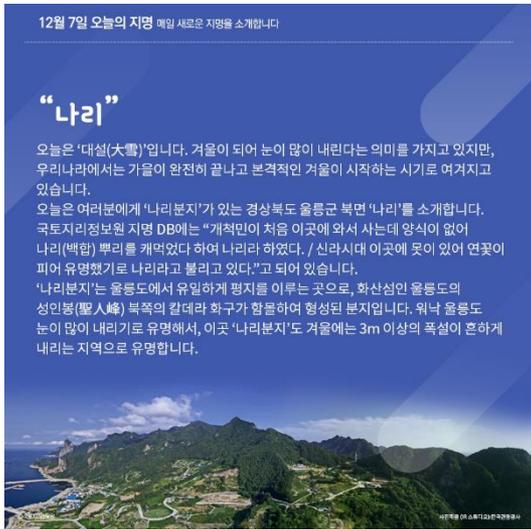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서운 한파에 잘 대비하시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에는 ‘동송’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DB에는 “부채산과 불탄골의 소나무가 한 겨울에도 푸른 숲을 이룬다고 ‘동송’이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내성천 건너편 마을 이름도 ‘송평(松坪)’인 것을 보면 소나무가 많기는 한 모양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마을을 ‘동송(冬松)’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풍수설에 의하여 이 근방의 지명이 모두 약기(藥器)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도 ‘동소리(冬簫里)’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마을 중앙에 크고 오래 된 느티나무가 있어서 동제(洞祭)를 올렸다고 전해지지만, 이윽게도 현재 이 나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12월 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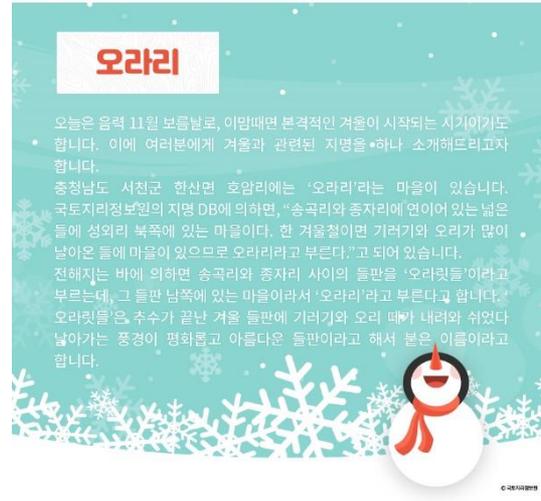
오늘은 ‘대설(大雪)’입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 완전히 끝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하는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리분지’가 있는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를 소개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DB에는 “개척민이 처음 이곳에 와서 사는데 양식이 없어 나리(백합) 뿌리를 캐먹었다 하여 나리라 하였다. / 신라시대 이곳에 못이 있어 연못이 피어 유명했기로 나리라고 불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리분지’는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를 이루는 곳으로, 화산성인 울릉도의 성인봉(聖人峰) 북쪽의 칼데라 화구가 함몰하여 형성된 분지입니다. 워낙 울릉도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해서, 이곳 ‘나리분지’도 겨울에는 3m 이상의 폭설이 흔하게 내리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12월 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오라리”

오늘은 음력 11월 보름날로, 이맘때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여러분에게 겨울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신면 호암리에는 ‘오라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 의하면, “송곡리와 종자리에 면이 있는 넓은 들에 성악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한 겨울이면 기러기와 오리가 많이 날아온 들에 마을이 있으므로 오라리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송곡리와 종자리 사이의 들판을 ‘오라릿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들판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서 ‘오라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라릿들’은 추수가 끝난 겨울 들판에 기러기와 오리 떼가 내려와 쉬었다 날아가는 풍경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들판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12월 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태백산”

겨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태백산 눈축제'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인 '태백산 눈축제'는 1994년 시작된 이후, 매해 1월 중순 경에 개최되고 있으며, 이맘때를 전후하여 축제 일정과 프로그램 등이 공개됩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태백산 눈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태백산'의 지명 유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태백산'의 지명 유래에 대한 단서는 1662년 당시 삼척부사로 재임 중이던 허목(許穆)이 남긴 '척주지(陟州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허목은 '태백산'에서 가장 높은 '문수봉'을 언급하면서, "이 산에는 모래와 자갈이 널려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흰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아 그것을 문수사력(文殊沙磧)이라 부르는데 부처의 유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산을 태백산이라고 이름한 것도 실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편 '척주지(陟州誌)'는 조선 후기 강원도 삼척 일대의 연혁과 지리, 행정구역 정보 및 자연재해와 구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기록한 종합 지리지로,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도서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12월 1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쇠깎”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따뜻한 곳이 좋아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있는 '쇠깎'마을이 바로 그런 따뜻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쇠깎'마을의 이름은 예전에 이곳에 광산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마을은 추운 겨울에도 바람이 심하지 않아서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춥지 않다고 하여 '누더기골'이라고도 부르다고 전해집니다.

이 마을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 천석꾼이 살았는데 그 집에 손님이 자주 오는 까닭에 며느리가 매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탁발 온 스님에게 손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을 묻자, 마을에 있는 소처럼 생긴 바위의 꼭두를 깨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 스님이 끌고 집안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12월 1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더운뎃이재”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다른 곳보다 따뜻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는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더운뎃이재'라는 고개도 있습니다.

논산시 삼전리에서 '통박산'을 넘어 양촌리로 가기 위하여 넘어야 하는 이 고개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한겨울에도 기온이 온화하기에 더운뎃이재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고개 위에 성황당인 '덕은당(德恩堂)'이 있어서 '덕은당재'라 하던 것이 '더운뎃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더운뎃이재' 아래에는 일제강점기에 석회광산이었던 옛 폐광에 동굴법당을 조성한 '반야사'가 있어 여행자들이 찾는 이색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1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온금동”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다른 곳보다 따뜻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름만큼은 따뜻한 곳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앞바다 돌산도 남쪽에 있는 '금오(金鰲島)'에 있는, 전남 여수시 남면 삼장리에는 '온금동'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DB에는 "마을 위치가 남향으로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겨울에도 따뜻하여 온금동이라 부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여수시에서는 금오도의 해안 절벽을 따라 산책하면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금오도 비렁길'을 조성해두었습니다. 그 중 4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온금동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동온동”

추운 겨울이라 해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지명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의 '동온동(冬溫洞)'마을입니다.

'동온동'에 대하여 저희 국토지리원 지명 DB에는 "양지바르고 한 겨울에도 춥지 않다 하여 동온동이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온동'마을은 서쪽으로는 한탄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용화천이 흐르는 사이의 평야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고잔벌', '고잔평', '드르니' 등으로도 불리는 황무지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실랑인과 제대 군인 등이 정착하고 개간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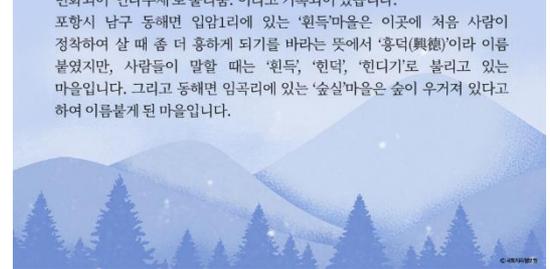
12월 1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안나무재”

우리나라의 지명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조건과 연관된 지명이 많습니다. 그중 겨울 추위 등의 기후와 관련된 지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에 있는 '안나무재'라는 고개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술실 마을과 환득 마을 사이의 고개로 추운 곳이라는 '안나무', '안네미' 등으로 음운이 변화되어 '안나무재'로 불리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에 있는 '환득'마을은 이곳에 처음 사람이 정착하여 살 때 좀 더 흉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흥덕(興德)'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는 '환득', '헌덕', '헌디'로 불리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동해면 입암리에 있는 '술실'마을은 숲이 우거져 있다고 하여 이름붙게 된 마을입니다.





2006년 오늘은 수도권지하철 1호선이 연장되면서 가능역(당시 의정부북부역)~소요산역 구간이 개통된 날입니다. 이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요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포천시 신북면에 걸쳐 있는 '소요산(逍遙山)'은 고려시대인 974년(광종 25년)부터 소요산이라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화담서경덕, 봉래 양사언과 매월당 김시습이 이 산에서 자주 소요(逍遙, 거닐며 돌아다님)하였다고 하여 '소요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요산'은 철쭉, 단풍, 두견, 폭포의 네 가지가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동두천시에는 가을마다 '소요단풍제'를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1호선이 연장된 후 '소요산역'을 통해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12월 1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병천”

오늘은 유관순 열사 탄생 1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16일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는 지금도 '유관순열사 생가'가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竝川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병천은 병천리의 유래와 같으며 아오내장터는 이곳에 장이 섰다고 하여 유래되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천'이 '아내', '아우내', '아오내', '구계(九溪) 등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설명으로 보입니다.

'아내'나 '아우내' 등의 지명은 이곳이 병천천과 광기천이라는 두 개의 하천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붙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12월 1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비리동”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따뜻한 겨울 이야기에 얽힌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현리에는 '비리동'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약 350년 전 이 마을 사람이 모친병환이 위중하여 약을 구하던 중, 의원이 잉어를 먹으면 낫는다 하여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모친 병환을 고쳤다 하여 효성이 지극하여 마을을 비리동이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원래 이 마을은 '성항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항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마을에 효성으로 유명한 '조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병든 부친이 한겨울에 잉어를 찾아 두꺼운 얼음을 깨고 잉어를 구해드렸고 부친의 병환도 나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이 이 마을을 '날 비(飛)'에 '잉어 리(鯉)'를 사용하여 '비릿동', 또는 '비리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월 1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은골”

'와빙구리(臥氷求鯉)'의 고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로부터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구하는 효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화였던 모양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는 '은골'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옛날 한 효자가 부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겨울에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해마다 이곳에서 큰물고기를 얻어 부모님의 병을 고쳤다 하여 '어은동' 또는 '은골'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을 기리는 '충의사'와 '윤봉길의사 기념관'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은골'마을은 조용하고 넉넉한 농촌마을입니다. 또한 '은골'마을 북쪽에는 한국 전통 공간을 체험해줄 '내포보부상촌'과 '예산보부상박물관'도 있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설경리”

겨울이 깊어지면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하얀 눈으로 온 세상이 뒤덮인 아름다운 설경(雪景)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에는 '설경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부락 주위에 산이 있어 겨울에 눈이 내리면 경치가 좋다 하여 설경리라 부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설경(雪景)'마을은 원래 학이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학선동'이라고 부르다가, 일제강점기에 눈이 온 경치가 좋다고 해서 '설경'이라고 거쳐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마을의 모양은 커다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닮아서 바라본 것처럼 생겼습니다. 새의 꼬리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경지'라는 저수지가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합니다.

12월 2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상염창, 하염창”

2004년 오늘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을 위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설립된 날입니다. 9호선 노선의 여러 역 중에는 '염창역'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고시지명이 바로 '상염창'과 '하염창'입니다.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설치한 소금창고가 있어서 '염창(鹽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염창'을 중심으로 위에 있던 마을을 '상염창', 아랫마을을 '하염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소금장수와 뱃사람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주막거리에는 '시염창(市鹽倉)'이라는 마을이 들어서고, 지금의 등촌동 쪽에서 넘어오는 고개에는 '염창고개'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염창동 일대는 주막들이 뿔뿔하게 들어선 전형적인 주막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9호선이 개통된 후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12월 2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얼음골”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에 고드름이 맺히고 길바닥에도 얼음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드름 낫하 사사고나 빙판길 사고를 조심하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에는 ‘얼음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마을 뒷산이 수목으로 울창하며 내성천 강바람이 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늑하다 보니 얼음이 일찍 언다 하여 ‘얼음골’이라 부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을 비롯한 ‘신암리’ 일대는 내성천 주변으로 펼쳐진 넓은 경작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마애여래삼존상’, 조선 전기 전통가옥인 ‘유금촌 두암 고택’, 조선시대의 정자인 ‘만취당’ 등의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22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동지화”

오늘은 ‘동지(冬至)’입니다. 이 날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오늘부터 다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동짓날을 ‘양기(陽氣)’가 다시 흥하기 시작하는 날로 여겼으며, 고대 역법에서는 이 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동지’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음리에 있는 ‘동지화(冬至花)’마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동짓날에 꽃이 피었다 하여 동지화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기로는 ‘동지화’는 ‘동계’라고도 불렀는데, 토래골 남쪽에 있는 이 마을은 한겨울에도 해가 많이 들어서 옛날 어느 날에는 동짓날임에도 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12월 23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논산천”

2002년 오늘 ‘논산천안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이 도로의 정식 명칭은 ‘호남고속도로(천안-논산)’이지만, 보통 ‘논산천안고속도로’ 또는 ‘천안논산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논산의 이름이 들어가는 ‘논산천(論山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시를 지낸다고 해서 ‘논산천’이라고 불리는 이 하천은 ‘장성천’, ‘인내’, ‘인천천’이라고도 불립니다. ‘논산천’은 공주시 계룡산 서쪽과 논산시 연산면 신지에서 발원하고 논산시 북서부를 남서쪽으로 흘러, 강경읍 서쪽을 횡유하여 금강(錦江)에 합류합니다. 호남선의 일부가 이 하천과 평행하게 달리기 때문에 기차 여행 중 창밖으로 ‘논산천’이 유유히 흐르는 풍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논산천안고속도로’는 민간자본 고속도로 운영자가 운영 중인 도로이며, 2032년까지 운영된 후 정부에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12월 24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신흥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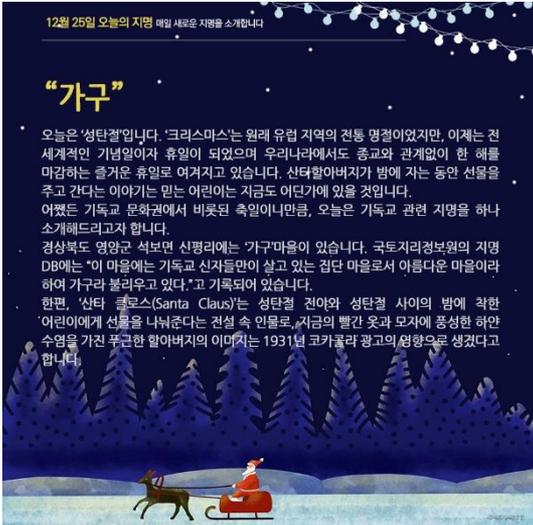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유럽 지역의 전통 명절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자 휴일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관계없이 한 해를 마감하는 즐거운 휴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레도 어땀든 기독교 문화권에서 비롯된 축일이니만큼, 오늘은 기독교와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구룡동에는 ‘신흥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기독교 신앙촌으로 새로 일어났다 하여 신흥촌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탄절(聖誕節)’은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Christmas)라는 단어는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라는 의미로 고대 영어인 ‘Cristes maesse’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12월 25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가구”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유럽 지역의 전통 명절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자 휴일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관계없이 한 해를 마감하는 즐거운 휴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산타할아버지가 밤에 자는 동안 선물을 주고 간다는 이야기는 믿는 어린이는 지금도 여단가에 있을 것입니다. 아찔든 기독교 문화권에서 비롯된 축일이니만큼, 오늘은 기독교 관련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신평리에는 ‘가구’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이 마을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살고 있는 집만 마을로서 아름다운 마을이라 하여 가구라 불리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타 클라우스(Santa Claus)’는 성탄절 전야와 성탄절 사이의 밤에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준다는 전설 속 인물로, 지금의 빨간 옷과 모자에 풍성한 하얀 수염을 가진 푸근한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1931년 코카콜라 광고의 영향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12월 26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작은만월”

가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가는 풍경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사산리에는 ‘행단(杏壇)’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은행나무와 살구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특히 예로부터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모습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행(杏)’은 살구나무를 이르는 한자이며, 은행(銀杏)은 열매가 은빛이 도는 살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단(杏壇)’은 글자 그대로라면 은행나무 또는 살구나무가 있는 제단 또는 은행나무나 살구나무로 만든 제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행단’이라는 단어는 관습적으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현 중 한 명인 공자가 살구나무가 있던 곳에서 제자들에게 야외수업을 했던 일화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12월 27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봉대산”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된 날입니다.

오늘은 '고리발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의 '봉대산'을 소개합니다. 산의 정상에 조선시대에 세워진 '아이봉수대(阿伊峰烽臺)'가 있다고 해서 '봉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기장군의 장안읍 효암리에 소재한 산이다(고도: 126m). 고리발전소의 배후 산지로 전형적인 노년산지이다. 산정부는 침식되어 등글고 산기슭 또한 완만한 편이다. 지명은 조선시대 이곳에 '이길봉수대'가 있어서 비롯되었다. 『해동지도』에는 이곳의 봉수가 '아이 봉수'로 명명되어 있으나, 『대동여지도』에서는 '이길 봉수'로 묘사되어 있다. 봉대산이란 조선시대 이 산에 봉수대가 설치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탈원전에 관한 담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일광산”

2016년 오늘 '동해선 광역전철' 부전역-광명역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향후 동해선은 울산광역시 북부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전철노선으로 연결되면서 교통여건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일광역'의 이름이 유래된 '일광산(日光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광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소재한 산이다(고도: 317m). 일광면과 기장을 만화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지로 전형적인 노년산지이다. 산정은 크지 않으나 안산암의 암주(岩柱)로 되어 있고, 산기슭은 비교적 급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층을 얹어놓은 듯한 층상형으로 멀리 동해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경관이 뛰어나다. 『기장읍지』에는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 하여 일광산이라 했다는 옛 기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광산에는 조선시대에 창건된 '백두사(白頭寺)'와 '월명사(月明寺)', 신비한 약수로 알려진 석가수가 있는 '황금사(黃金寺)',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일광 테마 임도' 등이 있어서 기장군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일광산도사'의 임주가 완료된 이후에는 일광산을 찾는 시민들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12월 28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동림”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겨울과 관련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에는 '동림'마을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DB에는 “약400년 전에 구췌가 개척하여 그 당시 겨울철에 오동나무 잎이 되었다고 하여 마을명을 동림이라 칭하였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오동나무 잎이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동림(桐林)' 마을에는 그 이름처럼 오동나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편 전해지기로는 동쪽이 숲이 우거진 곳이라 해서 '동림(東林)'이라 했다고도 하고, 또는 고려시대에 '동림사(桐林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동림'이라 부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2월 31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세방”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이번에는 '해남' 명소로 유명한 '세방 낙조 전망대'가 있는 '세방'마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에는 '세방'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다가 마을 앞에 곧바로 바다가 있어서, 좁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세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세방 낙조 전망대'가 있습니다. 바다 위로 저무는 태양이 다도해상의 여러 개의 섬들 사이로 저무는 풍경은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날 태양도 어느 순간 노을빛을 하늘과 바다 위로 퍼트리다가 바다 저쪽으로 사라졌다가, 내년 새 해의 아침해로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저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2022년 일 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지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언제나 국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국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다음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9일 오늘의 지명 매일 새로운 지명을 소개합니다.

국수고개

2008년 오늘은 '경의중앙선'의 팔당-국수역 구간이 개통한 날입니다. 이 개통으로 인하여 경기도 동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국수역'의 이름의 유래가 된 '국수고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수고개'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DB에는 “'바림' 마을을 중심으로 신원, 대란, 대이동, 정자동 마을이 있었는데, 국화꽃과 같다하여 국(菊)자를 쓰고 그 중에서도 중심이라 하여 배이날 수(秀)자를 써서 '국수'라 하고 그 고개를 '국수고개'라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수(菊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수역 앞을 비롯한 국수리에서는 국화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수리에서는 원래 2020년부터* 가을마다 마을축제로 '국화꽃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쉽게도 개최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